

碩士學位論文

서울의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分析研究

- 景福宮 · 昌德宮 · 宗廟를 中心으로 -

2005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開發 및 管理專攻

徐 文 鍾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서울의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分析研究

- 景福宮 · 昌德宮 · 宗廟를 中心으로 -

An Analytical Study on the Topology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Palaces Location Based on the
Feng-Shui Theory

-Centering on Gyeongbokgung and Changdeokgung palaces,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2005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開發 및 管理專攻

徐文鍾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서울의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分析研究

- 景福宮 · 昌德宮 · 宗廟를 中心으로 -

An Analytical Study on the Topology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Palaces Location Based on the
Feng-Shui Theoy

-Centering on Gyeongbokgung and Changdeokgung palaces,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위 論文을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漢城大學校 不動産大學院

不動産開發 및 管理專攻

徐 文 鍾

徐文鍾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12月 日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目 次

제 1 장 序 論	1
제 1 절 研究의 目的과 範圍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	2
제 2 장 風水地理의 理論	4
제 1 절 風水地理의 概念	4
제 2 절 풍수地理의 思想	5
1. 自然 崇拜思想	5
2. 三神五宰 思想	5
3. 陰陽 五行 思想	8
4. 氣 理論	13
제 3 절 風水地理의 理論體系	14
1. 龍	15
2. 砂	18
3. 穴	19
4. 水	23
5. 坐向論	25
6. 形局論	25
제 3 장 漢陽의 地勢分析	27
제 1 절 한양의 천도 과정	27
1. 朝鮮의 開國과 漢陽遷都 動機	27
2. 新都邑 후보지 鷄龍山	27
3. 신도 후보지 母岳(지금의 신촌부근)	29
4. 漢陽을 都邑地로 定함	30
제 2 절 서울의 四神砂	32
1. 北玄武	32
2. 左靑龍	33
3. 右白虎	34

4. 南朱雀	34
5. 淸溪川(開川)	35
제 3 절 서울의 風水學的 分析	38
1. 서울의 自然地勢	38
2. 漢陽都邑地의 風水的 條件	40
3. 漢陽 地勢의 風水的檢討	43
제 4 절 漢陽의 立志的 特性	49
1. 國土의 中心地	50
2. 風水地理的 明堂	51
3. 歷史의 中心地	51
4. 戰略的 背景	52
제 5 절 서울의 名稱과 城郭 및 裨補策	54
1. 서울 名稱의 由來	54
2. 都城의 울타리 서울 城郭	55
3. 漢陽(서울)의 裨補와 厭勝	59
제 4 장 漢陽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的 建立 背景	62
제 1 절 宮闕	62
1. 朝鮮王宮의 都城	63
2. 傳統建築 空間의 特性	64
3. 나라 中心地로서 궁궐	66
제 2 절 朝鮮의 正宮 景福宮	67
1. 朝鮮正宮 景福宮의 風水地理 思想	67
2. 景福宮의 空間概念	69
3. 景福宮內의 主要 殿閣 해설	75
제 3 절 昌德宮	79
1. 昌德宮의 建立 背景 歷史	79
2. 昌德宮의 建物 配置	84
3. 昌德宮의 地形과 水系 現況	87
4. 昌德宮의 世界文化 遺産	91
제 4 절 宗廟	92
1. 宗廟의 沿革과 시대별 배치 現況	92
2. 永寧殿의 제도	97

3. 宗廟의 造園	98
4. 宗廟의 地形的 特性	108
5. 宗廟의 機能과 空間 特性	110
제 5 장 結 論	114
※ 參 考 文 獻	116
옛 文獻 解說	119
現地 踏査한 곳의 目錄表	122
[ABSTRACT]	123

<그림차례>

그림 1. (오행의 각각 의미)	10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 상극)	12
그림 3. (용의 종류)	16
그림 4. (명산도)	17
그림 5. (형세도)	20
그림 6. (명당의 지세)	22
그림 7. (물 흐름의 종류)	24
그림 8. (계룡산 신도읍 후보지)	28
그림 9. (서울의 풍수 지명)	37
그림 10. (도성전도)	39
그림 11. (1953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복궁일대 전경)	47
그림 12. (서울의 성곽)	56
그림 13. (김정호 수선전도)	58
그림 14. (경복궁 전도)	73
그림 15. (북궐도형)	74
그림 16. (경회루 전경)	77
그림 17. (창덕궁의 건물 배치도)	86
그림 18. (창덕궁의 지형도)	88
그림 19. (종묘 전경)	93
그림 20. (종묘 주요 건물 배치도)	103
그림 21. (종묘의 지형 및 수계 분석도)	109
그림 22. (종묘 정전 평면도 및 신위 봉안도)	111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과 範圍

1. 研究의 目的

서울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精神文化를 집약하고 民族史를 주도하는 歷史文化의 中心地이다. 14세기 末부터(1394) 現在에 이르기까지 600여년의 首都로서 다양한 계층의 生活文化와 思想 그리고 藝術의 꽃을 피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의 세기는 物質的 價値보다도 精神的 역량이 더욱 重要한 시대로서, 바야흐르 人類文明의 進運이 온통 서울로 集中되어 우리에게는 더없는 문화 鄉愁를 느끼게 한다.

한국의 知識人들이 외국에서 傳來온 宗教의 聖地巡禮, 또 외국의 유명한 사람의 生家와 墓所를 찾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면서도 직접 자기 先祖와 수많은 우리의 殉國先烈, 그리고 民族詩人이나 藝術家의 遺蹟地를 찾아 敬拜하지 않는 자신의 行爲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民族文化란 바로 그 民族精神의 구체적인 實體이다. 따라서 韓民族의 存在가치는 그 民族의 文化로서 확인되고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民族文化의 喪失은 곧 民族의 消滅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祖上님들에 의해 오랜세월 綿綿히 가꾸어져온 豊富한 民族문화의 遺産이 있다. 이 보배로운 遺産을 잘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文化를 잘 알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깊은 理解와 認識의 뒷받침이 없이 어설피 알거나 잘못 알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幻想이요 거짓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하고 알려면 공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공부 方法, 가장 확실한 사랑법은 일단 자주 보는 것이다.¹⁾

宮闕 등의 文化財를 제대로 보려면 현상의 裏面을 파고 들어 그 原形과 本質을 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宮闕이 그렇게 된 來歷 즉 그때의 理論과 思想 位置選定과정 주위의 地形地勢의 活用 方法 등의 來歷을 찬찬히 짚어볼 일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에 얽힌 우리의 歷史를 더듬어 볼일이다. 歷史現場을 직접 답사하는 일은 기록을 백번 읽는 것

1) 홍순민, 《우리궁궐이야기》, 청년사, 2003, p7

보다 역사인식을 深化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궁궐이 많은 都市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을 잃고 처참하게 파괴되었지만, 최근 宮闕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더욱이 昌德宮과 宗廟가 유네스코 世界文化遺産으로 등록된 것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²⁾

앞으로의 과제는 深層的인 研究書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古都서울의 文化遺産의 價値와 意味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숨가쁜 激流속에서 妄覺되었던 우리겨레의 實體를 되찾은 일이기도 하다. 대망의 21세기는 분명 文化競爭時代가 될 것이다. 서울이 세계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歷史文化 遺産의 올바른 認識과 先賢들의 採取와 숨결이 배어 있는 文化財를 잘 保存하고 우리 국민 모두와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責任이며 任務라고 생각된다.

2. 研究의 範圍

우리는 600년 이상 우리나라 수도로 내려온 서울을 진정으로 알려면 風水地理 思想과 理論을 모르고는 진정한 서울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서울을 알기 위해서는 風水地理 思想과 理論을 알아야겠다. 太祖 李成桂는 自然의 地形, 地勢를 즉 人文地理를 적극 利用하는데 風水地理 理論을 活用했으며 또는 地形, 地勢의 缺點을 補完하는 方法으로 裨補 염승의 厭勝와 風水地理 理論을 活用하였다. 太祖 이성계가 漢陽수도를 정했을 때 중요한 자연의 지형 지세로 풍수지리이론 活用方法을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한다.

1) 풍수지리 이론은 크게 陰宅과 陽宅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陰宅은 죽은 사람의 주택, 곧 산소자리에 대한 이론이고 陽宅은 살아 있는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도시 등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따라서 陰宅에 관한 理論은 本 研究 범위에서 제외한다.

2) 本 研究는 서울의 地形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學的 分析 研究이므로 오늘날의 서울은 範圍가 너무나 넓으므로 太祖 李成桂가 처음 首都를 정할 때 풍수이론으로 이용한 중요한 자연의 지형 지세를 중심으로 한다.

2)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효행출판 공동발행, 2003, pp.5-6

3) 風水地理 理論은 크게 理氣論과 形氣論으로 나눈다.

理氣論은 佩鐵(羅經)을 이용하여 山과 水의 위치와 方何를 보고 擇地의 坐向을 결정한다. 形氣論은 山勢의 모양이나 形勢상의 아름다움을 유추하여 生氣가 凝血된 穴을 찾는 風水理論이다. 본인은 서울의 수도의 자연지형 지세를 形氣論을 주로 하고 理氣論은 補充的으로 하였다.

4) 文獻調査와 地形圖 分析을 먼저하고 다음으로 現場 踏査를 並行하였다.

5) 地氣衰敗說(송도의 땅기운은 이미 쇠하였기에 고려 국운은 패망하게 된다는 설) 漢陽明堂說(한양은 명당이고 송도는 흉당이기에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설) 木子得國說(木+子=李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설)등의 圖讖說은 本 研究範圍에서 제외한다.

6) 朝鮮의 遷都過程에서 지금까지 首都로서 위치하며 가장 明堂이라고 여기는 곳 즉 景福宮, 昌德宮, 宗廟을 中心으로 研究하기로 한다.

本 研究의 順序는 제1장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 風水地理의 理論. 제 3장에서 漢陽의 地勢分析. 제4장 漢陽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의 建立 背景. 제5장 結論에서는 本研究의 結果를 要約하여 說明하였다.

제 2 장 風水地理의 理論

제 1 절 風水地理의 概念

風水는 天地가 萬象을 잘 지탱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堪輿라 하고 또 地理 地術이라고 한다. 地理는 山水의 地勢, 地形을 말하는데 땅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땅과 人間과의 관계를 觀察하는 것이다. 地術은 地理의 術이라는 뜻으로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과 吉凶禍福의 관계를 설명하는 思想이다. 즉 陰陽의 氣가 땅속에서 잘 조화되면 生氣가 되는데 이 生氣가 통하는 氣脈이 있어 生氣가 濃厚 旺盛하는 곳에 住居지나 墓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風水地理說은 이같이 택지선정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국가나 가문의 興亡盛衰가 좌우된다는 것으로 보고 生氣를 받는 것에 수도를 정해 국가의 번영을 꾀하고 또 주택을 길지에 정해 그 곳에 살고 祖上의 墓를 吉地에 써서 자손의 繁榮을 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風水地理說이란 陰陽論과 五行說을 基盤으로 周易의 體系를 주요한 論理構造로 삼는 中國과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地理科學으로 追吉避凶을 目的으로 삼는 相地 技術學이다. 이것이 후에 孝의 觀念이나 샤머니즘과 結合되어 이기적으로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土地觀의 表出이며 風水說의 구성은 山, 水, 方位, 사람등, 四者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³⁾

한편 風水란 말 자체는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다는, 藏風得水의 준말이다. 사람이 집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땅을 갈아 곡식을 심어 먹고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는 한, 죽어 묻히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으려는 方向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좋은 땅을 찾으려는 욕구는 農耕을 基本으로 하는 傳統社會에서는 오늘날보다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가 흐르고 社會가 바뀔에 따라 그 시대, 그 사회의 思想과 觀念의 바탕 위에서 좋은 땅을 설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風水라는 概念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 앞 시대 사람들 거의가 風水적인 觀念에 따라서 집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묘 자리를 썼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歷史的 現象이다. 그런 점에서 풍수를 迷信이라고 하여 한마디로 唾棄해 버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날 우리가 앞 시대 사람들의 風水觀念을 分析해서

3)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9, p.32

그들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를 理解하고 더 나아가 그들 삶이 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⁴⁾

제 2 절 풍수地理의 思想

1. 自然 崇拜思想

古代人の 생활은 모두 自然과 더불어서 營爲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그 당시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自然的인 사고방식은 자연에 대한 崇拜思想으로부터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鬼神崇拜, 太陽崇拜, 山岳, 山神, 祖上崇拜등이 그러한 實例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간 생명의 山發地가 自然이며 또한 人間의 영원한 공간도 자연인 까닭으로 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概念은 古代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공통된 사상이라 하겠다.⁵⁾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은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 쏠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자연관, 생명관에 근거하여 풍수지리 사상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三神五宰 思想

1) 三神思想

三神사상에는 儒敎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佛敎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合一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교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곧 자기 몸을 바로 하고 가정을 일으키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儒者가 학문하는 目的이다. 이러한 유교이론은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

4) 홍순민, 《같은책》, 청년사, 2003, p.21

5)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 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68

간의 靈의 세계나 來世에 대한 해석은 부족함이 있다. 유교 사상의 중심 이론서로 《周易》은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태극은 陰과 陽으로 나뉘며 이 둘은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陰과 陽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부분인 태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좀더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변화하지 않는 太極과 변화하는 陰과 陽의 세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반면 불교에서는 현실, 곧 물질 세계는 순간적으로 소멸되므로 무사하고 오직 마음의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세를 인생의 본질로 생각하고 오직 마음의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선 사상이나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한다.

三神 思想은 현실 세계로 영혼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영혼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나타난 것이 현상 세계다. 영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사람이 현상 세계에 있는 기간은 영혼이 육체를 얻은 기간이므로 축복의 기간이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인 순간이다. 喜怒哀樂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三神 思想에는 儒敎, 佛敎, 神仙 사상의 세가지 종교 이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三神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三神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데리고 가는 먼길을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해서 밥 세 그릇과 신발 세 개를 문 밖에 두어 공양했다. 삼신은 이렇듯 생명체를 이루고 분해하는 조화의 힘을 갖고 있다. 三神의 상징은 三太極이다.

삼태극 문양은 신라 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 있으며 조선 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한국의 각종 古建築物, 특히 연못 형태에는 대부분 삼신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경복궁 경회루, 남원 광한루, 경주 안압지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계의 인공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숫자는 三神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하여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는 삼신 사상과도 관련된다.

경회루는 경복궁 내부에서 가장 큰 건물 가운데 하나다. 건물의 구성 기법을 보면 삼신 사상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섬을 세 개 만들고 그 섬

주위에 높이 樓를 올린 것은 삼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太一, 작은섬 두 개는 天一과 地一을 뜻한다. 경회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세 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이는 三神이 출입하려면 길이 세 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삼신 사상이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 건축물로 마니산 참성단을 들 수 있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開口部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삼신이 출입하는 곳이다. 참성단은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五宰思想

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 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東, 西, 南, 北, 中央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다. 또한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가지 색깔, 곧 五色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옷을 입고 있어 靑帝라고도 하며,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靑帝는 木星에 위치하고 있다. 동녘의 神 청제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게 한다. 봄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東帝의 대표 기능이다.

남쪽에 있는 神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朱帝 또는 赤帝라고도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靑帝가 만들어 놓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白帝라고 한다. 백제는 朱帝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기운을 정지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金星에 위치한다.

하늘 북쪽에 위치한 신을 玄帝라고 한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玄帝는 白帝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를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水星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神이 黃帝다. 황제는 동서남북의 中央에 위치하며 노란옷을 입고 있다. 황제의 기운은 四方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넷 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다. 그래서 土星에 위치한다.⁶⁾

3. 陰陽 五行 思想

1) 음양 오행설의 發生

陰陽 五行 思想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東洋 哲學의 基本 理論이다. 한의 학이나 사주, 침술, 관상 등 각종 동양철학들이 대부분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 사상도 《주역》과 음양오행설에 그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음양오행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풍수지리 사상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陰陽五行說의 起源이 언제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음양설이 구체적으로 정비된 것은 전국시대 말이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의 초엽에 이 설이 생겼다고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오행사상은 《書經》의 〈洪範〉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같이 음양설과 오행설은 기원을 달리하면서 후대에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설에 의하면 상반되는 요소가 상호 연관되면서 순환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相反과 應습이라는 음양사상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 하고 있다. 相反은 음과 양의 대립이고, 應습은 상반이 단지 반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면서 차례차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양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모든 만물에 존재하며 만물의 성격과 질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듯이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고, 음이 있으므로 해서 양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같이 음과 양은 두 개의 극이지만 서로 모순되는 관계는 아니다. 그것은 상반되지만 하나의 기능, 동태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양은 결국 공간상의 상반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가르키는 것으로 음인, 추위, 구름, 빛, 여성, 내면성, 그늘진 곳을 암시 한다면, 양은 빛, 열, 봄, 여름, 남성들의 성격을 가르키고 있다. 이 극단적 두 요소의 상호 의존관계에 따라서 작용과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같이 만물은 음 양의 상호 의존관계에 의하여 음이 강하면 음의 성격이 강하고, 양이 강하면 그것의 특성이 돋보이는 식으로 표출된 현상이라고 본다. 음양은 서로 한 요소를 보강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며 그들의 주기적 변화와 상호 보완작용에 의하여 세상은 변하기도 하고 세계질서가 성립되

6) 박시익, 《한국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pp.41~45

기도 한다고도 본다.⁷⁾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두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陰陽說과 五行說이 동일한 이론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陰陽說이나 五行說의 핵심 개념은 氣다. 氣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된 氣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氣로 분산된다. 氣에는 陽氣와 陰氣가 있다. 陽氣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하며 陰氣는 땅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한다. 양기와 음기가 결합되면 하나의 생명체로 작용한다.

오행 사상의 근원은 天文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다. 별이 사람의 운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점성술이 그 중 하나이며, 음양 오행 이론도 이러한 천문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달력의 일주일은 신기하게도 음양 오행 사상과도 일치한다. 음양 오행에서 양과 음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해는 뜨거워서 양의 기운으로, 달은 차가워서 음의 기운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음양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이 있으면 밝고 태양이 없이 달이 뜰 때는 캄캄하다. 태양과 달은 밝고 어두움, 곧 음양의 기준이 된다. 한 주일의 첫째날은 일요일이고 이는 태양이다. 둘째날은 월요일, 이는 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火, 水, 木, 金, 土는 각각 火星, 水星, 木星, 金星, 土星의 다섯 개별을 나타낸다. 곧 일주일을 구성하는 日부터 土까지는 하늘에 있는 일곱 개별의 이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⁸⁾

2) 오행의 기운

오행설은 세계를 氣의 유행이라 보는 전제 하에 세계 속 사물의 성능이나 작용을 목, 화 토, 금, 수라는 氣의 다섯 가지 경향성으로 귀납, 분류하고, 그것들의 상생, 상극원리의 입각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⁹⁾

오행이란 水, 火, 木, 金, 土 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7) 장기웅, <풍수지리사상과 건축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년, pp.105-107

8) 박시익, 《같은책》, pp.45-46

9) 김진근, <새로운 《주역》 관 정립을 위한 연구> 《주역의 현대적조명》, 범양사, 1993, p.51

오행	방위	수	계절	색	사신사
水	北	1.6	겨울	검은색	현무
火	南	2.7	여름	붉은색	주작
木	東	3.8	봄	푸른색	청룡
金	西	4.9	가을	흰색	백호
土	中央	5.10	변절기	노란색	사랍

그림 1. (오행의 각각 의미)

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이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며, 오행 가운데 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물은 마치 겨울의 氣運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는 다음기간까지 생명력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다. 목의 기운은 물리학상 원심력에 해당한다. 木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봄에는 모든 생명체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 오른다. 솟아 오르는 생명력이 바로 木에 해당한다.

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열 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확산하려는 성질이다.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金이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기운 때문에 움추려 든다. 중심점을 향해 움츠러드는 현상이 金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求心力이 여기에 해당된다. 金은 가을의 기운에 해당한다.

土는 水, 火, 木, 金 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이다. 土는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包容力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土는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¹⁰⁾

3) 오행의 相生과 相剋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운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크게 상생과 상극으로 나뉜다.

相生이란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북돋아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물은 나무가 살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물과 나무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를 水生木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으면 쉽게 불을 만들 수 있다. 곧 불은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무와 불은 서로 돕는 관계다. 이를 木生火라고 한다. 불이 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재와 같은 흙은 불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흙과 불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것을 火生土라고 한다. 흙속에서 단단한 쇠가 이루어 진다. 곧 쇠는 흙에서 그 기운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쇠와 흙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며 이것을 土生金이라고 표현한다. 쇠와 물의 관계를 보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에서는 기운이 수축해서 물이 생기는 만큼, 금속과 물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 관계를 金生水라고 표현한다.

정리하면, 물은 쇠 기운에서 생겨나고 나무에 기운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물은 쇠와 친하고 나무와도 친하다. 나무는 물에서 그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불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나무는 물과 불의 기운과 잘 어울린다. 불은 나무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흙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불은 나무와 흙과 친하다. 금은 흙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금은 흙 기운, 물 기운과 친하다.

한편 오행 각각의 기운은 서로 싫어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相剋이라 한다. 불의 기운은 물을 통해 억제된다.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한테는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水剋火라고 한다. 쇠는 매우 강하지만,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면 무력해 진다. 이러한 현상을 火剋金이라고 한다. 나무의 기운은 하늘로 높이 솟아 오르려는 기운이지만, 도끼나 쇠와 같이 강한 기운으로 잘려진다. 이러한 현상을 金剋木 이라고 한다. 흙의 기운은 모든 기운으로 뭉쳐져서 정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이에 비해서 나무는 흙에서 솟아오르려는 기운을 갖고 있다.

10) 박시익, 《같은책》, pp.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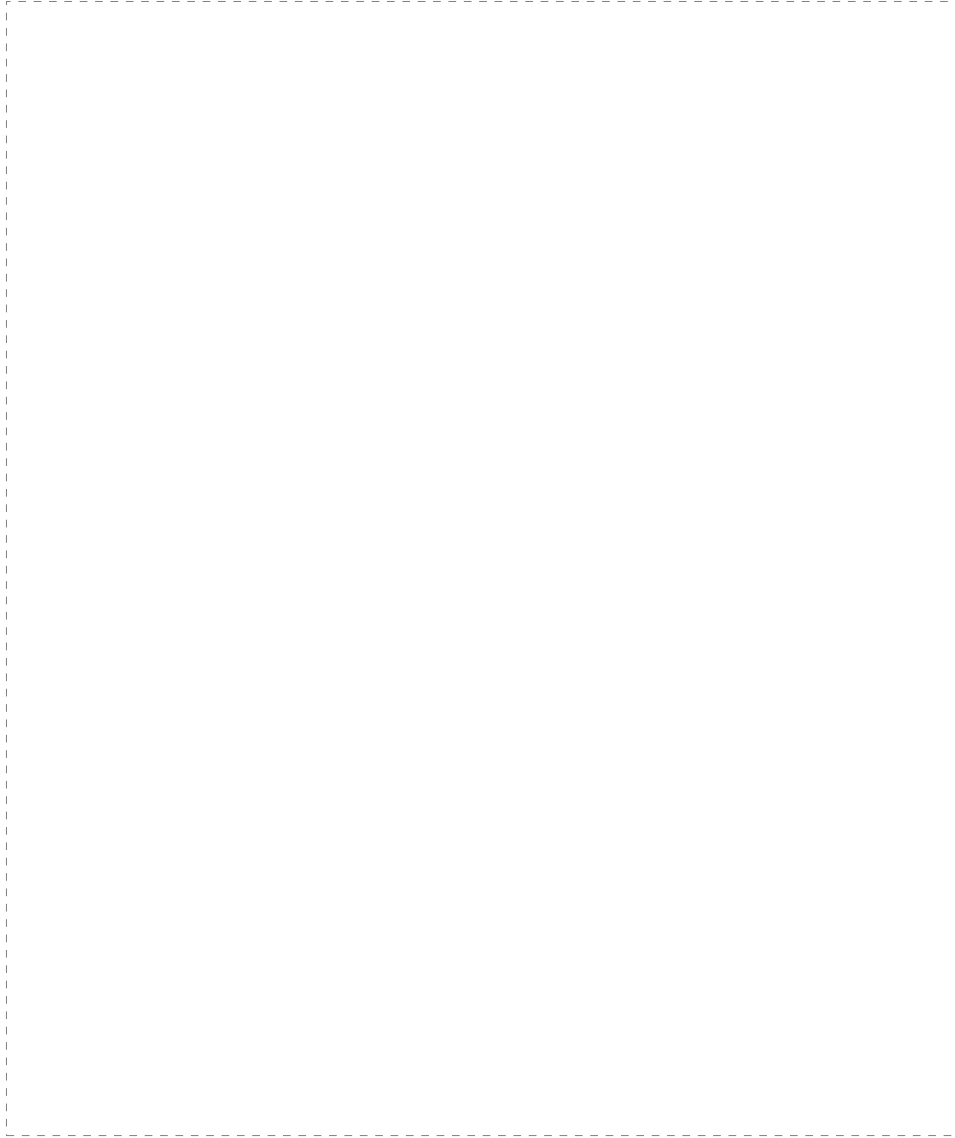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 상극)

이러한 관계를 木剋土라고 한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려 하지만 이런 물의 기운도 제방을 쌓으면 그 흐름이 정지된다. 곧 물의 기운은 흙의 기운으로 억제된다. 이러한 상극관계를 土剋水라 한다.¹¹⁾

11) 박시익, 《같은책》, pp.48-49

4. 氣 理論

풍수지리는 만물의 근원을 氣라고 본다. 기는 세상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기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 있는 것, 곧 모든 생명은 氣로 만들어 지며 氣로 삶을 영위하며 기가 다할 때 죽음을 맞는다. 사람 역시 그러하다. 사람은 氣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人之生 氣之聚也, 聚則僞生 散則僞死).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氣듯이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다.

어떤 氣가 모였느냐에 따라 사람은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식물의 성장과 결실이 저마다 다른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람의 육체는 陰氣와 陽氣로 구성되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인식은 고대 천문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잉태되는 순간 하늘의 기, 곧 天氣를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해와 달과 水, 木, 金, 土 다섯 별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된 사람은 조상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땅의 기운을 살펴 살자는 생각에서 체계적인 사상과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風水地理 이다.

《주역》에서는 우주 생명의 주인이며 원리를 太極이라 한다. 太極이 陰陽을 낳고 陰陽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¹²⁾

음양이란 본래 太極에서 갈라진 음양의 두 개의 기가 작용하고 또 음과 양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우주현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 즉 음과 양이 만나 서로 충화함으로써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생기라 한다. 생기 작용은 쉽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주현상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¹³⁾

퇴계 이황은 우주 생성의 근원을 氣로 보고, 그 氣를 太極에서 생겨난 ‘一元之氣’라 했다. 天地와 삼라만상은 모두 氣에 의해 생기고 자라며 죽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氣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분해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의 원천인 氣는 사람 몸 안에도 흐르고 땅에도 흐른다. 그 중에서도 生氣는 음양과 오행이 結合해 만들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氣로, 만물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도 음양, 오행의 생기에 그렇지 않은가에

12) 박시익, 《같은책》, pp.52-53

13) 장기웅, 《같은 논문》, p.107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된다.

이처럼 風水思想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의 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발전이나 성장 역시 자연에서 기를 흡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에서 “명당”이란 “生氣”가 흐르는 땅이다. 집을 짓거나 뗏자리를 택할 때 風水를 따지는 것은 좋은 땅의 氣를 받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가 흐르는 땅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氣에서 좋은 기를 찾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에서는 여러 氣가 結合해서 人間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吉한 것으로, 인간에게 나쁜 기운을 만들면凶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러므로 풍수에서 생기가 흐르는 좋은 땅이란 간단히 말해, 陰과 陽이 조화로운 땅이다. 산과 물, 음과 양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곳에서는 좋은 생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 기운만 큰 곳에서는 나쁜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風水地理는 地氣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人間이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人間이 땅의 氣를 느껴서 자신과 잘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땅의 모양이나 흐름 등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地氣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 理論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風水地理 理論의 三要素로 꼽히는 山, 水, 方位를 살피는 것도 그것들이 여러 가지 氣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¹⁴⁾

제 3 절 風水地理의 理論體系

風水地理 이론은 크게 陰宅과 陽宅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陰宅은 죽은 사람의 住宅, 곧 산소자리에 대한 理論이고 陽宅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住宅이나 建物 그리고 도시 등에 대한 理論을 말한다.

風水地理의 理論은 陰宅이나 陽宅을 말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기운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氣運은 크게 자연적 기운과 인위적 氣運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氣運이란 山이나 江, 方位 등 자연지세에 따라 생기는 氣運을 말한다. 인위적 氣運이란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생기는 기운을 말한다. 건축물은 대표적 인위적 공간이다. 자연적 공간의 기운과 건축물에 의한 기운은 서로 다르다. 자연적 기운, 곧 지세는 좋아

14) 박시익, 《같은책》, pp.53~54

도 형태가 좋지 못한 建物에서는 明堂의 氣運이 완전하게 발생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공간은 자연적 明堂地勢에 明堂 形態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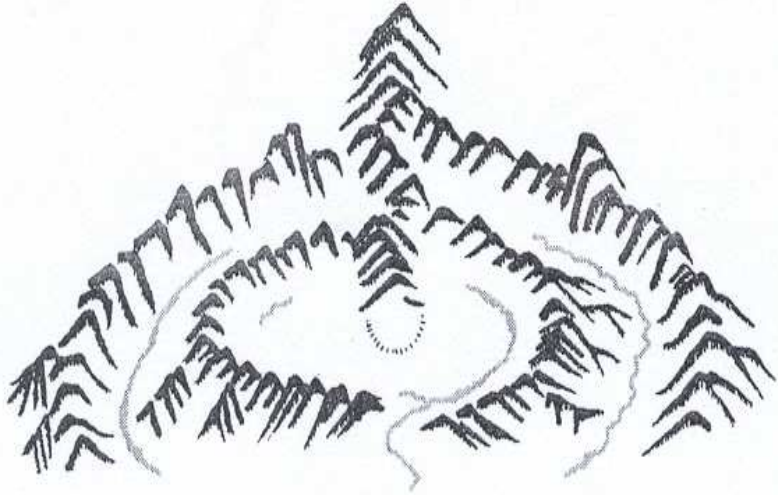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땅을 살펴보는 것은 한 마디로 그 지역의 바람과 물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바람과 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산세와 강물 등의 조건을 살피게 된다. 이렇듯 산과 물의 지세를 분석해서 명당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풍수의 핵심 목적이다.

산은 봉우리와 능선, 곧 龍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수에서는 산봉우리와 용을 통틀어서 용이라 말하기도 한다. 한편 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데 이들을 모두 합해서 四神砂 또는 간단히 砂라고도 한다. 이들 용과 사신사 그리고 강이나 개천, 바다같은 물이 있는 지세의 중심에서 穴을 찾게된다. 穴이란 한 지세에서 생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땅을 말한다. 風水理論의 구조는 대체로 龍, 穴, 砂, 水의 4대 구분을 따른다. 이 네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그리고 形局論, 등이 있다.¹⁵⁾

1. 龍

풍수에 있어서 산은 절대적인 조건이다. 산과 연결되지 않는 지형은 砂, 得 따위의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혈을 맺을 수 없다. 그런데 풍수에서의 산은 지형학에서의 산의 개념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된다. 풍수에 따른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평지의 경우 일척만 높아도 산이요, 일척만 낮아도 물로 보기도 한다. 평지에 혈이 있는 경우는 땅속으로 산의 기맥이 통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산을 또 용이라 한다. 용은 산의 정상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간 능선과 줄기를 말하는 데, 산의 능선과 줄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용이라 한다.

15) 박시익, 《같은책》, pp.35-36



(우선릉) ← 중심릉 → (좌선릉)



우선릉



혼합 곡선릉



좌선릉

그림 3. (용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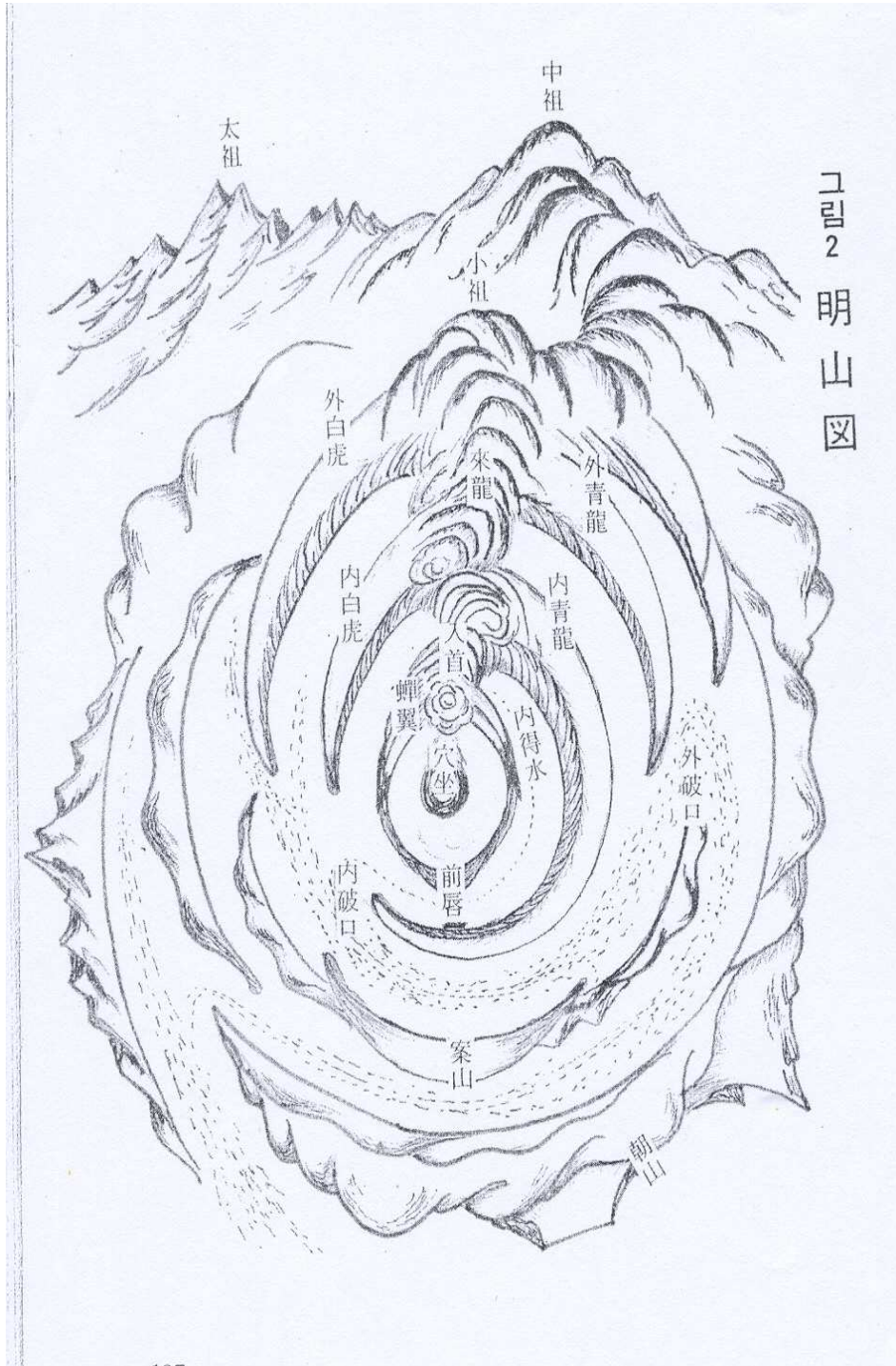


그림 4. (명산도)

간용법이란 이같이 용맥의 흐름이 좋고 나쁨, 조산에서부터 혈장까지의 용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용을 찾는 요령은 먼저 용의 조종이 되는 산을 찾으면 그 용의 원근장단과 기의 경중, 후박, 영양의 대소를 알 수 있게 된다.¹⁶⁾

용에는 그 근본이 되는 태조산과 소조산, 그리고 주산이 있다. 조산이 훌륭하여야 용도 용량이 크고 조산이 빈약하면 용도 역량이 빈약하다고 본다. 조산은 혈장으로부터의 거리와 산의 규모에 의하여 다시 몇가지로 나누어진다. 태조산은 혈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큰 것은 백여리를 뺀어 나가는데 큰 것은 오악과 같고 작은 것은 한고을의 으뜸이 되는 산이다. 더 작은 것은 한마을의 으뜸이 되는 산이 된다.¹⁷⁾

태조산은 처음발원하는 명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으로 본다. 태조산에서 길게 뻗은 주군의 척령을 幹龍이라 하고 이 幹龍에서 分脈한 산맥을 지룡이라 한다. 그리고 아주 빼어난 조산을 귀룡, 그렇지 못한 산을 천룡이라 한다. 또 장룡과 단룡의 구분이 있는데 장룡은 삼백리에서 천리에 이르는 용으로 생기를 응결하는 결작이 크지만 단룡은 30리 이하의 것으로 결작이 작다. 주, 군, 도읍의 터는 장룡에 두어야한다.¹⁸⁾

따라서 看龍法은 용의 흐름을 보고 그 산이 생기가 흐르는 산인지 죽은 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리 땅 정기의 원천인 백두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뒷산(主山)에 이르는 산맥이 힘있게 끊어지지 않고 잘 달려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龍처럼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生氣 넘치게 뻗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 砂

砂는 主山을 중심으로 明堂 주변 산세를 살피는 방법이다. 명당 주변의 산세가 포근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무정하게 돌아 앉았거나 외면하는 산세는 좋지 않다. 가장 전형적인 砂는 四神砂, 곧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서울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다. 서울의 主山이자 北玄武는 北岳山이다. 北岳山은 祖山인 북한산에서 맥을 이어 받았다. 주산은 혈장 뒤에 우뚝

16) 장기웅, <같은 논문>, pp.131-132

17) 장기웅, <같은논문>, p.132, 한송계역, 《인자수지》, p.27 재인용

18) 장기웅, <같은논문>, p.132

솟아 위엄을 갖추고 명당의 얼굴이 된다. 左靑龍과 右白虎는 좌우에서 主山을 호위하며 명당을 감싸는 모양을 갖추어야 좋다. 서울에서 청룡은 낙산(駝酪山), 백호는 인왕산이다. 주작에는 案山과 朝山이 있는데 이들 산은 임금이 주산에 대해서는 신하와 같은 산으로 머리를 공손히 조아리는 듯한 모양이 좋다.

서울의 관악산은 朝山으로서는 다소 기가 세다. 그래서 이 산의 기를 누르기 위해 景福宮 앞에 해태상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의 남산은 안산이 된다.

이렇게 砂를 살펴보면 명당의 크기를 볼 수 있는데 四神砂가 만드는 넓이가 크면 도읍이나 고을, 마을이 입지할 수 있는 명당이 되고 국면이 작으면 陰宅이 입지하는 땅이 된다. 따라서 風水地理에서 음택과 陽宅은 명당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吉地를 찾는 방법은 다름이 없다.¹⁹⁾

3. 穴

풍수지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穴이다. 그래서 穴은 국면의 중심이며, 核이며 가장 안에 위치한다. 따라서 四神砂 등 주위의 모든 것이 穴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은 龍脈중 陰陽이 조화롭게 합쳐지고, 山水의 精氣가 凝結된 곳이며 陽氣風水 에서는 주거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穴이란 혈은 擁衛하는 산세 즉 四神砂를 거느려야 한다. 명당 중에서 혈처를 찾는 방법을 定穴法이라 한다.

19) 박시익, 《같은책》,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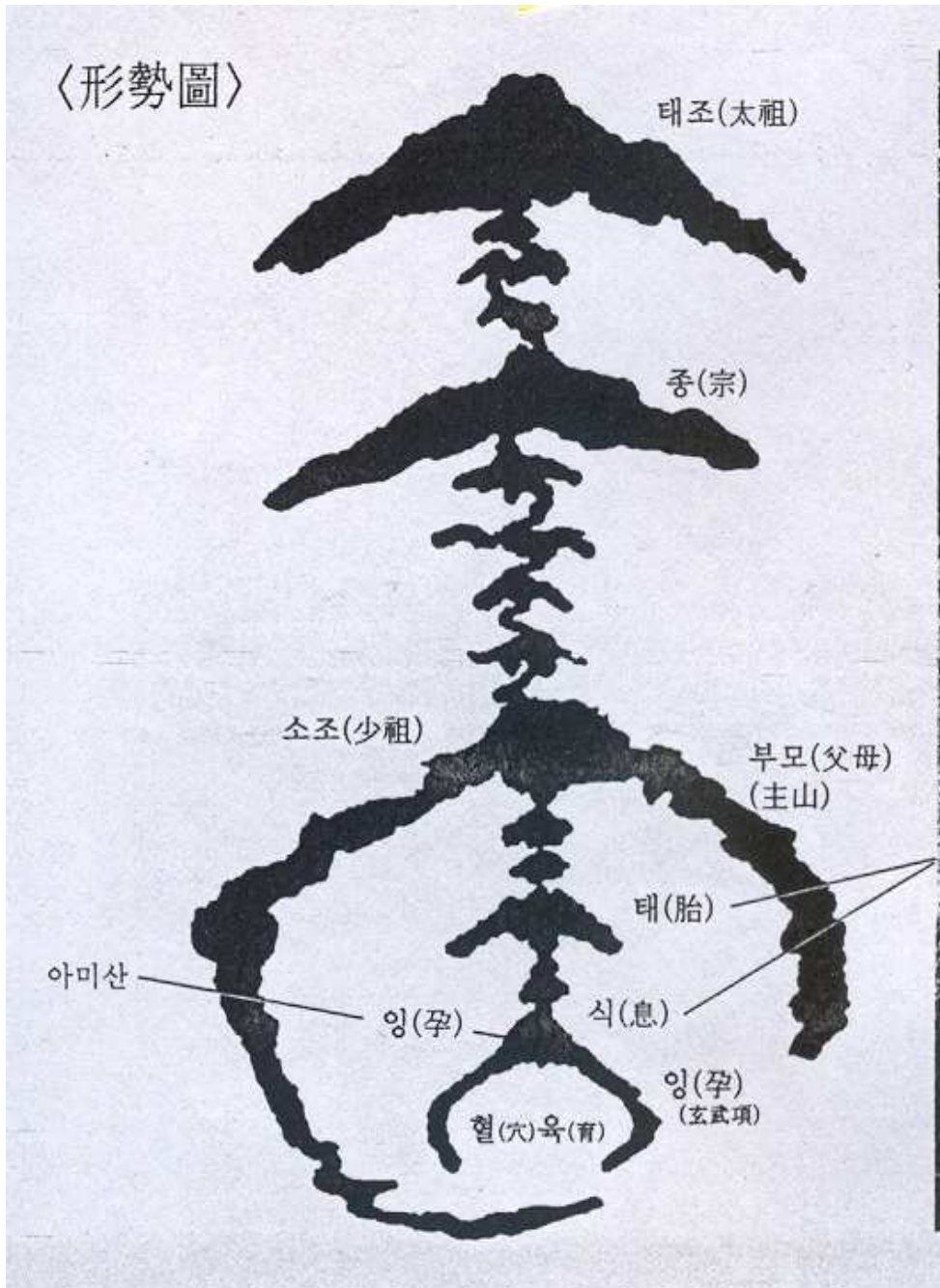


그림 5. (형 세 도)

[경북궁에서 지맥선 방향을 살펴보면 산줄기(胎)들이 숨을 쉬는 지표현상 이는 풍수형세도 에도 나오고 있는 지맥 현상 들이다.]

穴은 음택의 경우 시신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陽宅, 陽基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 삶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곳이다. 진혈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아름다운 안산과 조산이 있고, 수구가 모여들 듯 흐르고 뒤에는 주산이 솟아 鬼星을 버티고 좌우 청룡 백호가有情하고 전호가 열싸안아 주변 산세가 조화를 이루며 흘러가는 물이 그 分습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혈은 생룡으로부터 나온다. 생룡은 산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까닭에 좋은 산에서 좋은 혈을 얻을 수 있다. 생기가 모여들어 혈을 이루는 것을 結穴이라 하는데, 이러한 산의 형세를 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혈을 이룬다는 것은 생기의 순화, 화생에 있어서 생기의 활용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고요한 생기를 활동하는 생기로 변화시키고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는 생기를 생산활동이 가능한 생기로 만드는 것이다. 이 생산력 있는 生氣를 부모의 뼈에서 자손에게 유도시키고자 하는 것이 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脈이란 용속에 감추어진 산의 정기와 같다. 사람에게 맥이 있어 氣와 혈이 맥을 좇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용이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신체라면 脈은 혈관과 같다. 龍과 脈은 따라서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용을 살펴 맥의 善惡을 알 수 있어도 맥을 보아 용의 吉凶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용이 있어야만 맥이 있고 용이 없으면 죽은 용이 된다. 혈장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24방을 둘러싼 峰巒을 포함해서 암석, 강, 바다, 호수, 평야, 구릉 등 혈주위의 지세를 砂라 하는데 砂는 국혈 주위를 둘러싸고 생기를 끌어모아 순화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산이나 구릉을 총칭한 것이다.

혈장 부근에서 主山으로부터 내려오는 來龍이 우뚝 솟은 것을 玄武頂이라 한다. 入首는 현무정으로부터 불룩한 능선을 이루어 혈로 들어가기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이것은 용의 머리가 穴을 향해야 내밀고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이때 입수와 혈과의 접합지점을 용의 얼굴부분에 상당하여 頭腦라 부른다. 小祖山에서 내려온 기복을 이루면서 현무정 바로 아래에서 불룩하게 일어난 星辰을 父母라 하고, 그부모 아래 落脈된 곳을 胎라 하며, 胎 아래 계속해서 일어난 곳을 息이라 한다. 息에서 다시 星辰을 일으킨 곳을 孕이라 하는데, 이것은 태아가 머리와 형체를 이룬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孕 아래 혈체를 育이라 하는데 마치 어머니 태에서 자식이 나온 것과 같은 형상이다. 父母, 胎, 息, 孕, 育은 모두 入首의 범주에 들어간다.²⁰⁾

20) 장기웅, <같은논문>, pp.156-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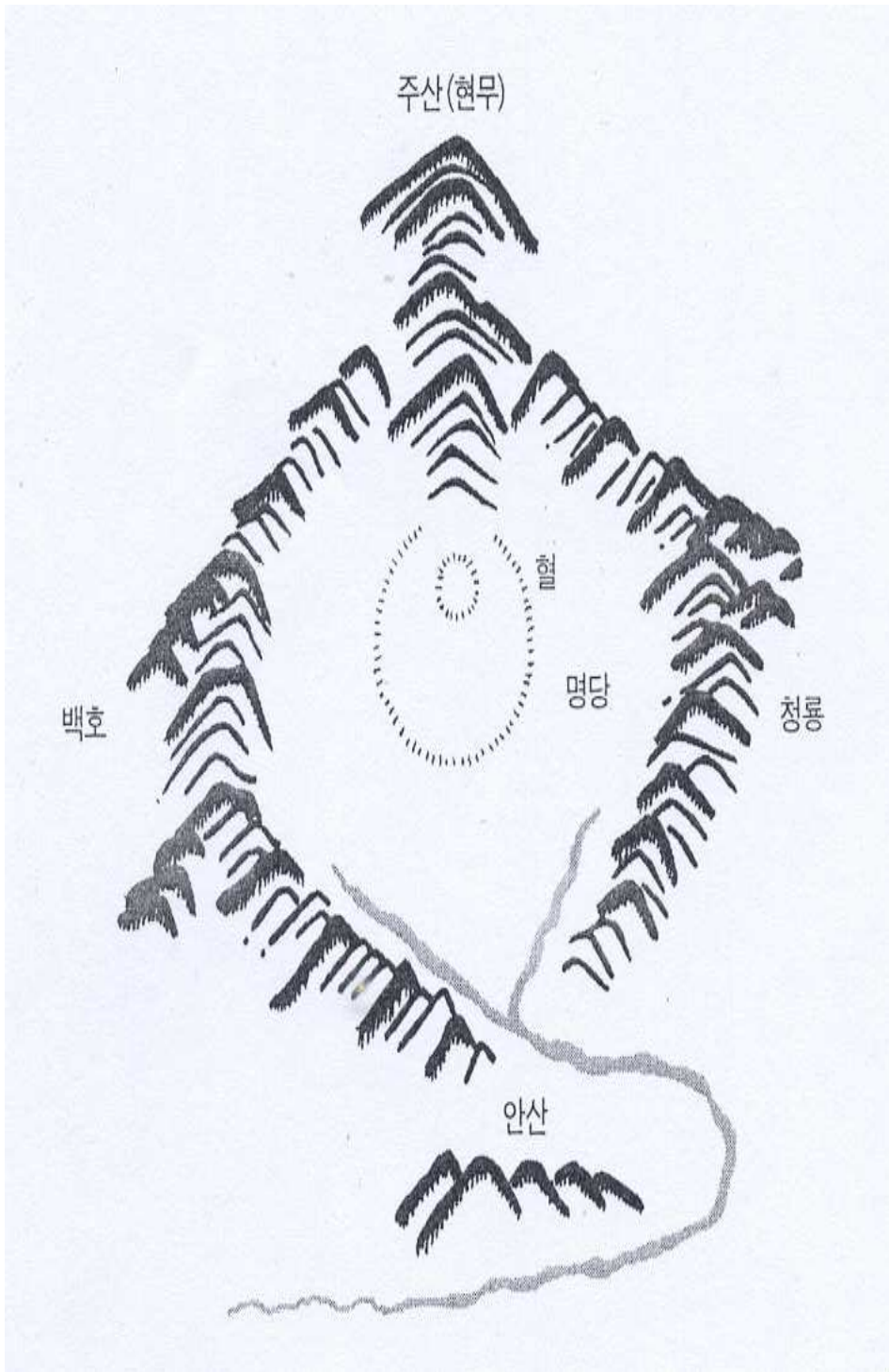


그림 6. (명당의 지세)

幹龍法과 藏風法을 통해 명당의 범위가 대략 정해지면 어느 부분이 생기가 모이는 穴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 穴을 정하는 것이 定穴法이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穴은 경복궁과 창덕궁이다. 穴은 명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양택, 양기 즉 도읍이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이곳에 놓이며 음택에서는 시신이 묻히는 장소가 된다.²¹⁾

4. 水

산은 물과 陰陽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만 음양의 造化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물은 藏風보다 더욱 중요시 된다. 일반적으로 得水라 하는 것은 물을 얻는 것이다. 《葬經》에서도 득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風水法은 得水가 최고이고 藏風은 그 다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풍수에서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과 산이 합쳐져야 길지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이 뺏어 나오다가 낮아지면서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지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이 지기가 모이는 곳에서 인간이 땅의 氣運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물을 얻기 쉽고, 토지가 기름지며,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서 사람의 生命을 유지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된다. 즉, 우리들이 산이 없는 平野에서는 생활할 수 있어도 물이 없는 沙漠에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득수법은 산수를 陰陽에 비유해서 明堂을 정한다. 즉 산의 흐름이 부드러우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꿈틀꿈틀 흘러야 좋은 것으로 보듯이 물 역시 직선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보다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유장하게 흐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²²⁾

21) 박시익, 《같은책》, p.37

22) 장기웅, 〈같은논문〉, pp.150-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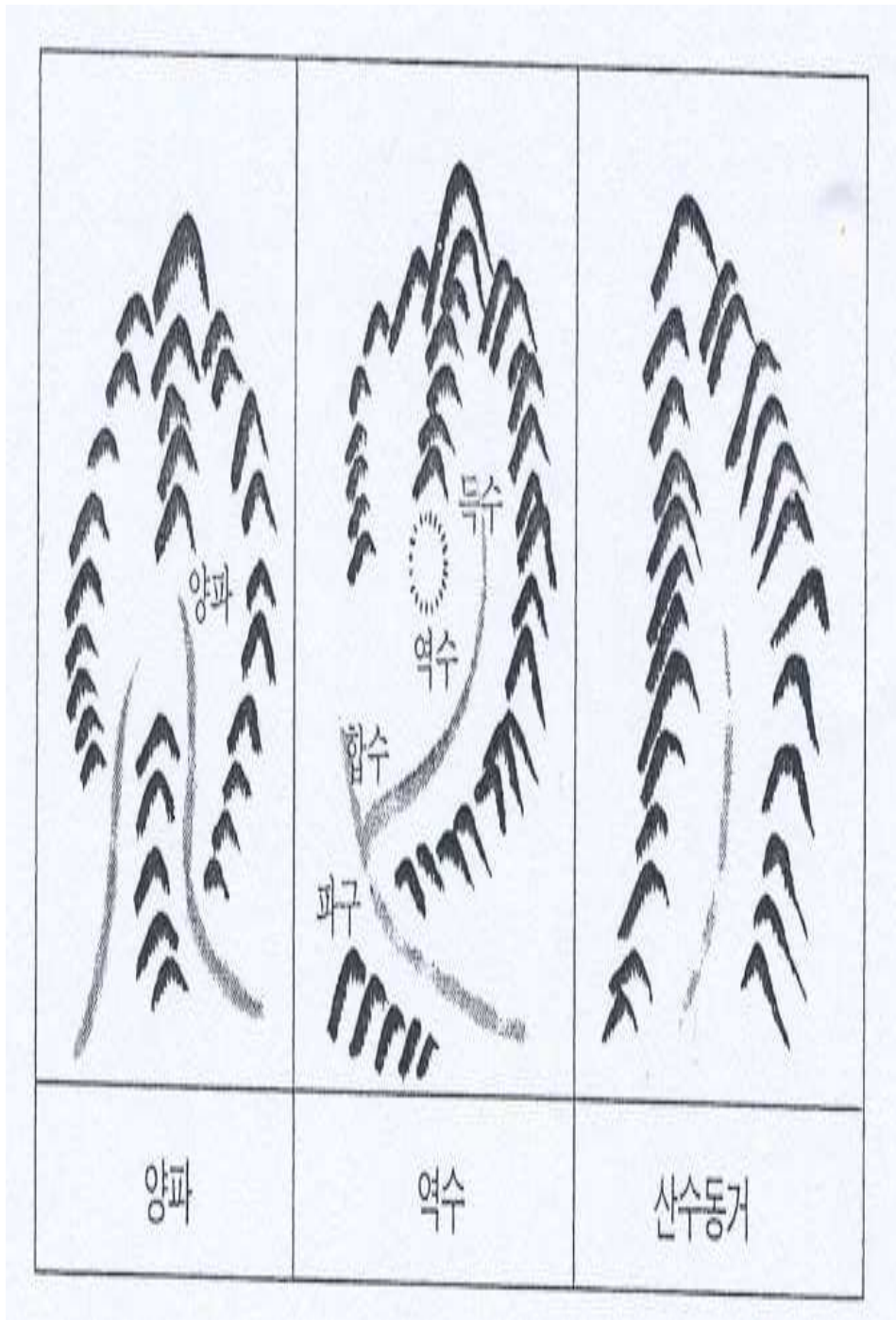


그림 7. (물 흐름의 종류)

5. 坐向論

좌향론은 풍수 구성 요소 중 方位에 해당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혈에서 본 방향이 즉 혈의 뒤쪽 등진 방위를 좌라 하고 혈의 정면을 향이라 한다. 좌향은 국면 전반이 일정한 형국으로 좌정 되었을 때, 전개후폐 즉 혈의 앞쪽으로 트이고 혈의 뒤쪽으로 기댈 수 있는 선호성 방위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³⁾

풍수 지리 이론에서 방위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을 오행에 의한 기의 해석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앞서 四神砂의 설명에서 각각의 방위를 말하였는데 좌청룡은 목, 우백호는 금, 남주작은 화, 북현무는 수, 혈 또는 명당은 토 등으로 방위가 정해져 있다. 이와같이 坐向論이란 方位論이라고도 한다. 즉 지세의 기운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²⁴⁾

또 바람과 물의 순환궤도와 물을 분석하여 穴을 찾고 坐向을 선택하는 풍수이론으로 바람과 물의 순환을 중시함으로써 得水와 波口를 꽤철로 측정하여 혈을 찾음으로써 佩鐵論이라고도 한다.²⁵⁾

6. 形局論

형국론은 지세를 개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즉 산체의 형세를 사람, 물체, 날짐승, 들짐승들이 형상에 유추하여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지세 개관과 길흉을 알 수 있는 이론이다. 형국론 이론 성립 근거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각자 자신의 존재 理와氣가 있고, 形과 像이 있다고 보는 것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만물, 만상은 모두 고유의 理와 氣와 像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물체의 형상에는 그 형상에 상응하는 기상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²⁶⁾

形局論은 땅을 호랑이, 소 등 짐승이나 매화, 연꽃 등 식물, 또는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곳을 찾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학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면 알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穴이 된다. 梅花落地形, 蓮花浮水形, 將軍對坐形 등은

2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p.187

24) 장기웅, 〈같은 논문〉, p.163

25) 권영휴, 〈한국 전통거주 환경의 풍수적 해석 및 입지평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52

26) 장기웅, 〈같은논문〉, p.168

形局論에 의해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지세를 파악할 때는 우선 각 地勢의 용이나 山勢 그리고 물에 의한 氣運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에 형국을 논해야 한다. 지세의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국만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땅의 氣運을 잘못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 형국론이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풍수지리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幹龍法, 藏風法, 得水法, 正穴法은 형국론보다 경험적이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이론 체계다.²⁷⁾

27) 박시익, 《같은책》, pp.35-38

제 3 장 漢陽의 地勢分析

제 1 절 漢陽의 遷都 과정

1. 朝鮮의 開國과 漢陽遷都 動機

新王朝를 개창한 太祖 李成桂가 國號보다 먼저 서두른 것은 도읍을 옮기는 문제였다. 그 이유는 첫째,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경은 구왕조를 흠모하는 구 세력의 잔재가 뿌리 깊어, 새 왕조의 면목과 인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도읍지를 옮길 필요가 있었고, 둘째로는 당시 인심에 큰 영향을 끼친 풍수지 리서와 風水가에 의해 「松都가 480년간의 도읍지이다.」 「松都의 地氣는 이미 衰盡 하였다.」 「松都의 地氣는 臣下가 임금을 廢黜하는 땅이다.」 등과 松京이 不吉한 곳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²⁸⁾

그래서, 太祖는 즉위한지 한달만인 1392년 8월 13일 都評議使司에 下敎하여 漢陽移都를 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三司右僕射 李恬을 漢陽에 보내어 南京離宮闕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冬節期 寒候로 인하여 南경 궁궐의 수리가 중지되었다.

2. 新都邑 후보지 鷄龍山

그후 왕명으로 王室安胎地를 찾던 政堂文學 權仲和가 신도의 후보지로 楊廣道 鷄龍山의 都邑形勢圖를 헌상하였다. 太祖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 지역을 신도후보지로 현지 답사 하기로 하고 태조 2년 1월 19일 여러 신하와 함께 松都를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에 양주 檜巖寺에 들러 無學大師를 同伴하고 目的地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太祖는 동년 2년 8월 鷄龍山에 도착하여 다음 날 群臣을 이끌고 신도후보지의 산수형세를 相地하고 李恬에 명하여 교통의 否便, 도로의 險易, 성곽의 형세를 살폈다. 다시 서운관원 및 풍수학인과 함께 權仲和가 제시한 신도형세도를 살피게 하였다.²⁹⁾

28) 金龍國, 〈서울 尊都의 動機와 前末〉, 《향토서울》 卷1,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57, pp.53~55

29) 《太祖實錄》 卷3, 太祖 2年 2月 甲申條



그림 8. (계룡산 신도읍 후보지)

太祖는 친히 群臣과 함께 중앙 언덕에 올라 무학대사에게 지리의 의견을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아뢰었다.³⁰⁾

그러나 王은 이곳에 도읍을 정하기로 결심하고 商議門下府事 金溱등에게 신도건설을 감독하게 하였다.³¹⁾

그리하여 계룡산에서는 조선 왕조의 新都建設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당시 풍수지리의 권위자였던 京畿左右道, 觀察使, 河崙의 반대 上疏로 신도공사는 중지하게 된다. 河崙이 반대한 이유는 첫째 都邑은 마땅히 국가 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의 남쪽에 치우쳐서 東, 西, 北 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문 地理的 觀點 둘째 계룡산의 지형이 산은 서북(乾方)에서 내려오고 물은 동남(巽方)으로 흘러나가 宋의 風水家인 胡舜臣의 이른바 水破長生, 衰敗立至의 나쁜 땅이라는 풍수지리적 觀點 때문이었다.³²⁾

鷄龍山을 諸臣의 반대론에서 위치가 남방에 치우쳐 東, 西, 北, 3면과 떨어져 道里의 均衡을 얻지 못한 곳이고, 가까운 곳은 大河가 없어 漕運과 用水가 불편하며 海岸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그에 따른 不便함이 상당함은 물론, 둘레가 지금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鷄龍山 連脈에 의하여 깊게 둘러싸인 일종의 좁은 山谷 盆地狀 地勢이기 때문에 국도로서 漢陽, 開京이나 毋岳에 비할바가 못되는 국도로서의 입지를 운위할 장소가 되지 못하는 곳임이 분명하다.³³⁾

3. 신도 후보지 毋岳(지금의 신촌부근)

한편 太祖는 고려 왕조의 書雲觀에 소장된 秘錄文書를 모두 河崙에게 주어서 考閱하게 하고는 천도할 땅을 다시 보아서 아뢰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2月에는 左侍中 趙浚과 領三司事 權仲和로 하여금 書雲觀의 員吏들을 거느리고 천도할 땅을 毋岳 남쪽에서 살펴 보게 하였다.³⁴⁾ 이들이 毋岳으로부터 돌아와서 毋岳의 남쪽은 땅이 좁아서 천도하기는 부적당하다고 하였으나 유독 河崙만은 毋岳은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이나, 다만 명당이 좁고 후산이 낮아 유감이라고 하니 명당은 좁은 것 같지만 송도의 강안전, 평양의 장낙궁에 비하면 오히려 넓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은 전조의 비록 및 중국에서 행해지는

30)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2月 丙戌條

31)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2月 戊子條

32)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2月 壬午條

33) 최창조, 《같은책》, p.241

34)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2月 戊子條

지리의 범에 모두 합치되기 때문에 신도로서 부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³⁵⁾

4. 漢陽을 都邑地로 定함

王은 1394년 6월 趙浚 權仲和 河崙 書雲觀 觀員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곳을 물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신하와 백성들은 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태조는 이처럼 신하들이 遷都不可論을 내세우자 昭格殿에 나아가 天地神明에게 의지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³⁶⁾

太祖는 書雲觀員들의 의견으로는 松京을 제외하고는 南京이 吉地라 하여 太祖3年 8月 10日에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南京, 舊宮의 基地(지금 경북궁뒤 神武門外地)를 相宅하고 산세를 관명하면서 尹辛達에게 風水상의 장단점을 문의 하였다.

그는 松京이 제일이고 漢陽이 다음이라 하여 역시 松京優位論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漢陽에 대해 西北이 낮고 水泉(明堂水)이 枯涸하다는 단점 외에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太祖는 크게 기뻐하면서 松京인들 어찌 풍수상의 결함이 없겠느냐고 말하면서 李稷이 주장한바 漕運등의 잇점을 한양이 갖고 있기 때문에 人事에 편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어 王師 무학대사에게 소견을 문의한 즉 대답하여 이땅은 四面이 높고 중앙이 平坦하여 도읍으로 적합하다고 人文地理的으로 설명하면서 衆議에 쫓아서 정하도록 건의하였다.³⁷⁾

太祖가 다시 여러 제상들에게 문의하니, 모두들 꼭 도읍을 옮기려면 한양이 좋다고 하였으나, 유독 河崙만이 한양의 산세가 비록 불만한 것 같으나 풍수지리상으로 논하면 좋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太祖는 중의에 따라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³⁸⁾

이때 大臣들 가운데에는 太祖의 한양천도 決意를 굳게 하려 하여 正式으로 上書申請하는 사람이 있었다. 즉 左政承 趙浚, 右政承 金士衡 등은 「그윽이 한양을 보건대 안팎 山水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四方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후세에 깊이 전함이 참으로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

35)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민음사, 1995, p.561

36)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8月 乙卯條

37)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8月 庚辰條

38)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8月 庚辰條

다。」라고 하였다.³⁹⁾

이리하여 한양천도를 굳힌 태조는 判門下府事 權仲和, 判三司事 鄭道傳, 青城伯 沈德符, 參贊門下府事 金溱등 중신을 한양에 보내어 廟社, 宮闕, 朝市 및 道路이 基地를 정하게 하였다.

이때 權仲和 等은 고려 숙종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해서, 다시 그 남쪽에 亥山(서북산 즉 白岳)을 主山으로 하여 壬座丙向이平坦하고 넓은 곳에 궁궐터(지금 경복궁)을 정하고 또 동편 數里쯤 되는 곳에 坎山(北山 즉 昌德宮의 뒷산)을 主脉으로 하여 역시 壬座丙向의 곳에 宗廟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 바치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基地가 결정되자, 沈德符와 金溱은 한양에 남아서 신도경영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⁴⁰⁾

당시 松都 氣衰의 설을 惑信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도에 안주하려고 했던 太祖는 개국한지 3년째 되는태조3년(1394) 10월25일에 신도공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드디어 遷都를 결행하여 舊漢陽附客舍(지금의 敦義洞부근)로서 임시 離宮을 삼았다.⁴¹⁾

그리고 같은해 12월 3일에 判三司事 鄭道傳으로 하여금 皇天後土의 神에게 祭하여 신도공사의 사실을 告하고 또 參贊內下府事 金立堅을 파견하여 산천 제를 올리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工役이 대단히 빨리 進陟되어 다음해인 太祖 4년(1395) 9월 29일 宗廟와 新宮인 景福宮이 함께 완성되었다.⁴²⁾

한양 새 도읍지가 건설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 3년(1394) 9월 1일(무술) :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함.

태조 3년(1394) 9월 9일(병오) :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터를 정함.

태조 3년(1394) 10월 25일(신묘) : 한양으로 도읍을 옮김.

태조 3년(1394) 10월 28일(갑오) : 새 도읍지에 이르러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음.

태조 3년(1394) 11월 2일(무술) : 도평의사사와 서운관의 서리들을 인솔하고, 종묘와 사직의 터를 살핌.

태조 3년(1394) 11월 3일(기해) : 도평의사사에서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을 것을 상신함.

태조 4년(1395) 1월 29일(갑자) : 사직단을 영조하였음.

39)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8月 辛卯條

40)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9月 庚申條

41)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10月 辛卯條

42) 《太祖實錄》卷6, 太祖 4年 9月 庚申條 (太廟乃新宮造成)

태조 4년(1395) 9월 29일(경신) : 太廟와 새 궁궐이 준공됨.

태조 4년(1395) 10월 7일(정유) : 정도전이 신궁을 경복궁으로 이름지음.

태조 5년(1396) 1월 9일(무진) : 백악산과 오방신에게 도성 開基祭를 올리고 도성축성공사를 시작함.

태조 7년(1398) 2월 8일(을유) : 도성의 남문이 이룩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1단계 한양도성건설은 이루어졌고, 한양은 새 도읍지로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제 2 절 서울의 四神砂

1. 北玄武

玄武는 穴의 후면에 위치하면서 地氣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四神砂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사신사 가운데 주인 역할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⁴³⁾

玄武는 主山이 되며 도읍지의 主山은 陽氣를 鎮護하는 산으로 도읍의 위쪽에 鎮座하고 있어서 後山이라고 불린다.⁴⁴⁾

서울 경복궁의 주산은 北岳山(청와대 뒷산)이다. 북악산은 고려때는 面岳이라고 불렀다고 전하며 이름 그대로 언제 보아도 표면이 깨끗하고 시원함이 항상 변함 없는 모습이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왕산과 북악산, 백악산, 낙산(타락산), 남산 등과 함께 서울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방벽으로 옛서울의 성벽은 이 산을 중심으로 하여 축조 되었다고 전한다. 이산 동쪽에는 北清門이 있는바 유사시에 북한산성으로 갈수 있는 대피로가 있어 이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름을 북청골이라고 하였다.

서울을 품고 있는 산은 북악산(백악산), 인왕산, 타락산(낙산), 목멱산(남산)이다. 이 산들을 서울의 內四山이라고 하고 北漢山, 남으로 한강을 건너 북한산과 마주보고 있는 冠岳山, 동쪽으로 서울과 구리시를 가르는 峨嵋山, 서쪽으로 서울과 고양을 나누는 行州山성이 들어서 있는 德陽山이 서울의 外四山이다.

이 내사산 안쪽은 분지가 되어 거기에는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물을 內水

43) 박시익, 《같은책》, 일빛, p.148

44) 李熙德, 《風水地理》, 박영사, 1976, p.204

라 한다. 이 내수는 案山 밖으로 흐르는 큰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를 外水라 한다. 집이나 마을 도시에서 보자면 주산을 등지고 內水를 바라보는 모양이므로 背山臨水가 된다.

한양의 祖山은 북한산이다. 북한산 줄기가 흘러내려 보현봉이 되고, 보현봉이 내려와서 두 마장쯤 평탄한 언덕이 되었다가 우뚝 솟은 높은 봉이 바로 북악산(백악산)이다. 그 아래로 영킨 평평잡한 넓은 땅은 마치 바둑판과도 같이 일만군사가 들어설만 하니 이곳이 바로 명당이다.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청와대 뒷산)의 바깥 협곡을 살펴보면 서편으로 우뚝 팔을 쳐들어 우백호 인왕산을 이룬다. 인왕산의 맥은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을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돌리어 동대문 수구에 이른다. 왼쪽팔은 동남으로 청룡인 타락산(낙산)을 이루어 동대문에 이른다. 이와같이 명당이 전후 좌우가 고르게 펼쳐져 편안하다.

2. 左靑龍

駱(駱酪)山은 서울의 內四山중의 하나이다. 경복궁에 대해서 청룡에 해당된다. 서울도성의 四小門 가운데 하나인 동소문(속칭 惠化門)은 종로구 혜화동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동대문에서 멈추어 우뚝 솟은 산으로 본다. 산 이름이 駱酪山(낙산)은 동숭동 옛 서울대학교 뒷 산이다. 타락이란 붉어진다는 뜻의 불교용어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붉어진다는 뜻으로 썼는지 아니면 서울동쪽에 있으니까 아침햇살에 붉어진다는 뜻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옛기록에는 駱酪山 또는 駱駝山이라고도 나온다. 이를 일제시기 일본인들이 한글자를 빼버리고 낙산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⁴⁵⁾

고려시대 때는 大峯이라 불렀다.

낙산은 본디 형태가 낙타와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駱駝山이라고 지은듯하다. 남쪽을 멀리로 볼 때 동소문쪽이 꼬리에 해당되며 구 서울대학교 뒤편 산기슭(동숭동)에 옛날부터 넓은 반석 위에 구멍이 뚫려 많은 양의 샘물이 용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이 물을 길어다 먹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전한다.⁴⁶⁾

45) 홍순민, 《서울궁궐》, 서울학연구소, 1994, p.19

46) 김동복 편저, 《서울의해》, 이화출판사, 2001, p.18

3. 右白虎

인왕산은 경복궁의 右白虎에 해당되며 서울의 內四山중의 하나이다. 仁王은 불교 용어로서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의 하나이다. 요즈음 인왕산을 한자로 “仁旺山”이라고 쓰는데 임금“왕”(王)자에 날 “일”(日)자를 덧붙인 것은 일제의 소행이다. 이러한 개명들은 전국 어디서나 발견된다. 물론 우리땅과 역사와 문화를 왜곡시키고 파괴하려는 일제의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⁴⁷⁾

서울 서쪽 도성 내에 위치해 있는 산이며, 종로구 효자동 뒷산으로 기록을 보면 고려때는 岐峯이라고 불렀고 산전체가 石峯層崖로 되어 있어 한결같이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봉 못 미쳐 曲城이 있고 그밖에 白雲洞, 玉流洞, 茂溪洞, 彌雲臺, 洗心臺가 있었으며 金剛窟과 福世庵도 있었다.

유명한 仁王寺가 있으며 부근에는 기암괴석도 많이 있고 특선 선바위(立石)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입석 가운데 가장 크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굽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린다.

조선초기의 北岳을 主山, 남산을 案山, 駱山과 인왕산을 左右龍虎로 삼았다고 전함.⁴⁸⁾

4. 南朱雀

남산(목멱산)은 북악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경복궁에 대하여 案山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의 內四山중의 하나이다.

남산이 한성부 시대에 있어서 서울의 남쪽 끄트머리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지도의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산은 본래의 이름이 引慶山이고 목멱산으로 부르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북악산과 남산에 산신을 모셨는데 남산에 모신 산신당을 목멱신사라 했고 이때부터 남산을 木覓山이라고 불렀다.

남산은 해발 265m이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서북쪽으로는 암석이 층계를 이루고 여기저기에 계곡이 깊어 그윽하고 풍경이 기묘하여, 동남쪽으로는 구름이 길게 뻗어 내려가 江岸과 田野에 인접하여 있다.⁴⁹⁾

47) 홍순민, 《같은책》, p.19

48) 김동복 편저, 《같은책》, 이화출판사, 2001, pp.20-21

남산은 木覓이란 별칭이 있다. 木覓이라고 하는 것은 남산을 혼독한 것이라 한다 즉 목은 한국어의 「나무」 또는 「남」 이고 覓은 岳의 음자를 말한다. 최고봉을 잠두, 흔히 가을 두 라고 칭하며, 또 용두라고도 한다. 남쪽을 대설마현, 서쪽을 소설마현이라고 한다.⁵⁰⁾

남산은 한양 남쪽 경계를 이루며 다른 산들에 비해 높지 않고 바위, 돌보다 흙이 많아 나무와 꽃이 많이 자라는 아름다운 산이다. 특히 봄의 꽃경치가 좋다고 전해진다. 남산의 봄의 꽃구경(覓木賞花)은 정도 초기 都城十詠중의 하나였다.

남산에는 두 봉우리가 있으며 남측에서 볼 때 (특히 반포대교에서 보면) 그 능선은 말이 안장을 내려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⁵¹⁾

5. 淸溪川(開川)

風水地理說에 의하면 都邑地에는 明堂水가 있어야 하는데 漢陽의 明堂水는 淸溪川이다. 그런데 조선초기의 風水家인 尹莘達은 漢陽의 경우 明堂水의 고갈이 결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太祖가 漢陽으로 遷都할 당시에는 다만 川渠라고 부르다가 太宗 11년에 溝渠를 開鑿함으로써 開川이라고 불렀다. 開京에서 漢陽으로 再遷都한 직후인 太宗 6년에 왕은 丁夫 600명을 동원하여 川渠를 開鑿하였으며, 同王 11년 12월에는 開渠都監을 설치하고 李稷 등을 提調로 삼아 藏義洞口에서 大門(東大門 옆 五間水門)까지의 川路 개착과 방축의 조성이 있었다. 그 후 여러차례 개천이 범람하여 世宗 3년에도 漢城府에서 開川工事を 하였다.

漢陽의 明堂水인 淸溪川은 白岳. 仁王. 木覓의 모든 계곡의 물을 모아서 도시 한복판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수구문을 지나 동류하여 도성을 가로질러 三水口로 나와 中良川으로 유입한다. 즉 淸溪川은 上往十里에서 安岩川, 龍頭洞과 馬場洞에서 貞陵川과 합류하며 동남향하다가 살곶이다리에서 中良川과 합수된다. 다시 中良川은 聖水洞과 金湖洞 사이에서 客水인 漢江과 합류하게 된다.⁵²⁾

49) 이경재, 《다큐멘터리 서울 定都六百年》 卷3, 서울신문사, pp.255-256

50) 최기수, <서울의승경>,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읽어버린서울 다시찾는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 p.154

51) 김기호, <남산-역사의 비전>,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242-243

52) 서정규, <한양천도에 풍수지리설이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p.32-33

이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 한강에 합수하기 때문에, 시계방향인 좌선하는 형국을 이룬다. 이에 대하여 내명당을 이루는 산줄기는 청룡인 왼쪽 가지보다 백호인 오른쪽가지가 더 길기 때문에 우선하는 형국을 이룬다. 따라서 우선하는 산줄기와 좌선하는 물줄기는 서로 逆하고 있어서 한양명당은 풍수에서 길하게 여기는 이른바 산태극 수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水局이 서쪽에서 入水 하여 동쪽으로 去水하면 吉地라고 하였는데 도성 한복판을 곧게 길게 흐르고 있는 시내골짜기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駝酪山)등의 크고 작은 골짜기를 타고 生水, 天水, 下水가 모두 합쳐 흘러 내리고 있다.

기록을 보면 개천 양쪽으로 비탈진 골짜기에 인력을 동원하여 처음에는 목책으로 흙막이를 하였다가 서서히 석축으로 재시공 하였다고 하며 인공으로 물길을 開渠하였다 하여 이름을 開川이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일제때 장안노인들께서는 꼭 개천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러군데 기록을 보아도 개천이라고 돼 있는데 근대 와서 흔히 淸溪川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록상 청계천이라고 처음 나타난 책은 1934년 착수하여 1941년에 발행한 京城府史 상권 144면 10행에 ‘濁溪의 청계천’이라고 병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가 멋대로 개명하여 사용한 듯하다. 해방후 친일파 세력들이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록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멋도 모르고 모두들 사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개천은 한강과 정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동대문 옆 오간수다리(五間水橋)를 벗어나 도성 멀리 떨어진 살곶이다리(箭串橋) 윗녘에서 中浪川과 합수되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개천 북편은 광교로부터 오간수다리까지 석축이 쌓여 있었고 남쪽에는 지금의 청계천 5가에 걸쳐 있던 마전다리(馬廐橋)까지만 석축으로 시공돼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흙 비탈이었으나 아카시아 나무가 촘촘히 서 있어 홍수때도 별 피해가 없었다.⁵³⁾

다른 한편으로 서울 도성안은 분지였으므로 북악산, 인왕산, 낙산(낙타산), 남산(목멱산) 등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성 안의 가운데로 몰려 동대문 쪽으로 흘러 나갔다. 따라서 여름이면 수해를 자주 입게되어 개천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종래의 하천의 하상을 파내고 하폭을 넓히는 한편 제방을 쌓고 다리(木橋와 石橋)를 놓게 되었다.

53) 김동복 편저, 《같은책》, 이화출판사, 2001, pp.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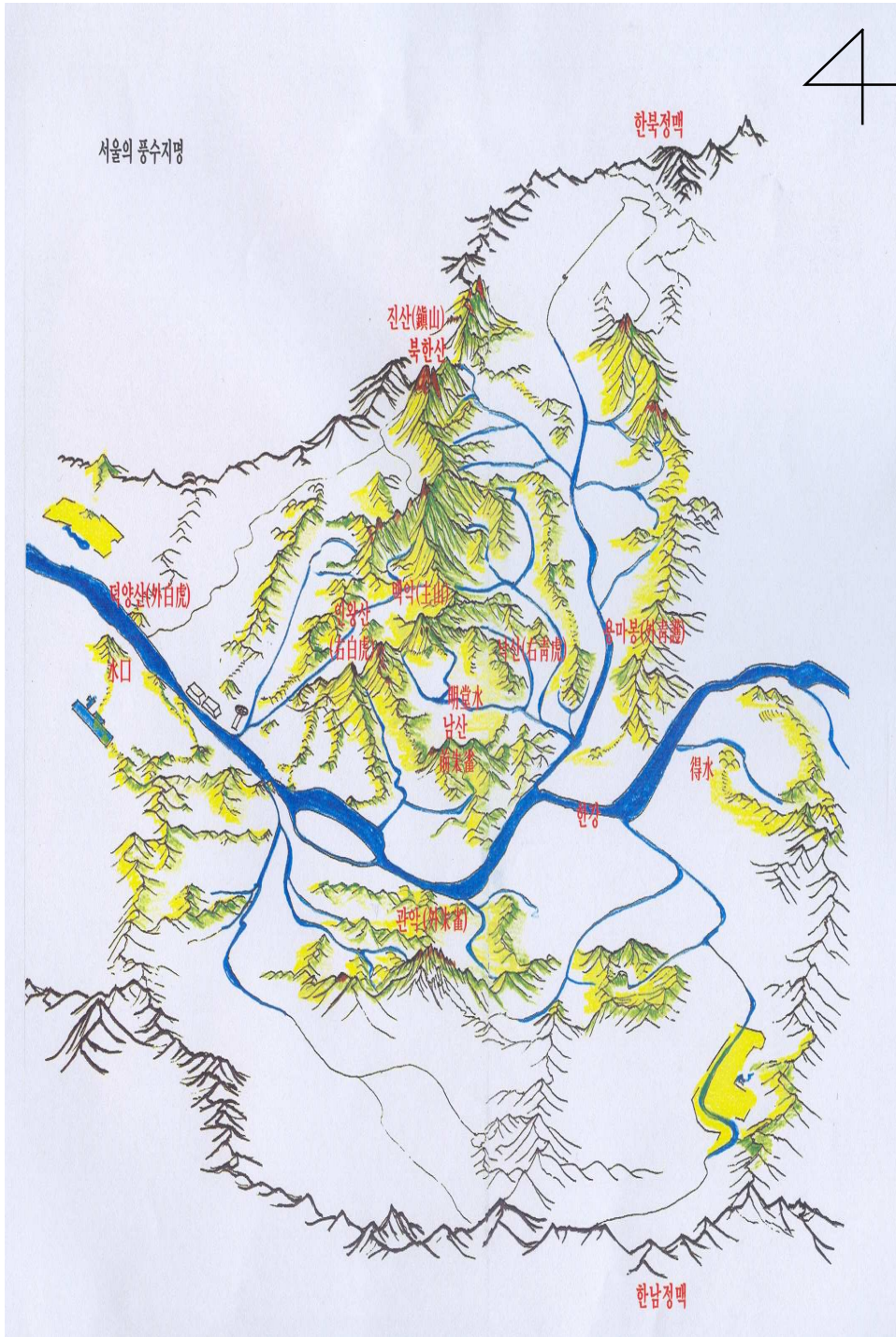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풍수 지명)

이런 사업은 태종초부터 시작되어 역대 왕들이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二間水橋, 五間水橋도 등도 생겼다. 다시말하면 개천공사는 계속되었고, 수량을 재기 위해 水標도 세웠고 하상의 모래와 흙을 파내 쌓아둔 동네이름을 長沙洞이라 하기도 하였다.

성안의 다리는 금천교, 광통교, 혜정교, 무교, 모전교, 장통교, 수표교, 신교, 영풍교, 대평교, 북창교, 중학교, 십자각교, 파자교, 동현교 등 20여개의 석교가 있었고, 木橋와 土橋는 훨씬 더 많았다.⁵⁴⁾

제 3 절 서울의 風水學的 分析

1. 서울의 自然地勢

서울의 형승을 이룬 산하중 지표성을 갖는 鎮山과 主山 및 안산을 개괄해 보면 북쪽으로 三角山, 북악산(白岳山)의 2산이 있다. 삼각산은 높이 636미터, 華山 또는 北漢山이라고도 하고 강원도 분수령에서 다가와 연봉첩약이 구불 구불 에워싸고 구부러져 양주 서남의 道峰을 일으켜 그여맥이 돌기한 산이다. 白雲, 國望, 仁壽의 3봉과 더불어 구름속에 솟아나 흙사 세줄기의 芙蓉처럼 3개의 각을 이루어 三角山이라 이름지었다. 國望峰은 萬景臺를 말하는데, 萬景이란 그곳에 서면 산하가 萬景처럼 들어온다는 데서 유래하고, 國望이란 이태조가 무학을 시켜 국도의 터를 선정케 했을 때 무학이 이 臺위에 서서 살폈다는, 즉 국도를 망상한 데서 기인한다. 인수봉은 백운의 동쪽에 있으며 인자낙수(仁者樂水) 즉 인자수(仁者壽)란 뜻이다. 백악은 일명 북악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143m이다. 삼각산의 남쪽에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面岳山으로서 알려졌고, 삼각산 만경대의 줄기에 돌출해 있어 흙사 모란꽃이 필 듯한 봉우리와 같다고 한다. 서울의 주산이며, 그 산 기슭에 궁궐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 솟아 있는 265m의 산인 남산은 經南山) 또는 목멱(木覓)이란 별칭이 있다.⁵⁵⁾

54) 허영환, <서울의 옛지도>,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79

55) 최기수, <서울의 승경>,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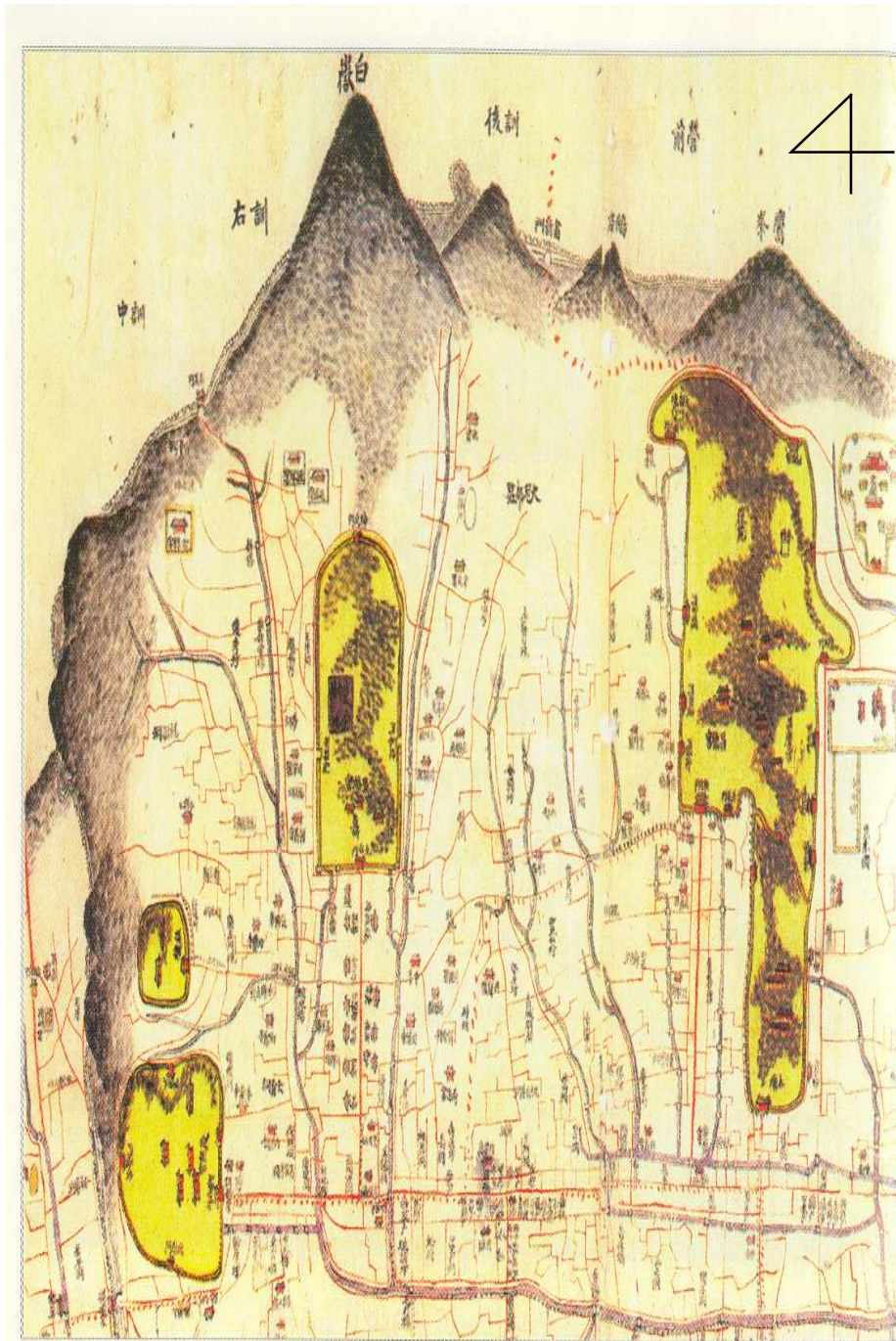


그림 10. (도성전도)

백악과 응봉과 인왕산 자락이 각 궁궐안까지 흘러내렸다.
 (도성전도)를 바탕으로 궁궐부분을 부각시켰다.

오늘의 서울은 동쪽의 龍馬山, 서쪽의 덕양산, 남쪽의 관악산, 북쪽의 북한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지역을 그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서울은 급속도로 그 영역이 팽창하였다. 조선 초기 서울의 관할 구역은 이보다 훨씬 협소하였다. 동쪽의 駱山(타락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남산(목멱산), 북쪽의 백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그 터전으로서, 성 밖의 일부 지역도 관할했지만, 원칙적으로 성 안의 구역만을 서울로 여겨, 장안, 문안, 한양이라 하였다. 수도로 정해지면서 서울에는 궁궐, 도로, 성곽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산 능선에 都城을 이어 쌓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 안에 터를 잡고 살게 하였다.

서울의 지리적 형세는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예로부터 명당으로 주목되었다. 인왕산, 북악산(백악산), 낙산(낙타산)으로 이어진 높고 낮은 산악과 구릉이 천연의 담장을 이루고 있고, 남쪽에는 큰 강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안에 황토마루, 솔고개, 배고개, 붉은재, 박석고개, 마두산 등 작은 둔덕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평탄한 盆地를 이루고 있었다.

분지사이로 인왕산, 북악산, 매봉 등에서 계곡으로 흘러 보낸 물이 크고 작은 시냇물을 이루어 실개천이 형성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조선 왕조의 중심 궁궐인 경복궁이 자리한 곳은 북쪽으로 북악산(백악산)을 등지고 남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북악산(백악산)을 主山으로 하여 北坐南向하고, 背山臨水하여 北高南低하니, 남산을 비롯한 전방의 여러 산봉우리가 마치 배례하여 엮드린 모습과 같다. 풍수 지리설에서는 이러한 곳이 삶의 터로서 매우 양호하다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러한 지세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도읍지로서 적합한 입지였다.⁵⁶⁾

2. 漢陽都邑地의 風水의 條件

서울은 東端 127° 12' E, 37° 33' N, 西端 126° 47' E, 37° 34' N, 南端 127° E 37° 26' N, 北端 127° E, 37° 42' N의 지역이다.⁵⁷⁾

서울지역은 대체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에 있고 漢江. 임진강을 이용하여 내륙지방까지 왕래 할 수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요지이다. 또 백두산에서 來龍한 산맥이 태백 산맥의 천령부근에서 분리되어 광주 산맥을 지나 명지

56) 최완기, 《한양》, 교학사, 1997, pp.28~29

57) 《서울 六百年史》 권1, 서울특별사시 편찬위원회, 1977, p.42

산, 국망봉 등의 높은 산을 일으키고 있고, 서울부근을 이르러서는 북한산(837m), 도봉산(740m) 인왕산(338m), 관악산(632m), 남한산(495m) 등의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한양은 북한산을 정점으로 주위에 산악, 丘陵으로 둘러싸인 盆地狀 地帶이며, 북한산을 진산으로 하여 주산인 북악을 일으켜 좌청룡으로 낙산에 이르고 우백호로는 인왕산을 지나 남대문에 이르며 朱雀으로는 남산등의 여러봉을 연결한 산지구릉이 이어져 자연적인 축성도 할 수 있었다.

북악산 좌우에서 흐르는 명당수는 시내를 동류하는 청계천이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를 지나 왕십리, 답십리를 거쳐 중랑천과 합류하고 뚝섬에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광장동 근처에서 西南流하다가 잠실에서 西北流 하는데, 이는 마치 弓流하는 모양으로 한양을 環抱하는 得水局이다. 다시 한강은 느리게 흐르면서 서북으로 直流하여 김포 반도와 고양시 사이를 지나 강화도 부근에서 임진강, 예성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진입한다.

한양은 明堂水인 청계천과 客水인 한강이 동향과 서향하여 서로 逆流를 이룬 데다가 直流. 直瀉하지 않고, 重疊. 回流함으로써 한강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曲流하는 하는 안쪽인 도성안은 대체로 안전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계천과 한강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강의 큰 범람인 경우에도 도성내에는 급속도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孫子兵法》의 (左右背는 높고, 前은 낮으며, 後는 높아야한다는) 군사상 전략요충지로서의 要件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양의 이러한 自然形狀은 풍수의 山水環抱, 山水逆勢, 水口關鎖의 풍수지리이론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양은 人文地理學上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水陸 交通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자가 풍부하고 集産物의 중심지이며 군사적인 요충지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양은 일국의 수도로서 타당성이 있으니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⁵⁸⁾

도읍지 正宮을 풍수지리 측면에서 언급한다면 정궁의 좌향과 혈에 관한 부분이다. 새 도읍지 중심의 상징인 궁궐 터와 종묘 터는 임좌병향하게 정해졌다. 정궁의 좌향이 임좌병향하게 된 것은 고려 숙종때 김위제가 주장한 삼각산 명당설과 연관된다.

김위제가 남경천도론의 근거로 든 《삼각산명당기》의 내용에는 “눈을 들고 머리를 돌려 삼각산의 산세를 보라. 북방을 등지고 남방을 향했으니 신선의

58) 서정규, <같은논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pp.7-8

보금자리구나 음양의 화맥이 세겹, 네겹으로 펼쳐지고, 옷통을 벗은 산들이 등과 등을 마주대고 명당을 지키는구나 안산의 조산이 다섯겹, 여섯겹으로 엮드려 절하고 고산. 속산. 부산. 모산이 우뚝하게 감싸고 있구나. 세 개의 태산이 안팎의 문을 지키면서 항상 주인을 모시는데 여념이 없구나. 청산(낙산)과 백산(인왕산)이 같은 높이로 솟았으니, 옳고 그름을 가릴수 없구나⁵⁹⁾

이것은 서울산세가 지닌 명당의 조건을 의인화해서 노래로 읊은 귀절이다. 오늘날 이야기되는 한양 풍수는 정도이후 도성건설과 함께 풍수적 결합을 보완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궁의 向에 관한 野史를 통하여 한양풍수가 지닌 결합과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도 있다. 野史에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백악을 좌청룡, 남산을 우백호로 하여 정궁을 동향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정도전은 제왕은 남향해야 하므로 정궁을 동향으로 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車天輅[1566(명종11년)-1615(광해군7)]의 《五山說林》에 전하고 있다.⁶⁰⁾

한양은 앞뒤가 산하로 둘러있는 까닭에 형세가 풍수국면에 적합하였다.

태조가 계룡산에 도읍을 중지하고 한양으로 옮긴 이유중의 하나로 조운의 길이 먼데도 있었듯이, 한양은 주차가 소통될 수 있는 잇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왕조의 도읍지가 되었다. 이는 곧 교통 운수조건을 활용하여 도읍지의 번영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양을 정도하면서 태조가 “조운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잇수도 고르니,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고 한 부분이나 조준, 김사형 등이 한양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하고,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한양에 영구히 도읍을 정할 것을 상신하는 부분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坐向은 穴과 함께 풍수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龍脈이다. 祖山으로부터 내려온 용맥이 주산밑 혈장에 이르는 산맥은 중요하다. 그런데 조선초기 定都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는 조산과 용맥에 대한 언급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한양풍수 인식에 대한 정도를 알게 한다. 조선 초기에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한양 풍수가 인식되었다.⁶¹⁾

한양 자연 지세의 풍수지리적인 내용은 택리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정리하

59) 한영우, 〈서울 六百年의 문화사적 의의〉,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33

60) 장영훈, 《서울 풍수》, 답디, 2004, p.158

61) 이상해, 〈한양도성의 풍수지리적 특성〉,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127-130

여 볼 수 있다. 먼저 한양 풍수의 자연 환경적인 장점을 들면

첫째, 주변 외곽 산세가 매우 맑고 수려하며 특별하게 이상한 기운이 있는 점이고,

둘째는 北岳(백악)과 남산 그리고 인왕산과駱山(낙타산)이 훌륭한 형국을 이루고 있는 점이고,

셋째는 형국안이 평평한 분지상을 이루어 넓고 평평한 점이고,

넷째 토색이 깨끗하고 굳고 희다는 점이다.

漢陽風水의 흠이란 자연환경 조건이 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흠은 定都초기에 구체적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지만 漢陽定都 과정 전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음양지리 관계서적의 발간 연구와 함께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定都 初期에 거론되지 않았던 풍수지리적인 내용이 신하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都城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裨補, 厭勝하게 된다. 이는 곧 한양의 도성이 建都 과정을 통하여 풍수지리적으로 합당하게 보완되는 것을 뜻하며, 한양도성이 주변산세 형국과 어울려 풍수지리적 특성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건이다.⁶²⁾

3. 漢陽 地勢의 風水的檢討

서울의 水路는 북악산(백악산)과 인왕산 사이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흘러 도성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이 개천(청계천)이 되고, 백악산, 인왕산, 남산 여러 계곡의 물을 모아서 남쪽으로 3개의 물줄기는 중랑천에서 한강으로 합류한다. 서울에는 개천이 궁궐의 전방을 북서에서 동남으로 돌아 명당수가 되고, 한강은 북동에서 서남으로 남산을 돌아서 도성을 포옹하고 있다. 즉 개천은 금과 같고 한강은 帶와 같아 그야말로 山河禁帶(環抱)의 형승지라고 하여왔다.⁶³⁾

한양 定都 당시의 검토내용은 도읍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입지조건들의 검토와 함께 풍수지리적인 조건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정도 당시의 한양의 풍수지리적인 조건에 대한 검토는 한양 주변 자연형국과 연관된 터와 궁묘의 좌향에 관한 것으로서, 그후 한양도성의 풍수지리적인 내용은 조선 왕조 초기의 한양도성 건설과정에 대두되어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과 함께 풍수지리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예로서 경북

62) 이상해, <같은논문>,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132

63) 최기수, (서울의 勝景),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154

궁 비명당설과 주산내맥에 대한 논의는 왕조 정궁의 형국을 풍수지리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북궁 명당이 풍수지리적인 조건을 제대로 갖추게 하기 위하여 경북궁 명당수인 금천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북궁 내맥과 연결된 곳에 길을 내거나 문을 내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도성내의 간선가로망 조직이라던가, 假山을 만드는 것이라던가, 도성 문에 얽힌 내용등도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개천 역시 定都 당시는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고려되어 논의되지 않았지만, 도성건설과 함께 개천공사가 이루어지고 水害방지 기능을 하게 되면서 도성의 명당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난다. 비록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개천을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한양도성의 명당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다.

풍수에서 장풍법은 명당 주위의 지형, 지세에 의한 국면을 판단하는 것으로, 명당을 둘러싼 산들이 명당 안으로 바람을 잘 가두어두고 간수함으로써 생기가 흠어지는 것을 잘 막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장풍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명당 주위의 형세와 사신사의 형상이 중요하다.

한양의 형국을 논하면서 乾方(북서)이 낮다고 하는 것이라던가, 辰方(남동)이 虛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한양형국을 장풍의 관점에서 관찰한 것과 연관된다.

장풍을 제대로 하고 형국을 補하기 위하여 경북궁 주변에 植樹를 하고 도성의 진방으로 가산을 만드는 등 役事를 한다. 또한 풍수적 지리환경 인식에서는 명당에 물이 있어야 명당으로 흐르는 생기가 멈춰 모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득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유로 경북궁 안에 명당수인 금천을 만들고, 한양의 명당수인 개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명당 안의 물은 吉한 방위로부터 흘러들어와(來水 즉 得은 生旺方位) 凶한 방위로 나가야(去水 즉 破는 死絶方位) 길한 것으로 풍수지리서들은 이야기한다. 한양의 명당수 개천은 虛한 방위인 동남으로 멀리 흘러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강에 합수하는데,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한양은 득수국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수가 순하여야 하고 잘 관리하여야 함은 곧 명당안의 청결,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풍수에서 중시하는 형국론은 지세와 국면을 전반적으로 개관한다. 한양이 도읍지로 결정되는데는 한양의 형국이 절대적인 요건이 되었다. 형국론은 풍수지리 사상 그 자체로서 보다는 자연지세를 풍수지리적인 자연공간구조로 파악하게 한다. 한양의 풍수국면을 이루는 내명당과 외명당은 한양을 전체적

으로는 도성을 구성하는 부분 부분을 유기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전체를 이루는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의미체계로 만들게 한다. 형국론은 그 속에서 조영되는 대상들과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라는 측면과 함께 인간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풍수형국이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상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한다.

『주역』 계사전에는 「지지의」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은 생활조건이 적합한 곳(地)을 택하여야 함을 뜻한다. “생활조건이 적합한 곳” 속에는 도읍 궁실도 포함되는 물론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마을을 가린다는 말은 공자로부터 나왔다. 마을을 가리지 않으면 크게는 교화를 행할 수 없고, 작게는 자신도 편치 못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마을을 가리는 것이다.”고 하고 있다.

한양은 가리고 택하여서 조선왕조의 도읍지가 된 곳이다. 한양이란 말은 한수의 북쪽이란 뜻을 지니는데, 강의 북쪽은 햇볕이 잘 드는 곳, 산의 남쪽을 뜻하는 양의 어원이다. 한수의 북쪽에 위치한 한양은 북악의 남쪽 그리고 목멱의 북쪽땅이다. 한양을 둘러싼 자연형세를 살펴보면, 北의 북악산(백악산), 東의 낙산(낙타산), 西의 인왕산, 南의 南山(목멱산)으로 둘러싸인 내명당 풍수국면이 도성을 형성하고, 그 바깥으로 위치한 北의 북한산(삼각산), 東의 용마산, 西의 덕양산, 南의 관악산이 도성의 외명당 풍수 국면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한양은 겹으로 둘러싸인 자연지리적인 풍수국면을 갖춘 곳이다. 이렇게 풍수국면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산 사이로 여러 물줄기들이 흘러 개천을 이루고, 이 개천은 한강에 合水하여 서해로 흘러든다. 이러한 풍수국면에 주산인 北岳산 앞으로 내명당의 穴에 경복궁이 앉았다. 이렇게 하여 북악산은 한양도성의 혈인 경복궁의 주산이 되고, 삼각산은 한양이라는 집단양기의 진산이 되었다.

한양의 형국이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인지 여부는 한양을 중심으로 위치한 실제 산수와 풍수의 형국을 대비하여 보면 곧 판단할 수 있다. 한양풍수형국은 혈로 흘러들어 오는 조산과 주산, 혈과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청룡과 백호, 主山과 祖山을 앞에서 받아주고 있는 案山과 朝山,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내수와 외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양 명당의 穴은 景福宮으로서 경복궁 뒤 북악산은 주산에, 삼각산(북한산)은 祖山에 해당한다. 北岳山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낙산과 인왕산은 각각 청룡과 백호에 해당하며, 남산인 목멱산은 주산에 대한 案山, 그리고 그 뒤의 관악산은 朝山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풍수국면은 한양의 내명당과 외명당을 형성하며 그 사이로 내수인

개천과 외수인 한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한양의 풍수형국은 祖山-주산-혈-내명당-명당수(내수)-안산-한수(외수)-외명당-朝山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축을 형성하여 도읍지 구성이 전체적인 위계를 갖게 한다.

한양의 풍수형국을 이루는 사신사인 산줄기들을 보면 오른쪽 가지인 인왕산의 맥은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을 거쳐 다시 안산인 남산을 일으키며 광희문에 이르러 멈추었다. 즉 한양 내명당의 형국은 백호인 오른쪽 가지가 길고, 청룡인 왼쪽 가지가 짧은 형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는 右旋局에 해당한다. 동쪽으로 감는 모양을 하고 있는 右旋局의 형국에 반하여 내명당수인 개천물은 동쪽으로 흘러 중랑천에서 합수하여 서쪽으로 흘러 서해바다로 들어가는 한강에 의하여 左旋局이 된다.

즉 한양의 산줄기와 물줄기는 右旋局과 左旋局이 되어 서로 逆하는 형상을 이룬다. 이와 같이 산수가 역하는 지형은 環抱하는 형국을 이루고 水口는 關鎖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러한 터를 길지로 본다. 한양은 이와 같이 풍수지리적으로 吉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형국을 갖추고 있다.⁶⁴⁾

한양의 궁실과 종묘, 사직의 배치는 물론 유교이념을 바탕으로한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례』 考工記의 「左廟右社 前朝後市」라는 도성계획 기본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배치는 한양의 풍수지리적인 형국과 어울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考工記 내용에 앞에는 관청이 있고 뒤에는 저자를 두게 한다는 것은 궁성 뒤쪽인 북쪽에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도성에 풍수지리설을 적용한다고 할 때 상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양에는 궁성 북쪽에 길을 막으면 복이 되고 통하면 화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풍수지리 사상에 연유한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양도성 건설은 유교통치 이념의 규범을 바탕으로 도시 기본 시설이 배치되는 한편, 풍수지리적인 주변 형세를 잘 파악하여 거기에 순응하며 도시가 만들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성 경영에는 풍수지리 이론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64) 이상해, <같은논문>,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14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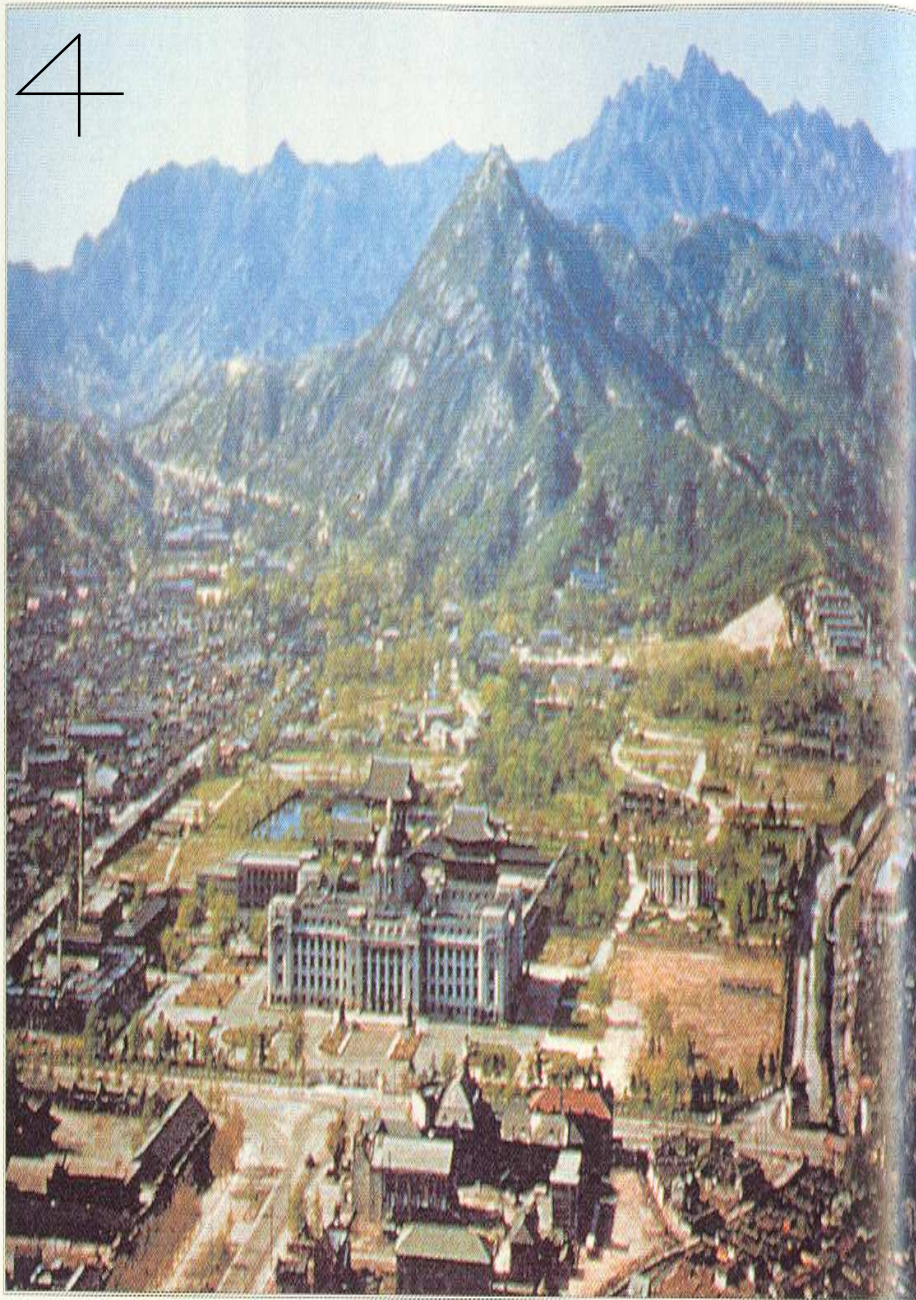


그림 11. (1953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북궁일대 전경)

옛조선 총독부 건물만 우뚝하고 정작 궁궐의 전각들은 드문드문 겨우 보인다.

한양 명당인 경복궁과 주산인 北岳山, 그리고 그 앞으로난 간선도로는 대표적인 도성공간의 특성을 이룬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남쪽으로 나 있는 대로 양변에 있는 육조, 중추부, 사헌부, 한성부 등 관아 건물이 들어선 육조 거리는 동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동서로 난 간선도로와 만나며 끝이 나고, 그 남쪽은 황토현 고개가 된다. 경복궁과 한양주산인 백악이 이루는 경관은 이 황토현 고갯마루에서 전망할 때 장관을 이룬다. 폭 50여척의 대로양변으로 관아 건물과 그 부속건물이 이루는 담장, 행랑, 처마, 지붕이 일렬로 늘어선 뒤로 광화문이 버티고 있고 광화문 문루 어깨 너머로 정궁의 전각들과 지붕선이 겹쳐지고, 다시 그 뒤로 북악산이 진호하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모습은 왕조의 상징으로서, 그 위엄과 장중함은 바로 풍수형국 속에 유교이념에 따른 도성계획과 건물배치 계획이 어우러져 창출된 결과다.

태종이 “옛부터 성곽, 궁궐의 제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고 묻는 기사가 태종실록에 나오는데, 이에 박은이 “성곽, 궁궐은 천문, 지리에 따라 방위를 정하는데, 천문, 지리는 오행의 이치를 논하니, 천문, 지리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고 한다. 또한 문종 2년(1452) 3월 풍수학 문맹겸은 “천문과 지리는 본디 일체이니, 하늘에 있어서는 형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늘에는 은하가 있고 땅에는 황하가 있으며, 하늘에는 구야가 있고 땅에는 구주가 있으며, 하늘에는 삼원이 있으며, 모두가 천문. 지리의 자연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의 성인이 천문을 쳐다보고, 지리를 굽어 살펴서 수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는 위로는 천성에 응하여 삼원의 형상이 환하게 갖추어졌으며, 중간에는 백악이 있어 만수와 천산이 모두 일신에게 조회하고, 천형, 만상이 다시 이정이 없으니, 참으로 천상북극의 자미원이라 이를만 합니다. 동쪽에는 낙천정이 있어 백원이 와서 모이게 되니, 이것도 또한 천상의 천시원입니다. 서쪽에는 영서역이 있어 황성강이 먼데서 오니, 이것도 또한 천상의 태미원입니다.”라고 상서하는 기사가 나온다.⁶⁵⁾

도성건설 등 양기를 조성하는 풍수지리사상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종 27년(1445) 1월 승원로 안효례는 “옛날부터 제왕의 궁실을 짓는 데는 산천의 서로 만나는 관계와 명당의 똑바른 혈자리를 가리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재(하늘, 땅, 사람)의 도리에 반드시 옛 현인의 말과 틀리게 됩니다.”고 상서한다.⁶⁶⁾

65) 《文宗實錄》 文宗2年 3月3日 丙申條

66) 《世宗實錄》 世宗27年 1月1日 乙亥條

삼재의 도리에 맞게 한다는 것은 자연과 조화, 우주운행과 조화, 인사와 조화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풍수지리사상은 天, 地, 人, 상관관계를 인을 중심으로 한 氣 감응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 도시와 상관되는 도성의 조영과 공간구성을 그 시대의 자연관, 세계관 등과 연관시켜 보면 실지로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풍수지리사상에서 강조되는 천, 지, 인, 상관관계는 곧 天, 地, 人, 합일을 이루기 위한 天, 地, 人의 조화와 질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한양도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풍수지리적 경관 속에서는 거주처 자체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따라서 도시공간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를 갖는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명당형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장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은 곧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파악할 때 가능하다. 그러할 때 비로소 도시공간구조는 확립된다. 풍수지리적으로 파악된 한양의 도시구조 역시 그렇게 해서 조영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한양도성을 ‘서울되기’, ‘서울다움’의 측면에서 이해할 내용들이다.⁶⁷⁾

제 4 절 漢陽의 立志의 特性

이성계가 새 왕조를 개창하면서 國號의 개정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首都를 옮기고자 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존 세력의 근거지인 개경에 대한 정치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풍수지리설의 영향, 민심의 쇄신 등을 그 이유로써 꼽고 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성계가 개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왜 하필이면 한양을 새 도읍지로 택하였을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과연 합당한 조치였을까? 수도의 선정 과정에는 자연적, 인문적 입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의 번영은 그 국가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조선 왕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직후 수도의 선정 과정에서 보인 논의에서 볼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이를 추진한 세력들은 한양의 입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설명이 있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

67) 이상해, 〈같은논문〉,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145-151

음과 같다.

첫째, 政治的 측면에서 國土의 中心性을 고려하여 통치 행정의 效率성에 유의하고자 했고,

둘째, 社會的 측면에서 山水의 明堂論이 작용,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으며,

셋째, 文化的 측면에서 일찍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歷史性을 고려, 백성들에게 한양의 정통성, 나아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심어주고자 했고,

넷째, 經濟的 측면에서 수도가 수행하는 기능 및 발전과의 戰略的 背景에 주목했는데, 한양은 사회 발전의 토대인 교통, 운송의 요충지였다.

그러면 이들의 근거가 이유 있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당시 위정자들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國土의 中心地

일반적으로 도회지는 그 자연적 조건 및 인문적 특색에 의해 성립되는데, 그 도회지가 입지할 이치의 중심성도 도회지 성립에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수도는 다른 도회지와 달리 한 나라의 통치 中心地이다. 따라서 수도의 입지에는 보다 中心性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앙 집권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통치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미쳐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중앙에 수도가 위치해야 효율적이다. 한양이 수도로 선정됨에는 이 같은 이유가 강조되었다. 趙浚과 金士衡이 한양을 최종적으로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방으로 거리가 균등함을 일차적으로 내세웠고, 계룡산 천도를 반대한 河崙이 불가한 이유로서 그 위치의 치우침을 지적하였으며, 鄭道傳 역시 수도의 입지로서 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양은 동쪽과 북쪽에 큰 산맥이 뻗어있는 한반도에서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옛 사람들은 부산 천리, 진주 천리, 광주 천리, 의주 천리, 길주 천리라 하여 한양에서 변경 지대까지를 거의 같은 거리로 헤아렸다. 실제의 거리로도 부산까지 약 450km, 목포까지 430km, 신의주까지 500km, 함흥까지 400km 정도였다. 이 같은 공간의 中心性에 유의하여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조선 왕조는 도로망, 운송망, 통신망을 한양 중심으로 편성하여 전국을 조직적으로 관장 통제하였던 것이니, 중앙 집권 체제의 구축은 공간의 중심성에 의해 보장되고 극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도가 그 국토의 중앙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가 국토의 중앙에 위치했을 때가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 효과가 컸다. 지리학에서는 이에 공간의 중심성을 중앙과 주변 거리의 최소화와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最小 總和 距離로 표현, 수도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영토나 국민을 관리하고 통치함에 있어서 편벽되게 위치하는 경우보다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월등하게 편리하다고 하였다. 李成桂도 이 점에 유의하여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하였으니, 수도의 일차적 기능은 행정의 효율성에 있었다.

2. 風水地理的 明堂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즉 松都는 지리 도참설에 의하면 5백 년간의 도읍지로서 그 말기에는 知德이 쇠하여 도읍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지리 도참설이 크게 영향을 끼쳤던 당시에 이성계로서는 이 같은 지리 도참설을 명분으로 하여 고려 왕조의 근거지인 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양은 산수의 배치가 明堂吉地에 매우 부합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 중기 이래로 민간 사회에서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 사방에서 찾아와 조공하고, 국가가 번영할것이라는 참언이 퍼져 있었다. 이에 도읍지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계룡산으로의 이전도 포기하고, 공간의 중심성으로 보아 거의 하자가 없는 무악도 마다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큰 이유가 계룡산이나 무악이 明堂吉地에 적합하지 않음에 대하여 한양은 비교적 양호한 산수의 배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漢陽으로 천도를 주장한 사람들은 한양의 형세가 전형적인 吉地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이성계는 길지론에 의거 중앙에 위치하고 漕運이 편한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면서 국민적 기대감을 성취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새 사회 건설을 나름대로 추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지리 도참설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에 크게 작용했다.

3. 歷史의 中心地

漢陽은 본래 백제의 도읍지였다. 백제는 678년의 역사 가운데 475년 간을 松坡를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에서 번성했다. 그 이전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는데, 백제 성립 이후에는 한반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적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백제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서해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 중국,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세련된 문화를 과시하였는데, 그 중심지가 한강 유역이었다. 그 후 이 곳은 고구려, 신라가 서로 차지하면서 삼국의 문화가 고루 스며들었고, 그리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鄕土文化가 발달하여 고려 시대에도 3경의 하나로 중요시된 지역이었다. 고려에서는 이 곳에 궁궐을 짓고 境域을 확정하며, 주변 고을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그 위상을 높이면서, 한때 천도가 단행된 바도 있었다.

한양이 이 같은 역사성을 지닌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곳에 수도를 정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한양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왜냐 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그 이미지가 백성들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고, 그 곳을 정신적 구심점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계로서는 지리 도참에 의해서도 吉地일 뿐 아니라 옛 도읍지라는 특성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한양을 주목하고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4. 戰略的 背景

도읍지는 정치, 사상적으로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통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는 정치적으로 정치 발전을 주도해야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 국가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 발전에 유리하자면 그 도읍지가 갖는 전략적 배경이 양호해야 한다.

지리학에 의하면 도시는 촌락보다도 널리 다른 지역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가지는 지역적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 발달에 있어서는 국지적인 지형 조건 보다는 그 관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관계성이 도시가 수행하는 기능 및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풍부한 생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며, 다른 지역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위치는 도시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전국 지역과의 전략적 배경이 문제가 되는 수도의 입지 선정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 도시의 관계성이 양호해야 바람직한 도읍지가 될 수 있다.

육로와 수로 교통이 두루 용이한 한양은 이 점에서 이상적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육상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있어서는 수로 교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더구나 국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이루는 세곡을 운송함에 漕運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와 뱃길이 닿는 한강 유역의 한양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도로서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위정자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 교통의 중요함을 한양 천도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李成桂는 1393년 계룡산 신도안에 행차하여 몸소 산수의 형세를 살피면서 成石璘등에게 조운이 잘 통하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무악으로의 천도를 논의하면서도 천도를 주장하는 河崙이나 천도를 반대하는 정도전, 성석린 등이 모두 조운을 제1의 여건으로 중요시하였다.

마침내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면서 이성계는 ‘漕運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찌 도회지라 하겠는가’ 하면서 조운이 편한 한양을 주목하였다. 요컨대 한양에 도읍을 정한 것은 국가 운영을 책임진 위정자들에게는 吉地論이나 歷史性과 같은 상징적 의미와 함께 조운과 같은 현실적 의미로서 보다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새 왕조를 창건한 조선의 위정자들이 볼 때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이념적 측면에서 정통성의 확보도 중요하였지만, 그보다도 파산 직전의 국가 재정을 이어 받은 현실 상황 속에서 우선 국가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 운영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 漕運路였던 것이다. 이에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도 漕運의 소통에 진력한바 있었다.⁶⁸⁾

68) 최완기, 《한양》, 1997, pp.11-16

제 5 절 서울의 名稱과 城郭 및 裨補策

1. 서울 名稱의 由來

서울이라는 공식 명칭은 1946년 8월15일에 발표한 서울시 헌장 제1장 제1조에서 시작 되었다.

1. “대한민국 서울은 한강이 흐르는 서울이다.”라고 했을 때 전자는 수도를 후자는 지역을 각각 가르킨다. 그것은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이라는 발음에서 서울이란 소리말이 유래 되었기 때문이다.

서라벌이란 발음중 “서라”는 “숫아”를 표현 한것이며, “숫다”,숫아 오르는 것은 神靈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다. “벌은”은 벌판에 해당되는 땅(地)을 지칭하고 있는 우리말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靈地를 뜻하며 이는 풍수용어인 地靈과 같은 의미이다. 靈地가 명당터를 가르킨다면 地靈은 명당에 흐르는 땅기운을 말하기에 이것들은 서로 원인과 결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⁶⁹⁾

또한 조선초에 城쌓기를 시작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눈이 비교적 땅이 평평한 종로 북판에서 녹기 시작하여 차츰 변두리로 녹더라고 한다.

그래서 눈이 녹지않은 그 경계에서 눈이 있는 쪽으로 돌을 쌓아 눈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눈이 녹지않은 그 경계에서 눈이 있는 쪽으로 돌을 쌓아 눈 울타리를 만들어 이를 한자로 쓰면 설울(雪圍)이 된다. 설울, 설울하던 말이 서울이란 말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향토 사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학자들은 서울이 서라벌, 서벌에서 연유되었다고 내세운다.⁷⁰⁾

한편 설울과 서울은 서울 도성에 얽힌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 조선왕조의 수도, 곧 도읍을 “서울”이라 하게 된 것은 눈금(雪線)을 따라 도성이 이룩되었기 때문에 눈의 울타리, 설울(雪城)이 변하여 “서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漢京識略>에 밝혀 있듯이 수도를 일컫는 “서울”이라는 순수 우리말의 근원은 멀리 신라시대 六村의 하나였던 서라벌(徐羅伐)이 나라의 도읍을 뜻하게 된 후로 오랜세월을 거치는 동안 서야벌(徐耶伐)로 되고 다시 와전되어 “서울”이 된 것이다.⁷¹⁾

69) 장영훈, 《같은책》, 담디, 2004, pp.40-41

70) 김수남, <서울600년이야기>,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14

71) 김영상, 《서울 六百年》卷1, 대학당, 1994, p.67

인간은 민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비로소 한 나라를 구성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고 그가 자리잡고 있는 곳을 온 국민이 首都(서울)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몇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오직 한곳에서 수도를 지켜온 나라는 아주 드문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중의 하나이다. 王(통치자)이 살던 곳을 가르켜 王都라고 하였으며, 조선조때 서울의 공식 명칭이 漢城府였는데 별칭은 首善, 京都, 京師, 京洛, 都城, 都邑, 都下, 長安, 八萬長安, 皇城, 京兆, 廣陵, 문안(內門), 그리고 현재 불리고 있는 서울 등이다. 이와같이 모두 열네가지 이름이 여러 곳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일제 때 4대문 안에서 생장한 사람들은 “장안” 이나 “문안”이란 말은 거침없이 쓰고 있으며 기타의 별칭은 별로 쓰지 않는다.

이와같이 우리 민족사에 중시되었던 서울지역의 명칭도 慰禮城, 漢山, 北漢山, 北漢城, 漢州, 揚州, 南京, 漢陽府, 漢城府, 京城府, 서울시, 서울특별시로 변천되어 왔다.⁷²⁾

2. 都城의 울타리 서울 城郭

1) 서울의 성곽 축성 과정

太祖 이성계는 조선을 창건한지 3년(1394)되던 해에 漢陽遷都를 결행하여, 태조 4년에는 궁궐과 宗廟를 짓고 都城築造都監을 열어 성벽 축성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태조5년(1396) 1월9일부터 2월28일까지 49일간 1단계 공사가 시공되고 또 8월 6일부터 9월 24일 까지 2단계 공사가 진행되어 石城과 土城을 쌓고 水口에는 雲梯(구름다리)를 쌓았다. 두차례에 걸쳐 농한기를 이용하여 도합 98일 사이에 19만 7,400명에 달하는 각지방 백성들을 동원하여 쌓은 것이다. 이때 동원된 인원은 현재의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등 여러 곳의 백성들이었다.

서울의 城郭은 처음에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연결한 약17km 길이였다. 성벽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12m쯤 된다. 옛기록대로 따지자면 길이는 9,975보(步 : 1步는 6尺, 1.6m)로서 里數는 40여리나 되며 그 높이는 40尺 2寸(寸)이다.

72) 서정규, <같은논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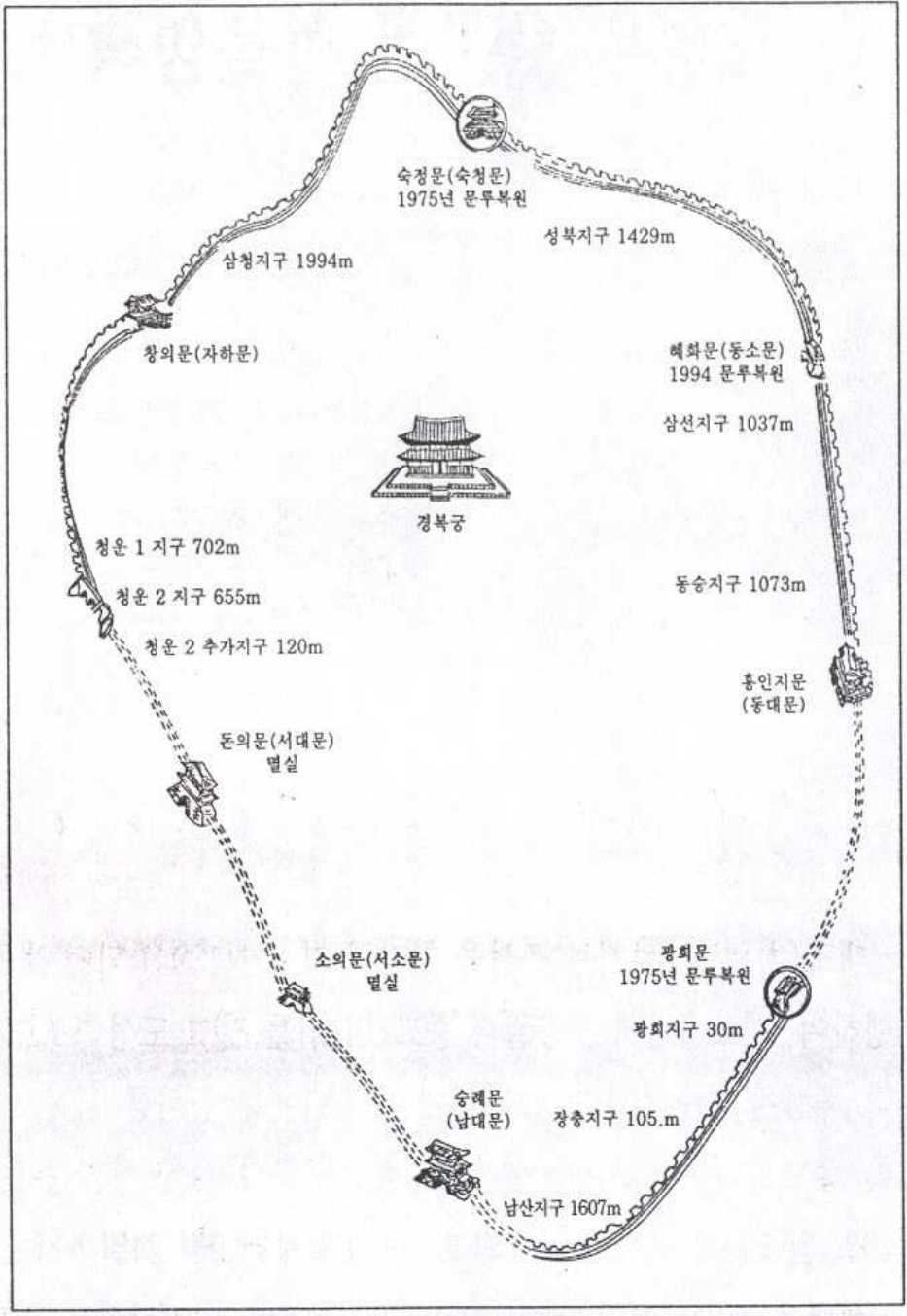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성곽)

서울 도성의 돌로 쌓은 성곽의 둘레는 동, 서, 남, 북에 사대문이 마련되었
고 그 사대문 중간 중간에는 四小門이 꾸며져 있었다.

2) 성곽의 禦暴保民의 상징

나라의 울타리로 여기고 “禦暴保民” 즉 포악함을 눌러 백성을 보호한다는
기틀로 삼던 都城이 백성들로서는 엄숙한 상징이었던 만큼 역대임금은 그 보
전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태조때에는 나라를 새로 세운 초창기라 매사
가 몹시 번거로운 중에 서둘러야 될 일이 많았으며, 도성 축성 역시 그 서두
른 공사였으므로 여기 저기 흠뻑으로 메운 곳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4
대 세종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태조때 토성으로 메웠던 동대문에서 장충단 공
원 뒤 南小門까지의 사이와 남산 蠶豆峰에서 인왕산 사이를 석축으로 말끔히
고쳐 쌓았다. 이때의 공사는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38일에 걸쳐서 32만
2,4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완성하였다. 이시기에 돌로 고쳐 쌓은 구간에서
지금도 세종때 축성법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장충단공원
지구에서 잠두봉까지의 사이와 현저동 지구에서 인왕산 꼭대기까지의 사이에서
는 태조때의 축성습씨를 찾아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3) 시대별 성곽 특징

태조시대에는 성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뒤섞어 크고
긴 돌을 아래쪽 바탕돌로 삼고 직선으로 쌓아 올렸다. 그러기에 돌과 돌사이
에는 꺾임돌이 많이 쓰이는 등 불규칙한 모양새를 띠고 있으므로 호방한 기풍
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세종시대의 축성법은 돌을 직사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다듬어서 아래 바탕
에는 큰돌을 깔고 위로 갈수록 점차 작은 돌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전혀
꺾임돌을 쓰지 않은채 성벽 중간턱을 다소간 밖으로 구부정하게 굽혔다. 오늘
날 우리는 인왕산 동북쪽과 북악산, 삼청공원뒤와 낙산구간에서 두 자(尺) 사
방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돌로 네 귀를 꼭꼭 맞추어 가며 규격도 정연하게 쌓
아올린 성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제19대 숙종때 개축된 부분들이다.
이규격의 축성법은 그 후 영조, 순조, 고종때 그대로 답습되었다. 600년의 역
사를 간직한 서울의 도성은 史蹟 제10호 지정되어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때때로 보수공사를 하여 손을 보았지만, 그 성벽이 주로 산등성 능선을

따라 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곳 그 기초 부분이 먼저 물러난 곳이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奇異 하기까지 한 일이다.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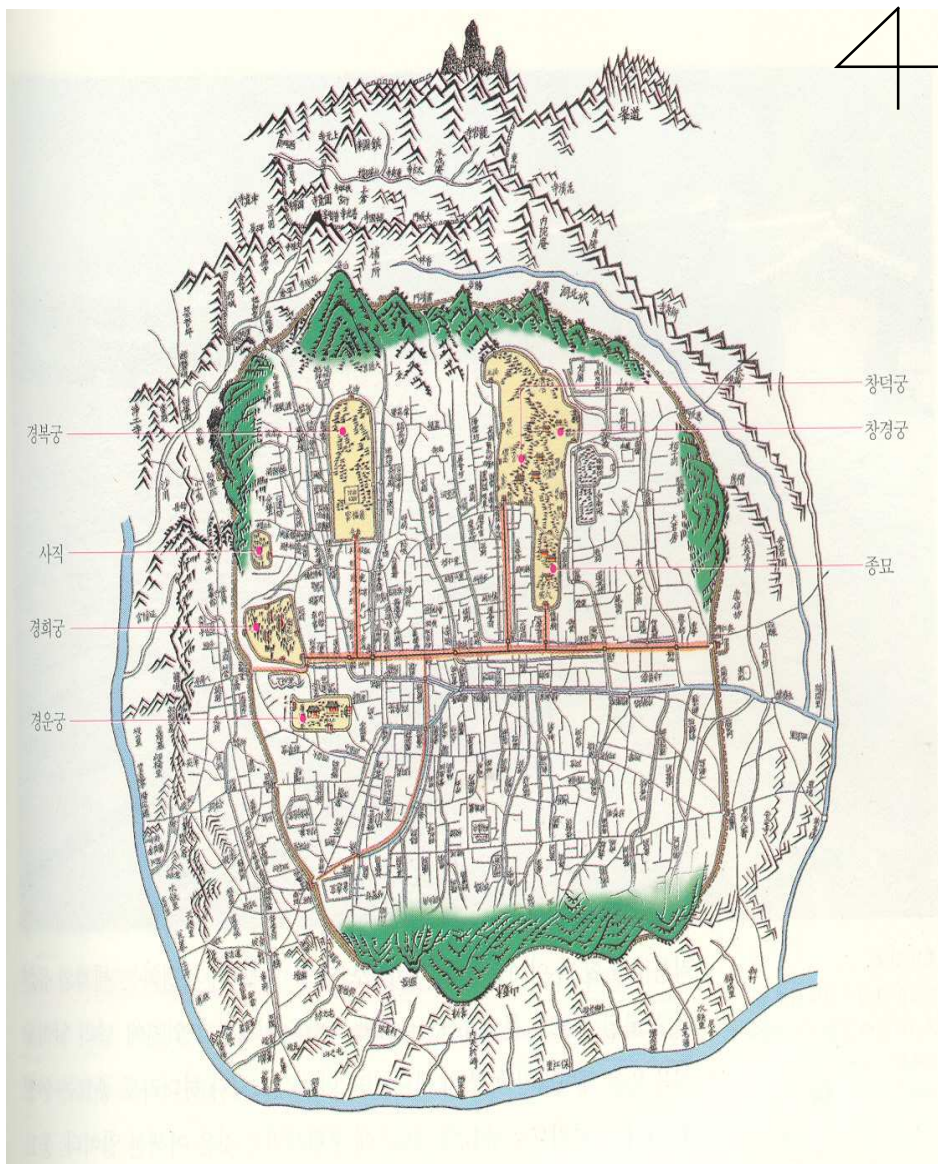


그림 13. (김정호 수선전도)

(수선전도를 바탕으로 내사산과 궁궐, 종묘, 사직 부분에 색칠을 하였다. 경운궁 <수선전도>에는 없는 것을 <한성부지도>를 참조하여 첨가한 것이다.

73) 김영상, 《같은책》 卷1, 대학당, 1994, pp.65-71

성벽은 北岳山, 駱山, 南山, 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고, 성에는 四大門 : 東 - 興仁之門(동대문), 西 - 敦義門(서대문), 南 - 崇禮門 (남대문), 北 - 肅靖門(숙정문), 四小門 : 東北 - 惠化門, 東南 - 光熙門, 西北 - 彰義門, 西南 - 西小門(昭德門)을 내었다. 동대문에는 甕城을 쌓았고, 숙정문은 暗門으로 門樓를 세우지 않았다(1975년 서울특별시 주관의 개축시 문루를 세웠으나 虹霓가 석빙고처럼 쌓여진 것이어서 원래는 문루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3. 漢陽(서울)의 裨補와 厭勝

裨補란 땅의 虛한 곳을 補하거나 殺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토하는 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風水上的 결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厭勝은 風水上的 凶한 氣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눌러 이기는 방법을 말한다.

裨補는 古來 原始民族에 의해 靈力을 가진 것을 지님으로써 약한 힘은 강하게 하고자 하는 借力信仰이나 呪符信仰에서 비롯된 것이다.⁷⁵⁾

裨補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山川, 寺刹, 塔에 이용되었고, 조선시대에도 도읍지의 산천, 궁궐, 및 陵墓 등에 이용 되었다.

漢陽에 定都한 뒤 王宮坐向을 놓고 無學과 鄭道傳이 논쟁을 벌였음을 전술하였다. 無學은 북악산(白岳山)을 主山으로 하여 子座午向(正南向) 하면 正面에 冠岳山이 있어 궁성을 위압하니, 內憂外患이 잦을 것이라 하여 仁王山을 主山으로 북악산(白岳山)과 南山을 左右龍虎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鄭道傳은 冠岳山이 정면으로 하고 있으나 한강이 사이에 있어 水克火의 이치에 따라 火山의 영향은 한강에 의해 소멸되므로 북악산(白岳山)을 主山으로 하되 冠岳山을 약간 피하여 壬座丙向(북북서)으로 宮基를 잡도록 주장하였다. 결국 鄭道傳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景福宮이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궁궐이 정해진 漢陽은 風水적으로 朝山인 冠岳山이 火星의 산이라, 王宮에 화재가 자주 일어날 염려가 있고, 東과 西南이 虛하다는 흠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裨補와 厭勝의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王宮의 화재 염려에 대해 冠岳山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졌

74)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편, 기문당, 2001, pp.23-24

75) 서정규, <같은논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36, 孫禎睦, <풍수지리설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73, pp.59-63 재인용

다 하여도 보이지 않는 殺은 무방하나 보이는 殺은 害가 된다는 風水原理가 주장되었다. 실제로 景福宮에 여러번 화재가 났다. 그리하여 冠岳山에 우물을 파고 구리로 만든 龍을 그 안에 집어 넣었다고 한다. 우물을 판 것은 자체 소방의 뜻이 있는 것이고, 龍은 비를 청하여 불을 스스로 끄도록 한 厭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漢陽都城 8대문 가운데 7대문의 門額은 橫書로 하였는데 유독 崇禮門만은 從書로 하였다. 이는 崇禮門의 ‘禮’ 字가 五行으로 配하면 火에 속하며 ‘崇’ 字가 象形文字上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불로서 불을 대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水神인 海태를 光化門 앞에 세움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려 하였다. 이것을 세운 것은 太祖 때부터라 하나 현재 光化門 앞에 서있는 것은 大院君 때 세워진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 동의 虛한 결점을 막기 위해 동대문만은 다른 도성의 문을 3字의 門額으로 한 것과는 달리 ‘興仁之門’이라 하여 4字로 하였다. 이것은 동쪽 左靑龍이 虛한 것을 보하기 위한 裨補의 예이다. 즉 동쪽에 造山을 하는 대신 曲城을 쌓고 ‘之’ 字를 門名에 덧붙인 것이다. 風水理論上으로는 ‘之’ 字와 ‘玄’ 字가 산맥이 左折右曲해 오는 모양을 형상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漢陽 西南의 山勢가 낮아서 虛한 결점은 南大門밖에 못을 파고 문 안에 支天寺를 두는 방향에서 地勢의 불균형을 보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읍지 漢陽의 또 다른 風水上的 흠은 景福宮이 明堂無水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太宗 11년 7월에 相地者가 明堂水의 부족으로 도량을 파도록 건의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世宗 15년 7월에는 景福宮의 明堂無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鑿池論이 대두되었다. 즉 景福宮이 明堂無水이니, 宮城의 동서 및 內司僕의 북쪽에 못을 파서 결함을 보완하자고 하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昭格洞의 두 곳에 못을 팠으나 물이 나지 않아서 失敗했고, 동년 8월에 景福宮의 東門인 建春文 앞에 못을 파려다 戶曹의 上書로 中止하게 된다. 이처럼 世宗 때 明堂無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失敗함으로써 鑿池에 대한 風水補完의 희망은 꺾이고 말았다.

또한 漢陽의 風水地理上的 결점으로 乾方(북서쪽)이 낮다는 점이 太祖 때 風水家인 尹莘達에 의해 지적된 바 있었다. 北岳山을 主山으로 壬座丙向으로 자리잡은 景福宮은 그 북서쪽인 北岳山과 仁王山 사이의 청운동, 효자동, 궁정동쪽이 낮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같은 결점에 이후 風水家들의 지적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裨補, 厭勝의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地理大全入門要決》이란 風水地理書에 의거하면 壬座丙向의 穴은 乾方이

虛하면 黃泉殺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景福宮의 正寢 즉, 穴場의 坐向이 위와 같이 壬座丙向으로 결정된 漢陽(경복궁)에 있어서 乾方의 함몰은 바로 黃泉殺이 된다는 주장이 근래에 나왔다. 術家에서는 黃泉殺이 들면 人亡財敗와 官訟 및 精神病惡者가 나오는 것으로 보기도 하여 凶한 것 중 最凶으로 본다.

漢陽 穴處에 黃泉殺이 들어 人亡財敗가 됨은 俗信이니 알 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겨울철의 寒冷한 북서계절풍이 虛缺된 乾方을 통하여 몰아닥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는 분명히 漢陽의 風水의. 現實的 立地上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⁷⁶⁾

이런 결점을 地師 尹莘達이 이미 太祖 때 지적했음은 正鵠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양의 風水地理上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裨補 및 厭勝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蠶室 : 서울의 동남에 위치한 蠶室의 원래 지명은 沙平里였다. 그런데 이 누에머리 같은 봉우리의 地氣를 旺盛하게 하기 위하여 南山 동쪽에 보이는 沙平리에 뽕나무를 심고, 蠶室이라 했다.

彰義門 : 창의문은 그 외부의 지세가 마치 지네와 같은 形을 이루었기 때 문에 이 지네같은 地勢의 氣를 적게 하기 위해 닭의 모양을 나무에다 조각하여 문에 달았다고 한다.

肅靖門 : 北門으로 북한산으로 통하는 문으로 오래 전부터 폐쇄하여 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風水상으로 이 문을 열면 城內의 마을에 淫亂한 風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한다.

光熙門 : 睿宗 元年에 陰陽家로부터 巽方(동남)을 열면 不吉하다 하여 달았다고 한다.

이상에서 都邑地 漢陽의 裨補와 厭勝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이는 都邑地의 風水上的 결함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미 정해진 都邑地를 쉽게 옮길 수가 없으므로 裨補, 厭勝을 통해 風水地理上의 결함을 보충함으로써 그 地氣를 吉地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동시에 인력이 자연의 조화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6) 최창조, 《같은책》, p.233

제 4 장 漢陽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的 建立 背景

제 1 절 宮闕

조선 개국 이후 왕조의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 三峰 鄭道傳은 궁궐에 대해 “임금이 政事를 다스리는 곳이요, 臣民이 다 나아가는 곳이므로 제도를 장엄하게 해서 위엄을 보이고 이름 또한 아름답게 지어보고 듣는 자를 감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선중기 부흥기를 이끌었던 正祖임금도 “무릇 궁궐은 임금이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요, 백성들이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이라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제도는 존엄한 아름다움을 보이고 그 이름은 은연한 가운데 사치하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보이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였다. 정도전은 개국 초 집권 세력의 領袖요, 정조는 18세기 후반의 최고 통치자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배 계층의 궁궐에 대한 일괄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궁궐은 그 자체의 성격 및 용도 등에 따라 法宮 또는 正宮, 離宮, 別宮, 行宮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법궁은 임금이 常時 거처하는 중심궁궐, 즉 궁궐 들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궁궐을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제1궁궐이 법궁이다. 조선왕조의 정통 법궁은 景福宮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불에 탄후 광해군 즉위초에 昌德宮이 중건되어 고종때 景福宮이 중건되기까지 273年 동안은 昌德宮이 法宮 역할을 하였다. 임금이 정상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궁궐을 수리하거나 화재를 당했거나 또는 의외의 변고가 발생하거나 임금이 옮기고 싶을때 옮겨가서 머무는 제 2궁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궁궐이 離宮이다. 물론 궁궐의 제도나 격식이 법궁에는 못 미치지만 이궁이라고 해서 임금의 사적 생활 및 공적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은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景福宮이 법궁 역할을 하던 때는 昌德宮이 離宮이었고, 임진왜란 이후 昌德宮이 法宮일 때는 慶熙宮이 離宮 역할을 하였다. 正祖는 “國初에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먼저 景福宮을 짓고 또 昌德宮을 지은 연유는 때에 따라 옮기어 사는데 대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종이 즉위하면서 아버지 上王태종이 거처할 壽康宮을 지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나 성종은 그 수강궁을 확장하는 공사중에 그 이름을 창경궁으로 지었고 그 공사는 1484년(성종15) 9월에 일단 마무리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5월에 보완공사가 끝나 소혜

왕후와 안순왕후가 移御하였다. 할머니(세조의妃 貞憲王后 윤씨)와 어머니(성종의 生婦 德宗의妃 昭惠王后 한씨), 작은어머니(睿宗의비인 安順王后 한씨)가 거처할 목적으로 창경궁을 건립하였다. 정조는 이를 두고 “성종때 또 창경궁을 지어 세분 대비를 모신 것은 참으로 효성스러운 생각에서였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왕실에서 필요에 따라 특별히 새로 지은 궁궐은 別宮이라고 한다. 조선 왕조의 別宮 중에서는 창경궁이 가장 규모가 크다. 창경궁은 성종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그 성격상 別宮이면서도 정전과 편전, 내전등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즉위한 임금만 인종이 유일하다. 창덕궁과 더불어 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은 이궁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외에 궁궐 밖에서 태어난 임금이 즉위하기 전에 살던 집, 潛邸(잠저)나 왕비 또는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전각을 別宮이라고 했다.

사전적 의미로 行宮은 임금이 피난이나 避接 혹은 멀리 나들이하는 과정에서 묵던 別宮을 말한다. 대표적인 行宮으로는 남한산성행궁과 북한산성행궁, 수원의 화성행궁, 온양행궁 등을 꼽을 수 있겠다.⁷⁷⁾

1. 朝鮮王宮의 都城

태조는 즉위 초부터 開城으로부터의 천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 후보지로 거론된, 한양, 鷄龍山, 毋岳 등지를 친히 살폈다 하며, 王師 無學, 河崙, 鄭道傳 등의 조언으로 한양을 택하였다 한다. 이후 정도전은 궁궐과 종묘의 위치 등 도성의 자리를 정하고, 궁과 문의 모든 명칭을 정했다.

태조 3년(1394) 천도로부터 시작된 도성 조성은 다음 해에 궁궐, 종묘, 관아 등이 완성되었고, 이때 한양을 한성으로 개칭하였다.

한성의 지세를 보면 북에 白岳山(북악산), 동북에 駱駝山(낙산:현재 삼청공원 뒤편), 동에는 鷹峰(현 삼청공원 내), 서에는 仁王山, 그리고 남에 木覓山(남산)으로 크고 작은 산들이 이어져 사면을 에워싸고 있어 천연의 성곽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던 王都 만들기는 正宗의 개성 還都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태종 5년(1405)의 한성 재천도로 계속되었다. 태종 12년(1412)에는 개천(淸溪川)을 정비하여 기본 배수로를 완공하고, 3차에 걸쳐 行廊을 조성했으며, 2층 5칸의 鐘樓도 이때 만들었다. 또한 別宮인 창덕궁을 창건하고 慶會樓를 개축하였으며, 延禧宮, 豊壤宮 등이 離宮을 세우는 등 태종의 노력과 방대한 국력

77) 이덕수, 《신 궁궐기행》, 대원사, 2004, pp.15-17

의 동원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성의 도성 구성을 보면 주위의 자연지세를 배경으로 궁궐과 관아를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가로 일부는 격자형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자연 지세에 따라 곡선로와 우회로, 막다른 골목들이 어우러져 사람의 보행이 교통의 기본이었던 당시의 형편과 우리 민족의 정서에 잘 어울리도록 배려되었다.

궁궐은 白岳山(지금은 북악山으로 불림) 앞 명당터에 경복궁과 창덕궁을 병렬 배치하고, 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궁궐(정궁 :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 서쪽에 社稷壇을 두었다. 도성의 중심 가로, 동서로는 현재의 종로길, 남북은 승례문에서 곡선으로 鐘樓에 이르러 三交叉가 되게 했으며, 경복궁 앞에서 현 광화문 네거리(黃土岬 광장)까지와 창덕궁 앞에서 현 종로 3가 네거리까지도 각각 3교차로 동서의 주축 大路(종로)와 연결되었다. 주요 간선로의 끝에는 궁 또는 대문이 위치하여 路端景을 갖게 하였으며, 길 양쪽에는 연이은 행랑 건물이 있어 이들은 당시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등의 궁궐과 관아 市廛 등으로 수도 한성의 도시 미관을 구성한 주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행랑(상가)들 가운데 번성한 곳은 雲從街와 종루, 광통교였으며, 六矣廛(인조 때 만들어짐)도 이 일대에 있었다 한다. 이 밖에 큰 시장(大市)은 長通枋(현 관철동, 장교동 일부, 종로 2가에서 을지로 2가 사이)에, 미곡상은 蓮花洞(현 연지동), 소나 말은 장통방 하천(청계천)변에서 교역되었다 한다.

漢城府의 행정구역은 도성 안과 성 밖인 城底로 구성되었는데, 성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10리를 포괄했다. 즉 북으로는 北漢山, 남으로는 한강 露渡, 동으로는 楊州의 松溪院, 大峴(牛耳川), 中浪浦, 長安坪, 서로는 楊花나루, 高陽의 德水院(현 응암동), 모래내(沙川)를 따라 蘭芝島에 이르렀다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성문 건축으로는 승례문, 홍인지문, 彰義門(북소문)이 있고 근래 1963년, 1972 ~ 1976년의 서울 城郭 重修때 광희문과 암문이었던 숙정문에 문루를 세웠고, 東小門인 혜화문은 원래의 자리가 대로가 되어 없어진 것을 그 옆에 최근(1992 ~ 1994)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傳統建築 空間의 特性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은 고대로부터 비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都城의 공간 구성도 중국과는 달리 비대칭으로 구성된 것을 서울 뿐 아

나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도시 街路 형성도 중국과 같이 바둑판 같은 直交 가로망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계획된 것으로, 중국의 都城制를 모방한 고구려시대의 格子 가로망이 평양의 서남쪽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자연지형과 우리의 감성에 자연스럽게 곡선과 직선이 어울린 비대칭의 가로망이 보통이다.

서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삶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의 서울은 조선 건국 후 太祖 3년 遷都로부터 이루어졌다. 즉 태조 3년(1394) 10월 한양에 천도하고, 그 다음 해에 궁궐, 종묘, 관아 등이 완성되어 이때 명칭을 漢陽으로 고쳤다 한다. 한성의 축성은 태조 5년(1396)에 완성하였다.

조선시대에 짜여진 한양 도성은 그 배치에 있어서 周禮考工記에 있는 “左廟右社, 前朝後市”의 중국식 원칙을 따랐다고 하였으나, 唐의 長安城 등 중국의 도성과는 시가지 모양이 아주 다르다. 즉 도성의 가장 중요한 남북축인 景福宮 앞 대로와 南大門 - 廣通橋길, 그리고 宗廟앞 큰길 등은 동서축인 종로와 교차하지 아니하고 三交叉(T형)하였고, 도서의 중심축인 동대문 - 종로 - 서대문의 축도 지형에 따라 굽어 있을 뿐 아니라, 後市에 해당하는 東小門 근처의 市廛(市場)은 축성 초기에만 있었을 뿐이므로 長通坊(현재의 관철동, 장교동)으로 옮겨 지금까지 상가로 자리하게 되어 결국 중국식 원칙을 깨뜨리게 되었다.

건물의 평면에 있어서도 궁성이나 사찰 등 내부가 단일 용도로 쓰이는 의례적이거나 관료적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주 건물에는 엄격한 좌우대칭이 적용되었고, 그 외의 사적인 생활에 쓰이는 건물이나 기타 부속건물 등은 상당한 변용이 허용되었다. 특히 주택 등 일반건물에는 비대칭의 건물들이 대부분이며, 건물들로 둘러싸인 뜰(마당)의 구성이 중요시되어 안으로는 열려 있고, 밖으로는 닫힌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도성 안의 주택들은 ‘ㄱ’자나 ‘口’자 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니, 마당을 공유하고 대청과 방들이 그 주변에 놓이는 평면 형태들이 이어져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대문간과 바깥마당, 행랑채와 행랑마당, 별당과 뒷마당(後園) 또는 별당마당 등 채로 불린 건물과 각 마당이 어우러져 외부공간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물만으로 마당이 감싸이지 못하면 성격이 다른 마당 사이에는 담장(꽃담장, 花牆)등을 두어 공간을 구획 짓기도 하였다.

이런 마당의 형성은 생활의 정서에 있어 사뭇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즉 폐쇄된 마당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감성을 갖게

되며, 소위 문화주택 또는 서양식 주택의 경우처럼 방마다 제각기 다른 조망 (view)으로 각기 다른 시각적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 건축공간은 영역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도 영역 내에서는 마당도 내부공간의 연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런 내. 외 공간의 구분과 연결은 대문간, 중문간 등에 의해 외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이 이루어지며, 마당과 마루나 방들의 내부공간은 건축물의 구성요소, 즉 기단, 댓돌, 처마, 툇마루 등으로 연결되거나 구획된다. 이런 過程的 공간, 또는 媒介공간의 다양한 적용은 우리 민족의 남다른 自然觀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⁷⁸⁾

3. 나라 中心地로서 궁궐

조선 왕조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각지로 뻗어나는 도로망, 역참망을 편성하여 이 지역이 전국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또 오늘의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에 세계 어느나라의 도로에 못지 않게 가로망을 계획, 건설하였다. 물론 이들 도로가 경제활동을 위해서만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정치, 행정, 군사의 용도가 보다 컸었다. 도로가 국가나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하여 조선왕조는 고려시대 개경으로 집결되던 도로망이 한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그 출발점이 종로구 일대였다. 지금도 남아있는 세종로 네거리에 里程元標에는 전국 각지에로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기준지점이었다. 이곳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의 각 방향으로 성문을 나서 전국각지로 왕래 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조선시대 주요 도로망으로서 9개의 노선이 있었다.

[제1로] 서대문 - 무악재 - 과주 - 개성 - 봉산 - 평양 - 안주 - 의주

[제2로] 동대문 - 누원 - 회양 - 철령 - 원산 - 함흥 - 북청 - 경성 -
경흥

[제3로] 동대문 - 망우리 - 양근 - 원주 - 대관령 - 강릉 - 삼척 - 울진 -
평해

[제4로] 남대문 - 한강진 - 용인 - 충주 - 조령 - 유곡 - 낙동진 - 대구 -
부산

[제5로] 남대문 - 유곡 - 상주 - 성주 - 현풍 - 함안 - 진해 - 고성 -
통영 - 거제

78) 홍대형, 《같은책》, 서울편, 기문당, 2001, pp.15-16

[제6로] 남대문 - 동작진 - 과천 - 진위 - 천안 - 공주 - 전주 - 남원 -
순천

[제7로] 남대문 - 동작진 - 은진 - 삼례 - 정읍 - 장성 - 나주 - 영암 -
해남

[제8로] 남대문 - 동작진 - 진위 - 소사 - 신창 - 신례원 - 보령 - 남포 -
비인

[제9로] 남대문 - 양화도 - 김포 - 통진 - 강화

이같은 도로에는 대로, 중로, 소로의 등급이 있었다. 즉 길폭이 12보이면
대로, 9보이면 중로, 6보 이하는 소로였다.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유통망의 중심지, 문화장소
의 중심지로서 전국민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왕조 사회인 조선시대에서 서울,
그 가운데서도 특히 궁궐은 중심지 가운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밀도 높은 역사의 현장이다.⁷⁹⁾

제 2 절 朝鮮의 正宮 景福宮

1. 朝鮮正宮 景福宮의 風水地理 思想

경복궁은 사적 117호 궁궐로써 세종로 1번지에 있다. 창건시기는 태조4년
(1395)이다.

고려 恭讓王 4년(1392) 7월17일 58세에 開城 수창궁에서 즉위한 李成桂는
國號와 儀章法制는 高麗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卽位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
해 8月 13日에 漢陽으로 遷都할 것을 하교하였다. 이어 8월 15일에는 三司右
僕射 李恬을 漢陽에 파견하여 宮室을 修繕하게 하고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
다.⁸⁰⁾

이와 같이 천도가 빨리 거론된 것은 開城이 舊고려 왕조가 정도한 후 500
년 가까이 뿌리내리고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건국된 조선의 면
목을 일신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필요

79) 최완기, <옛서울의 교통>,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81-82

80)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년, p.93, 李成
茂, 《朝鮮王朝史》 제1卷, 동방미디어, 1998. 9. 25 재인용

가 있었다. 특히 당시 민심을 크게 지배하고 있던 풍수지리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양은 고려의 文宗, 肅宗이래 南京으로써 풍수지리상 開京의 裨補의 요지 뿐만 아니라 고려말 禡王, 恭讓王代에는 한때 천도의 후보지로서 지명되었던 곳이므로 太祖는 한양을 새 도읍지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태조는 중신들의 일부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王命으로 南部地方을 巡歷 중이던 권중화가 太祖 2년(1393) 1월에 新都의 후보지로 公州 계룡산을 풍수지리상 山水가 도읍지로서 최대 길지라고 상소한 일이 있었다. 이에 태조는 큰 관심을 갖고 계룡산을 5일동안 실지 답사하고 심사하여 이곳을 新都로 삼을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首都 建設을 위한 役事를 진행시키던 그해 12월에 경기도 관찰사 河崙은 계룡산이 수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하륜은 계룡산이 吉地임에는 틀림없으나 너무 협소하고 한반도 중앙으로부터 너무 남쪽으로 偏在하여 東北, 西北方과 너무 떨어져 있어 국가방위와 통치의 漏水를 염려하였다. 대신 漢陽母岳의 西南인 현 신촌·연희동 지역을 지목하여 수도의 吉地로 상소하였다.⁸¹⁾

태조 3년(1394) 2월에는 左侍中 趙浚등에게 現地를 답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하륜을 제외한 대다수 신하들이 적당치 못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래서 太祖는 그 해 7월에 다시 陰陽冊定都監을 두고 권중화, 정도전, 성석린, 정충, 하륜등 중신을 총동원 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게 하였다. 같은해 8월에는 중신들을 총동원 하여 친히 母岳 현지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마음에 결정하지 못해 母岳천도론은 좌절되고 말았다.⁸²⁾

그 후 太祖는 귀로에 한양 땅으로 다시 들어서 고려의 南宮 궁궐지를 살펴보고 산세에 대한 풍수지리상 수도로서 立地를 地師 윤신달등에게 의견을 물었다. 윤신달은 松京이 제일이고 이 땅이 그다음이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乾方(北西)이 낮고 水泉(明堂水)이 고갈하여 吉地로서 흠이 있음을 지적 하였다. 태조는 이것을 듣고 松京이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겠는가 하고, 이 땅을 살펴보니 그 형세가 王都로 손색이 없으며, 배로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 마을의 길도 균등하여 사람의 일도 또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이곳을 유일한 國都 후보지로 작성했다. 다시 王師無學(朴自超)에게 물었던바. 무학도 이땅이 사방이 높고 중앙이 평탄하여 도읍으로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다. 태조가 여러 신하들에게 토론시키니 이구동성으로 이에 찬성했다. 하륜만이 지리법상 왕도의 땅이 아

81) 강환웅, <같은논문>, 《太祖實錄》卷3, 태조2년 2月條 재인용, pp.93-94

82) 강환웅, <같은논문>, p.94,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p.562. 민음사 재인용

나라고 반대했지만 태조는 중의에 따라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⁸³⁾

2. 景福宮의 空間概念

國都邑城의 전체가 주위의 산세가 풍수지리 산세와 더불어 풍수지리 四神砂의 개념에 의하여 입지된다. 그 중심에 위치한 景福宮의 건축양식 또한 풍수지리 陽宅論에 입각하여 건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四神砂안에 또 하나의 四神砂가 형성된 것이다.

경복궁은 풍수지리이론을 대응시킨 건축시설의 기본 배치양식이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거공간 구성이 풍부한 형이상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실존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존공간은 작게는 개인 주택에서 시작하여 취락, 도읍, 지방과 국토 전체에 이르기 까지 풍수지리의 개념이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풍수지리 사상의 공간적 주요 특성은 明堂안에 또 다른 명당이 있고, 四神砂 밖에 또 다른 四神砂가 있어서 우리의 국토는 공간적으로 중층적인 풍수지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있다.⁸⁴⁾

景福宮은 4개 宮闕중에서 가장 먼저 營建되고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궁지는 대체로 고려 3京가운데 하나인 南京의 궁궐자리로 인정되는데, 이보다도 좀더 남쪽 넓은 곳으로 옮겨 지은 것이다. 즉 “고려 숙종때 營建된 궁궐터가 좁은 것을 피하여 그 남쪽에 자리를 잡고 西北方(乾方)산인 북악산(白岳山)을 主山으로 삼아 子坐午向(北坐南向)으로 정하니 局面이 平坦하고 넓으며 案山이 모두 이곳에서 朝會하여 君王에게 揖하는 形局과 같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로 보아 경복궁 터가 옛날 고려의 남경 궁궐터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태조 3년(1394) 8월 24일 좌정승 趙浚, 우정승 金士衡등의 상신으로 한양에 정도한 다음 9월1일에는 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청성백 沈德府와 좌복야 金奏 전정당문학 이염, 중추원학사 李稷을 판사로 임명하였다. 또 당월 9일에는 판문화부사 權仲和, 판삼사사 鄭道傳, 청성백, 심덕부, 참찬문하부사 김주, 좌복야 南閻, 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어 宗廟, 社稷, 宮闕, 시장(朝市) 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83) 村山智順, 《같은책》, 최길성 역, 민음사, 1995, p.564

84) 강환웅, <같은논문>, pp.97-98, 李夢日, 《한국의 풍수思想》, 명보문화사, 1991, p.155 재인용

권중화등은 고려의 肅宗 시대에 경영했던 궁궐의 터가 너무 좁다하고 다시 그 남쪽에 亥方, 白岳山을 주맥으로 하고 壬坐丙向(북좌남향)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터로 정하고) 또 그동편 2리쯤 되는 곳에 坎方(창덕궁의 주산인 鷹峰)을 주산으로 하고 壬坐丙向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

9월 23일, 판삼사사 정도전 등은 한양으로부터 돌아왔으나 청성백 심덕부와 참찬문하부사 김주는 한양에 남아서 궁궐과 기타 도시의 경영을 관리 하였다. 태조는 송도 기뢰의 설을 깊이 믿고 하루라도 빨리 신 도읍에 안정하려고 드디어 천도를 결행하여 구 한양부객사(客舍·敦養洞)로서 임시 離宮을 삼았다. 즉 10월 25일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었다. 각 관청의 관원 2명씩은 松京에 머물러 있게하고, 문하시랑 찬성사 崔永汎와 상의 문하부사 愚仁烈등으로 分都評議使司를 삼았다. 28일에 새 서울에 이른다.

이때까지 궁궐조성의 착공도 하지 않은 터여서 도평의사사에서 진언하여 처음으로 工作局을 설치하게 된다. 그 내용은 “宗廟는 朝宗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政令을 내는 것이며 城郭은 안팎을 성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 세가지는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한 관청에 명하여 공사를 독촉하여서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아서 효성과 공경을 조종에게 바치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존엄성을 보이며 또 국가의 세력을 길이 굳건하도록 해야 한나라의 규모가 짜여지고 만세에 길이 전할 계책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진하게서는 이를 시행하도록 하소서.

1394년 태조3年 12月 3일에 이르러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皇天과 后土의 神에게 제사를 올려 (왕도)의 공사를 시작하는 사유를 고하였다.

또 12月3일에 참찬문하부사 金立堅를 보내서 산천의 神에게 告祀를 드리게 하였다. 동년 12월 4일에는 중추원 부사 崔遠을 종묘를 세우려는 터에 보내고 또 첨서 중추원사 權近을 궁궐 지을터에 보내서 五方地神에게 제사 지내고서 그 터를 개척하였는데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여러 절의 僧(중)들을 모집하여 관청에서는 옷과 먹을 것을 주어서 공사장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한양의 건설이 시작되고 1395(태조4) 1월 29일에는 社稷壇을 영조하였다. 1395년 6월 6일에는 漢陽府를 고쳐서 漢城府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을 見州(현주)로 옮기고 楊州郡이라 고쳤다. 또 1395년 6월 13일에는 成石璘을 判漢城府事로 삼았다. 1395년 8월 28일에는 백악산의 壇에 제사를 올렸다. 9월29일 太廟와 새 궁궐이 준공되었다. 太廟의 太室은 7間 새 宮闕은 燕寢

이 7間 … 東門은 日華門, 西門을 月華門… 宮城을 쌓고 東門은 建春門이라 하고 西門은 迎秋門이라 하며 남문은 光化門이라 했는데 다락(樓)3칸 이상, 하층에 있고 다락위에 종과 북을 달아서 새벽과 저녁을 알리게 하고 문 남쪽 좌우에는 議政府, 三軍府, 六曹, 司憲府 등의各司 공청이 벌여졌다.

조선왕조의 궁은 正宮, 別宮(또는離宮), 行宮으로 나누는데 景福宮은 유일한 정궁이고 昌德宮, 德壽宮은 별궁이며 行宮으로는 慶熙宮이 있다.

한양의 도성계획은 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左廟右社의 제도에 따라 경복궁 왼쪽(동쪽)에 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서쪽)에 社稷壇을 설치하여 도성의 기본이 되게 하였다. 궁궐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관청들이 배치되는 外祖, 왕이 정치를 하는 治朝,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燕朝(內朝), 휴식과 연회의 苑囿空間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경복궁에서 보면 궁의 남북축선상에 光化門, 弘禮門, 永濟橋, 勤政門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외조 공간은 남북으로는 광화문에서 근정문사이, 동서로는 建春門과 迎秋門안 치조의 좌우 측면 부분으로는 承政院, 弘文館, 禮文館, 內醫院, 등이 있었다.

治朝의 공간은 근정전과 사정전을 중심으로 回廊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燕朝의 공간은 嚮五門내 침전으로 內朝라고도 부르며 이곳에는 강녕전과 교태전을 주전각으로 하여 많은 부속건물들이 역시 회랑으로 둘러 쌓여 있다. 그리고 苑囿 공간은 燕朝의 서쪽과 후면에 두었다.

정도전은 詩經 周雅의 한 구절인(“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慶福”)의 구절에서 경복을 따와 경복궁이라 이름짓고 1397년부터 정식으로 집무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이궁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營建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宮地는 대체로 고려 3京중의 하나인 南京의 궁궐자리(지금의 청와대 자리라는 설이 유력하다.)로 인정되는데 터를 좀더 넓혀 지어진 것 같다. 궁의 면적은 126,000여 평으로 담의 높이는 20자 1치, 둘레1,813보(步:1步는 6尺, 1.6m)의 규모였다. 宮闕志에 의하면 경복궁은 祖山인 삼각산(三角山:북한산)의 남쪽 해산(亥山:북악)을 主山으로 하며, 임좌병향(壬坐丙向:정남북 축인 子坐午向에 대하여 약15° 정도 동남향한 방위임) 하여 자리잡고 주요 전각의 향 또한 壬坐丙向 하였다. 그러나 실제 좌향은 癸坐丁向 《태조실록》 태조3년 9월9일 丙午條에는 경복궁은 壬座丙向이나 대원군때 중건한 경복궁은 오히려 癸坐丁向에 가깝다. 즉 약간 서쪽으로 기운 방향으로 정전인 근정전을 중심으로 부속 전각을 배치하였다. 이들 전각은 정전과 주위의 행각을 비롯하여 東樓. 西樓. 燕寢. 東小寢. 西小寢. 報平廳. 內侍茶房. 中樞院. 三軍府 각종(樓)

와 庫등으로 창건 당시에는 총 390여칸 《태조실록》이라하니 왕궁으로서는 소박한 규모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후 왕자의 난에 이어 개성으로의 還都와 태종의 再遷都(1406)후 경복궁을 정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 세종때에 동서남북의 궁문도 建春門(東), 迎秋門(西), 光化門(南), 神武門(北)으로 명명하고 대궐안 광화문 북쪽에 弘禮門, 근정전 앞에 근정문을 두었으며 그 동서쪽에 夾門을 두어 각각 日華門과 月華門이라 하였다. 세종 16년(1434)에는 경회루 남쪽에 報樓閣을 세우고 궁의 서북쪽에 簡儀臺등을 두었으며 1443년에는 諺文廳을 두어 한글을 창제 토록 하였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화재로 잿더미가 된후 270년 간이나 황폐한 채로 있다가 고종2년(1865)에 興宣大院君(李昰應1820-1898)에 의해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규모가 7,714칸에 圖示된 규모는 509棟(6,806칸임) 이르렀다 한다.⁸⁵⁾

새궁궐의 이름을 경복궁 이라하고 궁안의 殿閣으로 政殿인 근정전을 비롯하여 慶會樓, 思政殿, 千秋殿, 康寧殿, 交泰殿 등 수많은 목조 건물이 있었다. 燕寢을 康寧殿이라하고 동쪽에 있는 小寢을 연생전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을 慶城殿, 연침을 남쪽은 사정전이라하고 또 그남쪽은 근정전이라하고 殿門을 근정문, 남쪽에 있는門(午門)을 정문이라 하였다. 경복궁의 전각 이름은 모두 정도전이 지었다.

경복궁은 《詩經》, 周雅의 한구절인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慶福”),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불러서 군자의 만년을 빛나는 복(景福)을 빈다 라는 시를 외우고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이름짓고 임금이 된자로 하여금 백성만 自逢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넓은 방에서 한가히 거처할 때는 빈번한 선비를 도울 생각을 하고, 정각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되면 맑고 그늘진 것을 생각해 본뒤에 거의 만백성이 봉양하는데 저버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이름을 지었다.

85) 홍대형, 《같은책》, 서울편, 기문당, 2001, pp.4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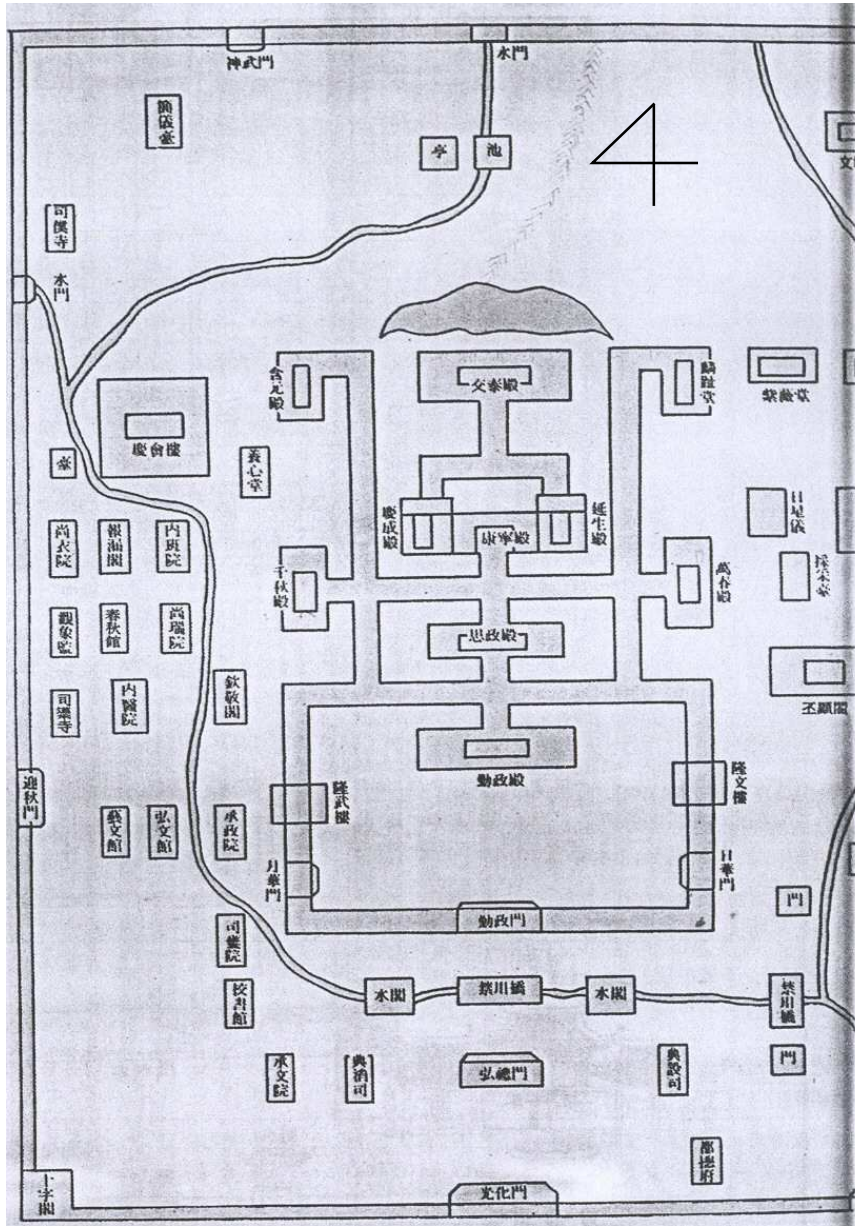


그림 14. (경복궁 전도)

임진왜란으로 불타기전의 경복궁원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삼성출판 박물관 소장

3. 景福宮內的 主要 殿閣 해설

1) 勤政殿

근정전은 국보 223호로 조선왕조의 궁궐건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또한 광대한 실내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경복궁의 정전인 이 건물은 왕이 신하들의 朝賀를 받고 국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등 공식적인 大禮를 거행 하던 곳이다.

태조 4년(1395)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것을 다시 고종 4년(1867)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昌德宮의 仁政殿을 원형으로 하여 건립 하였다 하나 인정전과는 달리 세부에서 纖弱하여 인정전에서 느낄 수 있는 簡古하고 鈍重한 감은 잃고 있지만 조선왕조 최후의 걸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정전의 명칭은 鄭道傳이 作名한 것으로 ‘부지런한 가운데 밝은 정치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⁸⁶⁾

경복궁 창건 당시 정도전이 근정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天下의 일은 부지런히 해야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쇠약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필연적 이치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그러 하거늘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큰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또 (편안한 것만 가르쳐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일만 가지 기쁨이 생긴다. 여러 관원들 직책을 저버리게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先儒들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케 한다> 는 것이 임금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임금으로서 그 어찌 하루인들 부지런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부지런한것만 알고 부지런할줄 모르면 그러한 부지런은 오히려 번거롭고 까다로울 뿐이며 좀스럽게 살피는 데로만 흐르게 되어 보잘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르기를 “勤於求賢 逸於任賢” 이라 하여 어진 사람을 구하기에 부지런하고 어진이에게 맡김으로써 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정전을 勤政殿 이라 한다.

이곳 근정전에서는 정종,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명종, 선조, 여덟분의 임금이 등극 하였다.⁸⁷⁾

86) 홍대형, 《같은책》, 서울편, 기문당, 2001, p.60

2) 思政殿

건물의 명칭은 “天下의 理致는 생각하면 얻고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報平廳이라 하였다. 사정전은 편전으로 왕이 政事를 보고 문신들과 함께 經典을 강론하고 宗親, 대신들과 주연을 함께 하기도 하며, 왕이 親臨하여 文武 과거를 친견하기도 한 곳이다.

사정전에 대하여 말하면,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대개 임금의 한 몸으로써 높은 자리에 계시오니, 만일의 백성을 슬기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不肖함이 섞여 있고, 만사의 번다함은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됨이 섞여 있어서, 백성의 임금이 된 이가 만일에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찌 마땅함과 부당함을 구분하여 처리하겠으며, 사람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을 알아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옳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계책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에 禍敗에 이르게 된 것이니, 진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생각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쓰임이 지극한 것입니다. 이 殿에서는 매일 아침 여기에서 정사를 보시고 萬機를 거둬 모아서 전하에게 모두 품달하면 초척을 내려 지휘하시며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사정전으로 이름 지었다.⁸⁷⁾

3) 康寧殿

洪範九疇의 五福중에 셋째가 康寧이다. 대체로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덕을 닦아서 皇極을 세우게 되면 능히 어복을 향유할 수 있으니, 강녕이란 것은 오복중의 하나이며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마음을 비우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는 곳에 있는 것이며, 역시 애써야 되는 것이다. 한가하고 편안하게 혼자 거처할 때에는 너무 安逸한 데에 지나쳐, 경계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바가 있고 덕이 닦이지 못한 바가 있으면, 皇極이 세워지지 않고, 五福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것은 安逸한 것을 경계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서 皇極의 福을 누리면, 聖子神孫이 계승되어 전한다는 뜻으로 燕寢을 康寧殿이라 했다.⁸⁸⁾

87) 이덕수, 《같은책》, 대원사, 2004, pp.71-73

88) 최종현, 〈서울의 궁궐〉,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189-190

4) 慶會樓

경회루는 국보224호 건축유형 樓 이며 태종12년(1412)창건했다. 현경 회루는 고종4년(1867)에 중건 되었다. 근정전 서북쪽에 남북 113m, 동서 128m의 蓮塘을 조성하여 연못가운데에 큰섬 한 개와 작은섬 두 개를 만들고, 연못의 동쪽에 치우친 큰섬 위에 중층 樓閣을 세워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었으니, 이 누각이 바로 경회루이다. 이 건물은 태종 12년(1412)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조선 고종 4년(1867)중건된 중층 누각이다. 현판의 글씨는 처음에는 태종의 세자 讓寧大君의 글씨였으나 지금의 현판은 고종 때 申櫛이 쓴 것이다.



그림 16. (경회루 전경)

89) 최종현, <같은논문>, 서울시민 문화 대학편, 《같은책》, pp.188-189

경회루는 물 속에 장대석을 쌓아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세운 정면 7칸(112.5척), 측면 5칸(93.3척)의 이익공 형식으로, 전후 뒷간이 있는 11량의 기구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로 경복궁에서 근정전 다음으로 큰 건물이다.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나 외국에서 온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河崙은 “慶會”의 뜻을 “임금과 신하가 德으로써 만난다”는 것으로 풀이하었다.

경회루 윗층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전후 좌후 면을 따라 鷄子脚난간을 둘렀다. 마루는 바닥의 높이가 세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가운데 3칸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2칸은 한뼘정도 낮다. 그리고 바깥쪽 20칸은 다시 한뼘쯤 더 낮다. 이러한 높낮이 경계구분에는 들어 열 개 창호가 달렸다. 창호를 내리면 각각 닫힌방이 되고, 창호를 올리면 넓게 터진 마루가 펼쳐지는 것이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임금이 앉던 자리이다. 이러한 구조에는 신분위계를 구분짓는다는 의미외에도 《주역》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즉 가운데 가장 높은 3칸은 正堂으로 天地人의 三才를 나타내고, 그 3칸을 구획하는 8개의 기둥은 八卦를 표현한다. 그 다음 12칸은 정당을 보조하는 軒으로 1년 12달을 상징하며, 16개의 기둥 사이에는 네 짝씩의 문이 있어 64괘를 이룬다. 또한 가장 바깥쪽 마루 20칸에 있는 24개의 기둥은 24절기를 나타낸다.

또 경회루의 공간구성을 분석한다면 慶會樓는 方池 內에 3개의 섬위에 축조되어 있어서 이 3개의 섬은 三神思想의 상징인 蓬萊, 方丈, 瀛洲의 三神山을 의미하고 있어 慶會樓의 기본적인 사상을 三神思想에서 찾게 된다.

慶會樓로 연결되는 다리(橋)도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회루의 평면은 正面 7칸과 側面 5칸으로 평면의 中心으로부터 三重의 四角形이며, 그 中心空間도 三間으로 구성되어서 건물의 배치와 평면은 전체적으로 『3』의 상징체계로 해석되는 바 이 三의 근원은 三神山에 관련된 三神思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⁹⁰⁾

강녕전 쪽에서 경회루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모두 세 개의 돌다리를 놓았는데, 그 중 남쪽에 있는 돌다리는 다른 두 개보다 폭을 넓게 하여 御路를 두었다. 다리 위에도 역시 엄지기둥과 하엽동자를 세우고 팔각 돌난대를 둘러 난간을 형성하였으며, 엄지기둥 위에는 돌짐승을 조각하였다. 건물 서쪽면 기단에는 돌계단을 붙여 연못의 배를 탈수 있도록 하

90) 박시익, <같은논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pp.131-133

였다. 또한, 넓은 연못은 장대석으로 護岸을 쌓고 서쪽 방향으로 치우쳐 인공으로 조성한 섬 堂洲를 구성하였다. 두 개의 인공 섬에는 나지막한 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누각 동북쪽 호안에는 石漏槽를 두어 연못으로 드는 물길을 텃으며, 물이 드는 동북쪽 연못 바닥은 높게, 물이 나가는 서남쪽 바닥은 낮게 하였다.

이 경회루 연못은 물로 불을 제압함으로써 궁궐을 보호하며, 경복궁의 부족한 명당수를 확보하고, 땅의 습기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 고종 때의 경복궁 중건 당시에는 이 연못 속에 구리로 조각한 용 두 마리를 잠수시켰다고 한다. 경회루는 단일 평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또한 일제시대에 모두 헐려 지금은 없지만 원래는 경회루 연못주변을 사방으로 둘러싼 담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 담장에는 舍弘門, 서쪽 담장에는 天一門, 남쪽 담장에는 慶會門 이 있었다.⁹¹⁾

제 3 절 昌德宮

1. 昌德宮의 建立 背景 歷史

창덕궁은 종로구와룡동 2-71번지이고 사적 제122호 면적 144,299평 건물 인정전등 100동 4,256평이다.

경복궁은 태조와 그 측근인 정도전등이 주동되어 건설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태종은 이곳에서 태조 8년(1398) 8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이복 동생인 세자 芳碩을 폐위시킨 다음 죽이고(제1차왕자의 난) 이어 정도전, 남은, 등 개국공신들을 경복궁 부근에서 살해한 뒤 정권을 잡았다. 그 결과 사랑하는 세자와 공신들을 잃고 상심한 태조가 下野하고, 태종과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정종에게 물려주고 上王으로 나앉았다. 정종은 즉위한지 다섯달이 되는1399년 2월 개경 근방에 있는 자신의 생모 神懿王后 한씨의 능인 齊陵을 참배하러 갔다가 그대로 개경에 머물렀다. 실질적인 개경 환도였다.

이방원은 개경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형 芳幹을 제거하는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世子가 되었다. 세자가 된 이방원은 실질적인 권한

91) 이덕수, 《같은책》, pp.124-130

을 장악하고 부왕 태조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한 끝에 1400년 11월 결국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 받았으니 이가 태종이다. 태종이 즉위하여 태종 5년(1405) 10월 11일 한양으로 재 천도하게 된다. 제3대 왕으로 즉위한 태종은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옮기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 수 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부왕의 미움까지 사면서 왕위에 오른 태종의 입장에서 경복궁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왕실내부를 둘러싸고 骨肉相爭의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경복궁은 태조와 정도전 그리고 이복왕자의 怨魂과 恨이 서린 곳이기 때문이다. 태종은 태조때 지은 경복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離宮을 신축한 이유는 역시 풍수지리 사상의 견지에서 본궁에 대한 避方의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避方이란 풍수에서 凶方を 피하여 吉方으로 잠시 옮기던지 風水裨補를 설치한다는 풍수설에 의한 방법이다. 이러한 이론으로 태종은 경복궁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곳에 왕궁을 물색하고 鷹峰자락 鄉校洞터에 離宮으로 조성한 궁궐이 곧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태종 4년(1404) 10월 6일에 왕명에 의하여 營建 공사가 시작되어 태종 5년(1405) 10월 19일에 준공되었고, 宮號는 25일에 정해졌다. 그후 10일 만에 왕이 新宮에 入御하게 되었는데 이 날은 환도와 신궁의 落成 축하가 겹치는 날이기도 했다. 이때의 재천도 한양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首都로서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할 기초를 마련하였다. 궁궐 경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창덕궁의 營建은 법궁 경복궁에 대해서 離宮의 완성이요 조선왕조의 최초의 법궁 - 이궁 양권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창덕궁의 건설에는 晝雲觀 윤신달 이양달이 풍수를 맡았으며, 공사는 朴子靑이 총괄 하였다.

태종을 뒤이은 왕들도 왕실의 피로 얼룩진 경복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즉위식을 한다든지, 외국 사신을 접대한다든지, 과거 시험을 치른다든지, 종친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든지, 창덕궁에서 병자가 생겨 피접할 경우에는 경복궁으로 왔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대체로 창덕궁에서 살았다. 말하자면 국가의 특별한 행사는 경복궁에서 치르고, 일상적인 업무는 창덕궁에서 본 것이다.

경복궁을 기피한 또 다른 이유는 궁궐이 북쪽의 북악산(白岳山)이나 서쪽의 仁王山에 노출되어 멀리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고, 왕비나 왕대비 등 여성들이 은밀하게 거처하는 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창덕궁과 창경궁은 깊은 숲에 가려져 있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後苑에서 휴식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亭子나 연못 등이 많았

다. 그래서 임금의 지은 宮中詩는 창덕궁을 소재로 한 것이 가장 많다.

이밖에도 임금들은 보안상 한 궁궐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또 궁궐의 퇴락을 막기 위해서도 한 궁궐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좋지 않았다. 계절에 따른 궁궐의 선호도에도 차이가 있었고, 궁중에 요괴가 나타날 경우, 환자가 생겼을 경우, 벼락이 칠 경우, 맹수가 자주 나타날 경우, 화재가 날 경우, 정변이 일어날 경우에도 거처를 옮겼다. 요컨대, 조선전기에는 임금이 주로 경복궁에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離宮으로 창건된 창덕궁은 正宮인 景福宮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고종때 중건되기까지 273년 동안 역대 임금들이 이곳에서 정사를 살핌으로써, 조선왕조후기의 실질적인 정궁 역할을 하였다.⁹²⁾

창덕궁은 경복궁보다는 넓으나 궁궐의 규모로는 경복궁 다음가는 별궁이다. 태종 재위 13년 동안 계속 증·개축되어 궁궐로서의 격식이 갖추어졌으며, 임진왜란과 일제 통치기간 등을 거치며 수없이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의 正宮은 경복궁이므로 이의 동쪽에 자리한 창덕궁은 상대적인 위치로서 東闕 또는 東關大闕로 불리기도 한다. 당시 경복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궁을 신축한 이유는 風水地理說의 입장에서 本宮에 대한 避方의 처소, 즉凶을 피하여吉한 방향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다는 관념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정궁인 경복궁에서 있었던 骨肉相殘의 비극을 꺼려한 이유도 있었다.

이 궁의 正殿인 仁政殿은 仁政門과 함께 초창되었고, 태종 18년(1418) 7월 朴子靑(1357-1431)에게 改營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세종원년(1419) 9월에 준공되었다. 이 인정전은 단종 원년(1453)부터 6년까지 또 한번의 개영이 있었는데 이때 상당한 改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 11년(1411)에는 이외에도 박자청으로 하여금 進善門과 錦川橋를, 그리고 같은해 12년에는 궁의 정문인 敦化門 등을 건립하여 궁의 補築工事를 계속했다.

세조 7년(1461)에는 각 전각의 이름을 改名하여 朝啓廳(報平廳)은 宣政殿으로 고치고, 그 뒤편의 東別室은 昭德堂, 西別室은 寶慶堂이라 하였다. 그리고 正堂, 즉 내전의 正寢은 兩儀殿(大造殿), 그 동쪽의 침실은 麗日殿, 西寢室은 淨月殿, 그에 딸린 루는 澄光樓라고 하였으며, 동서의 別室은 각각 凝福亭과 玉華堂, 그에 딸린 樓下는 光世殿, 廣延殿이라 칭하였고, 별실은 求賢殿이라 하였다.

92) 한영우, 《같은책》, 열화당, 효행출판 공동발행, 2003년, pp.24-25

또한 成宗 6년(1475)에는 徐居正(1420-1488)으로 하여금 문의 이름을 두 가지씩 지어오게 한 다음 門額을 친히 선별해서 걸게 하였는데, 궁 바깥 동쪽 담장에 딸린 문은 宣人門, 가운데 동쪽 담장문은 景陽門, 새로 낸 대문은 長春門, 가운데 대문은 宣明門, 안의 동쪽 담장문은 建陽門, 북동쪽 담장문은 綺華門, 광연정 西岫門은 平昌門, 남.북 행랑문은 永和門과 永平門, 內司僕의 남문은 雲錦門, 바깥 동산 문은 延陽門, 정전의 좌우 협문은 光範門과 崇範門으로 정하였다. 또 남쪽 담장의 문을 丹鳳門, 서쪽 안쪽 담장문은 宜秋門, 왼쪽 闈門은 肅章門, 兼司僕廳의 새 문은 延福門, 內司饗 위(동)쪽 문은 小春門, 북쪽 문은 小東門, 中宮의 差備門은 延禧門, 승정원의 남문은 延英門, 서행랑문은 金虎門, 바깥 서쪽 담장문은 鎭金門, 서쪽 담장문은 曜金門, 후원 북쪽 담장문은 拱辰門, 북쪽 새 담장문은 闔闔門, 동쪽 담장문은 靑陽門, 바깥 북쪽 담장문은 廣智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대조전, 희정당 쪽에서 후원과 창경궁으로 통하는 동쪽 문은 望春門, 옛 동궁 남쪽 문은 東陽門, 동쪽 담장문은 昭華門, 남쪽 담장문은 昭揮門, 동쪽 障子門은 曜儀門, 남쪽 행랑문은 金鑾門, 후원 司僕門은 上苑門, 궁성 북문은 神武門 등 29개소의 문 이름을 정하였다.

그러나 先祖 25년(1592)에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이 모두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선조 26년 10월 의주에서 한양으로 환도하였으나 궁궐이 피폐하여 거처를 지금의 慶運宮, 德壽宮자리인 月山大君의 저택을 行宮으로 삼아 7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창덕궁의 재건이 착수되어 광해군 때에 중수되었으나 仁祖反正으로 인정전만을 남긴 채 여러 전각들이 소실되고, 또한 인조가 登極한 후 반정 공신의 공적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李适의 난으로 인해 창덕궁이 또 다시 소실되어, 慶熙宮(慶德宮)에 거처하다가 인조 10년 10월 궁중의 咀呪之變으로 移御하는 논의가 생겨 임시로 梨峴宮(현 인의동 부근)에 거처하며서 창덕궁을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조 25년(1647)에는 광해군이 인왕산 아래에 조성했던 仁慶宮을 헐어내어 大造殿, 宣政殿, 熙政堂 등을 중건했고, 孝宗 7년(1656)에는 효종의 계모인 壯烈王后 趙大妃의 거처를 위해 인정전 북서쪽인 예전의 欽敬閣 자리에 萬壽殿 건립을 착수하여 이듬해 완공을 보게 된다. 이 외에도 千慶殿, 春暉殿 등이 영건됐으나 숙종대에 만수전과 천경전은 불타버렸고 춘회전은 숙종 21년(1694)에 璿源殿으로 개칭하고 御眞을 봉안하였다.

英祖 20년(1744)에는 承政院에서 失火하여 인정전과 좌우 행각이 연소되었으나 다음해에 복구되었고, 정조 원년(1776)에는 후원 북쪽에 奎章閣, 즉 오

늘날 宙舍樓라 불리는 건물을 신축했다. 정조 6년(1782)에는 창덕궁의 수리가 있었는데 인정전 前庭에 品階石이 설치되었고, 重熙堂이 관물헌 동쪽에 건립되었으며, 1785년에는 壽康齋가 세워졌다. 순조 3년(1803) 12월의 화재로 인정전이 불에 타 다음해에 다시 복구되었는데 지금의 인정전은 이때 지은 건물이다. 또한 순조 33년(1883) 10월에 또 다시 화재로 대조전과 회정당 등이 불에 타 다음해에 다시 재건하였다. 그 뒤 헌종 12년(1846)에는 樂善齋의 건립이 있었으며, 哲宗 8년(1857) 정전을 해체 개수하였고, 고종 14년(1877)에는 창경궁과 더불어 수리공사가 있었다.

光武 1년(1907)에는 순종이 즉위하고 1908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궁의 일부가 변형되어 인정전에는 서양식 가구와 실내장식이 들어섰으며, 1910년 인정전에서 역사적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순종은 창덕궁 殿下로 격하되면서 조선왕조는 사실상 끝을 맺게 된다.

1917년에는 상궁 거처에서 불이 번져 大造殿 등의 내전 일곽이 불에 탔다. 이때 일본인들은 경복궁의 康寧殿, 交泰殿, 延吉堂, 慶成殿, 膺祉堂, 欽敬閣, 含元殿, 萬壽殿, 興福殿 등을 헐어내어 그 제목으로 1920년에 창덕궁 대조전과 熙政堂, 興福軒, 景薰閣, 含元殿 등을 세웠다. 이때 인정문과 그 행각도 전시장으로 꾸미기 위하여 일본식으로 개조 하였다. 즉 행각의 지붕틀을 트러스로 짜고 벽은 양회벽치기를 하였다.

창덕궁은 고종이 경복궁으로 이리하기까지 왕실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국왕이 常住한 기간도 가장 긴 왕궁이었으나 여러 번의 증수로 전각의 增損이 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이 즉위한 곳이기도 하며 침전인 대조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正堂으로서 많은 역대 국왕이 여기서 탄생하고 승하 하기도 했다.

초창기의 창덕궁은 外殿 74간, 內殿 118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의 규모(17만 5천여 평, 후원을 제외한 궁의 면적 3만 7천여 평) 보다는 작았고 이후로 점차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궁궐의 입지는 동쪽에는 창경궁이 있고, 북쪽으로는 창경궁과 공동으로 사용한 후원이 있다. 남동쪽으로는 宗廟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정궁인 경복궁이 자리 잡고 있다. 배치는 특이하게 山地形이며 한정된 지형을 따라 자유로운 배치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이 궁궐은 중심축이 통일되지 않고 각 영역의 축들이 병렬되어 있으며 평행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前廟後寢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궁의 서남 모퉁이에 남쪽을 향하여 서 있는 정문인 돈화문의 진입축과 직

교되는 주 통로를 따라 錦川橋를 건너면 서쪽을 향한 進善門(1999년 복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肅章門(1999년 복원)이 있으며, 이들을 잇는 행각의 왼쪽에 남향하여 三門인 仁政門이 나오고 이 문을 통하여 정전인 仁政殿에 이른다. 이곳 인정전의 바깥 행각은 사다리꼴로 구성되었으며 진선문을 지나면 인정문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공간의 깊이도 더 깊게 느끼도록 배려되어 있다. 정전인 인정전 동행각에 있는 光範門을 나서면 편전인 宣政殿이 있는데, 正南에 정문인 宣政門과 행각으로 둘러져 있다. 또 이 선정전의 동북에 축이 약간 비스듬히 틀어져 침전인 대조전과 회정당이 있고, 그 북쪽으로 嘉靖堂과 후원(속칭 秘苑이라 부름)이 연결된다. 또한 인정전의 서쪽으로는 왕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璿源殿 일곽이 있다. 그리고 궁궐의 중심 부와는 다소 떨어진 동편에는 白骨집인 樂善齋(원래는 창경궁의 부속 건물이었다)와 承華樓 등 생활공간이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곳 창덕궁은 백악의 동쪽 鷹峯줄기의 구릉지를 이용한 자연지형 위에 궁궐과 後苑을 배치하여 우리 전통건축술 최고의 가치기준인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는 궁궐이 되었다. 아울러 지형을 살리고 여기에 적당히 인공미를 가미하여 이 땅의 궁궐 중 가장 아름다운 후원을 조성하고 있다.⁹³⁾

2. 昌德宮의 建物 配置

조선시대 경복궁이 위치한 한양은 진산이 삼각산으로 그 來脈은 도성내에 이르러 네 개의 줄기로 갈라져 전개된다.

첫째, 인왕산의 줄기로 도성의 우백호를 이루며 남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긴 줄기이다.

둘째, 주산인 북악산(백악산)이 흘러 지금의 광화문 근처에서 그치는 가장 짧은 줄기이다

셋째, 응봉이 흘러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져 내리는 줄기이다.

넷째, 응봉에서 이어진 낙산(낙타산) 줄기는 도성의 좌청룡을 이루며 동대문에 이르는 줄기이다.

都城의 근간시설인 宮闕, 宗廟와 社稷은 각각 하나의 줄기를 차지하면서 서로 겹치거나 중복됨이 없다. 경복궁은 정궁으로서의 격에 걸맞게 주산인 북악산(백악산)의 정기를 선택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창덕궁과 종묘는 북악산

93) 홍대형, 《같은책》 卷1, 서울편, 기문당, 2001년, pp.106-112

(백악산)의 좌측날개인 응봉을 선택하여 입지 하고 있으며, 社稷은 북악산(백악산)의 오른쪽 날개인 인왕산의 정기를 선택하여 입지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동국여지비고》에서도 창덕궁은 응봉아래에 있으며 북부 광화방이라 하며 창덕궁과 종묘의 주산이 응봉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창덕궁은 흔히 표현하듯이 자연지형을 가장 잘 활용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고 한다.

「동궐도」를 보면 모든 건물이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 창덕궁은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건물이 배열되지 않았다.

경복궁이 光化門에서 神武門에 이르는 축을 중심으로 정전 근정전, 편전 사정전, 침전 강녕전, 교태전 등의 모든 전각들을 늘어 놓은 것과는 달리 창덕궁은 여러 개의 축에 따라 전각들이 橫으로 배열되어 있다. 횡으로 배열하는 것은 우리나라 궁궐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경덕궁(경희궁)이나 경운궁(덕수궁)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이 배열되어 있다. 이들 궁궐은 창덕궁의 규범에 따라 이런 배치를 택했기 때문에, 보통 창덕궁은 한국적인 궁궐의 전형으로 꼽는다.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에서 창덕궁까지 돈화문로는 옛날 한양성의 도시 경관을 대표하는 市塵 장량이 연결되어 있던 곳이었다. 종로와 돈화문로가 만나는 곳에 동포도청이 있었고 비변사를 비롯하여 종부시, 돈녕부 등의 관청들이 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어서 경복궁 앞 육조거리에 비견되는 중요한 길이었다. 더욱이 이 길 끝에는 500년내내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있었으니,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금 비스듬히 놓여 있는 돈화문의 머리 위로 산봉우리 하나가 보이는데, 바로 응봉이라는 봉우리다. 이 방향은 돈화문의 방향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이 놓인 방향이 창덕궁의 첫 번째 축이다.

두 번째 축은 정전 인정전이 놓인 방향이다. 정전은 ‘受朝地處’라하여 임금 이 신하들이 賀禮를 받는 장소이다. 일상적인 집무는 편전에서 하고 정전은 그야말로 의식적인 행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창덕궁 인정전은 그 앞쪽의 인정문 밖으로 진선문과 숙장문으로 둘러싸인 사다리꼴 모양의 마당 말고는 앞뒤로 수풀이 우거진 언덕으로 가로 막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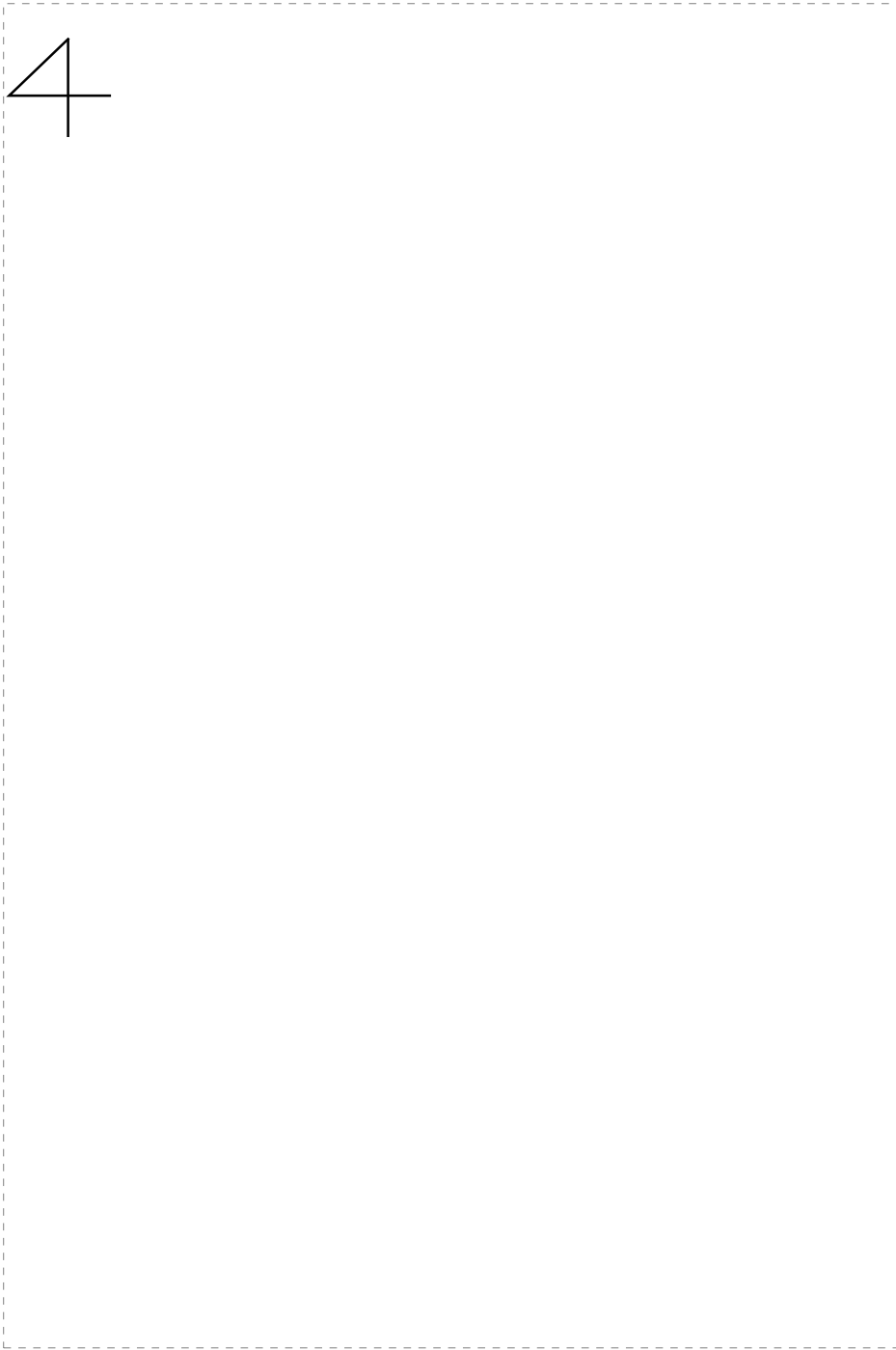


그림 17. (창덕궁의 건물 배치도)

인정전의 축은 인정전 뒤쪽으로 펼쳐지는 언덕의 가장 높은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돈화문이 멀리 응봉이 기대어 있다면, 인정전은 궁역내의 가장 높은 지점에 기대어 그 위치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축은 회정당과 대조전의 축으로써 이는 인정전과 선정전 보다 조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 돈화문의 축을 따르는 건물들은 남쪽의 진선문, 숙장문 일곽이고, 두 번째 인정전의 축을 따르는 건물들은 정전 인정전과 편전 선정전을 비롯하여 승정원, 약방, 선원전 등 정치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세 번째 축의 회정당과 대조전의 축을 따르는 건물들은 이들과 비슷한 용도의 침전 건물들이다.⁹⁴⁾

3. 昌德宮의 地形과 水系 現況

1) 창덕궁의 지형

창덕궁의 전체적인 지세는 동서보다 남북이 세장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보다는 서쪽이 높고(西高東低形), 남쪽보다 북쪽이 높은(北高南低形) 형상이다.

창덕궁의 지형적 구조는 1차적으로 응봉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맥이 능허정의 바로 위쪽에서 가장높은 정상(90m)을 이룬다. 이 봉우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창덕궁 주요 건물지역의 영역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능허정으로부터 내려온 첫 번째 갈래는 동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와 연경당과 어수당지, 애련지를 감싸 흐른다.

두 번째 갈래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희우정, 서쪽에서 봉우리를 뺏어 (표고 60.5m)능허정 정상→희우정 서쪽의 봉우리가 창덕궁 전체의 주 능선을 형성한다. 이 봉우리는 또 크게 세 개의 작은 연맥으로 분지하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내려가 주합루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두 번째의 흐름은 동남쪽으로 뺏어 대조전의 후면을 이루며 후산의 역할을 한다.

94)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창덕궁 종묘 원유》, 문화재청, 2002, pp.3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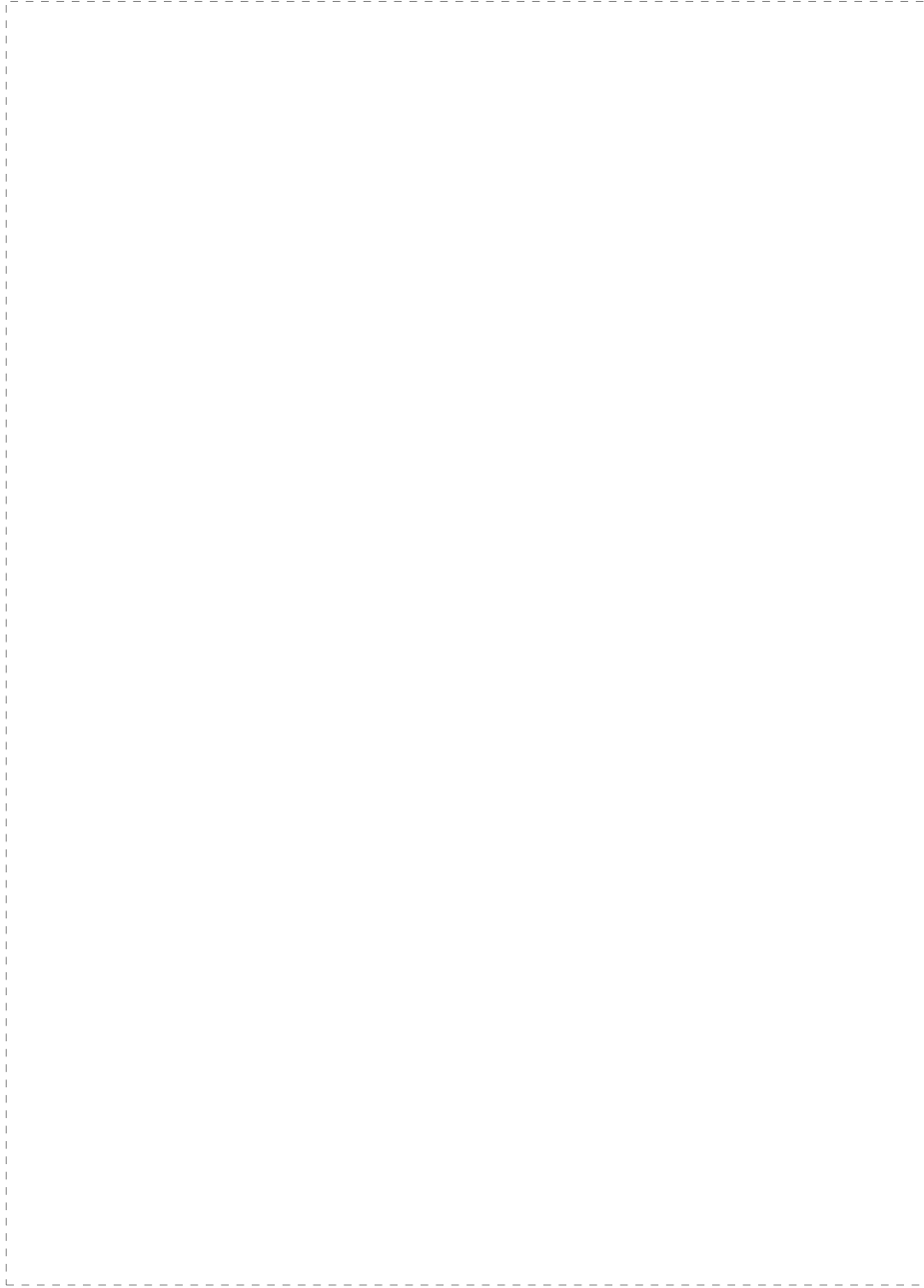


그림 18. (창덕궁의 지형도)

마지막의 한 갈래는 남쪽으로 내려와 인정전에 바로 뒤 작은 언덕(38m)을 이루고 있다.

창덕궁에 나타난 지형적인 특성의 하나는 주요 전각 및 원유시설과 표고와의 사이에 접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전각이 밀집한 구선원전 및 규장각지역(37m), 인정전 및 선정전(37-38m), 회정당 및 대조전(39-40m), 낙선재(37-39m)등의 남측에 위치한 전각들은 대략 표고 35-40m의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

부용정과 춘당대일원(39-41m), 주합루지역(48-52m)은 대략 40~50m 사이의 표고를 보이고 있으며, 불로문 안쪽의 연경당(45m)일원과 지당들(애련지와 어수당지 일원. 39~41m), 관람지 일원(45m)은 40~45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옥류천 지역은 대략 55~60m의 표고를 보이며, 창덕궁의 여러시설 중 가장 나중에 입지하게 되는 신선원전 지역은 50~55m의 가장 높은 표고를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의 전체적인 배치는 결국 응봉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산의 연맥을 살펴 그 연맥이 끝나는 작은 평지들을 중심으로 시설들을 입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시설을 한 곳에 배치시킬 때 수반되는 기존 지형의 파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입지하게 될 전체 시설을 몇 개의 작은 영역으로 구분짓고, 몇 개의 작고도 낮은 평탄지를 중심으로 분포시킴으로써 자연스런 배치를 보여주며 주요 전각들의 배치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⁹⁵⁾

2) 창덕궁의 水系(지표의 물이 모여서 흐르는 계통)

水系는 지표의 물이 점차로 모여서 흐르는 계통이다

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창덕궁의 자연수계는 크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온 능선을 중심으로 동쪽지역과 서쪽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온 주 능선(응봉→대보단지우측 소봉우리→능허정→주합루 좌측봉우리→대조전 후면 언덕)을 기준으로 우측의 동쪽으로는 크게 4개의 골짜기들이 형성되고 있다.

첫 번째의 골짜기는 창덕궁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옥류천 지역으로서 창덕궁 바깥에 골짜기에서 형성된 물이 옥류천 상류로 입수된다. 이 물은 청의정→태극정→곡수유배거→서요정 앞으로 계류와 폭포를 이루면서 창덕궁 밖으로 출수된다. 옥류천에서 출수된 물은 창경궁 명당수의 상류로서 역할을 한다.

95)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2002, pp.41~42

동쪽에 형성되는 두 번째의 자연수계는 옥류천에서 대보단지로 넘어가는 순환로의 중간에 형성된 작은 봉우리와 능허정의 정상 봉우리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통하여 모여든 계곡수들은 우수시 자연스럽게 관람지의 水源이 되고 있다.

세번째의 골짜기는 능허정이 위치한 정상의 봉우리에서 발원한 물들이 동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흐른다. 중간의 永川(빙천)을 거쳐서 연경당 우측을 끼고 돌아 장락문 앞으로 흘러서 어수당지를 거쳐 애련지에서 수반으로부터 떨어지는 폭포를 연출한다. 또한 이 물은 애련지의 남쪽 출수구를 통하여 불로문 옆으로 연결된 암거수를 통하여 창경궁 지역으로 출수되고 있다.

정상 봉우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능선은 회우정 좌측에서 작은 봉우리를 형성한다. 이 봉우리에서 발원한 물들은 동쪽으로 짧고 급한 골을 형성하면서 주합루 우측과 비각의 좌측사이로 흘러 자연스럽게 부용지로 입수된다. 부용지에 입수된 물은 영하당 아래쪽의 개거수로 통하여 현재의 매점지역에 위치하였던 연지로 입수되고 이 물은 담장밖 창경궁쪽으로 흘러들어간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주 능선의 좌측 서쪽수계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창덕궁 서쪽을 감싸 흐르는 대수로(明堂水)로 합류되는 체계를 보여준다. 창덕궁 북쪽의 담장밖 응봉의 아랫줄기에서 발원하는 골짜기들이 대단지의 좌측, 우측, 아래의 세 곳으로부터 흘러서 신선원전 좌측의 자연계류로 합류된다. 또 하나의 계류가 신선원전 우측 중앙고등학교와 신선원전 접합부분의 담장아래로 흘러 들어와 몽담정지로 입수 및 출수된다. 결국 신선원전의 좌측과 우측에서 흘러들어온 이 두 개의 자연계류는 북신문 안에서 합수되어 현재의 창덕궁 담장 밖으로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외삼문의 담장안으로 들어온다. 이 명당수는 구선원전과 규장각 사이를 지나 금천교 아래를 거쳐 돈화문의 우측 담장을 지나 종묘쪽으로 흘러가게 된다.⁹⁶⁾

창덕궁의 자연수계는 모두 明堂水와 溪流(옥류천), 池塘(관람지, 부용지, 어수당지, 애련지)의 수원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수문체계는 매우 과학적인데 응봉으로부터 유입된 계곡수와 호우시 발생하는 우수를 효율적으로 배수시킴은 물론 다양한 수경적요소(가두어진물, 흐르는물, 떨어지는물 등)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당의 조성 목적에는 배수와 수경으로의 활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 되었음을 알수 있게 한다.

한편 창덕궁 내에서 출수되는 물들은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96)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2002, pp.42-43

종묘(어구의물)나 昌慶宮(명당수)으로 입수되고 있어 조선시대 수문체계가 얼마나 광역적이었고 체계적이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다.⁹⁷⁾

4. 昌德宮의 世界文化 遺産

1) 세계문화유산협약의 성격

세계유산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류 역사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실천적 강제성을 띠는 것이다.

즉 전문 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이 예견되거나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을 경우 이를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회원국에게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 세계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세계유산협약은 그 유산이 존재하는 나라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을 해치지 않지만, 해당 국가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그 유산의 보호에 국제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 세계문화유산 협약에 포함된 우리나라 문화재

한국은 1995년 베를린 회의에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고려대장경》과 장경각의 3점을 포함시켰으며, 1997년에 수원 화성과 창덕궁을, 2000년 총회에서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과 경주역사지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모두 7점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3) 세계문화유산으로써 창덕궁의 가치

유네스코는 창덕궁을 건축물과 자연지형의 조화가 뛰어난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극동아시아 궁궐건축으로서 정원설계가 뛰어난 사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창덕궁은 건축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왕가의 휴식과 다양한 용도로

97)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2002, p.43

조성된 후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宗廟

1. 宗廟의 沿革과 시대별 배치 현황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 사적 제 125호 이다.면적은 56,497평 건물 정전 등 28동이며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 및 왕비의 神主를 봉안한 사당이다. 종묘는 조선왕조 건국 이래 祖宗을 받들고 효경을 숭상하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심 건물은 正殿과 永寧殿이며, 기타 부속 건물들로 구성되었다. 종묘는 원래는 정전을 이르는 말이었으며 太廟라고도 한다.

조선조 태조는 새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궁실에 앞서 먼저 종묘를 세우고, 4대조(穆祖, 翼祖, 度祖, 桓祖)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그 이후 왕의 처소인 궁궐의 위치는 여러 번 변경되었지만, 종묘의 위치는 바뀔 수 없는 것이었다. 종묘는 그 왕실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이며, 최고의 신성 공간이었다. 조선조 개국시 도성의 배치계획에서 좌향은 절대적으로 중요시되었다.⁹⁸⁾

박석을 깬 넓은 월대 위에 정면 25칸의 맞배지붕 건물이 무릇 장중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1) 宗廟는 우리나라 중요한 문화 유산이며 세계문화 유산이다

종묘(사적 제125호)의 正殿(국보 227호)은 그 당시 세계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단일 목조 건물로 가장 정제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다. 영녕전(보물제821호), 종묘 제례악(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등의 주요 문화유산이 있다. 종묘는 건물 한 칸마다 한 왕의 위패를 모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이 매우 길고 수평선이 강조된 독특한 건축형식이다. 특히 정전과 영녕전은 모두 굽은 나무기둥을 기본으로 한 전통적 목조건물 형태로 이것의 주인인 신령을 위한 건축적 산물로서 장엄함과 웅장함이 함께 느껴진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은

98) 이영환, <조선 종묘 초창시 공간원형 및 좌향연구> 《향토 서울》 제 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47

장중한 리듬과 곡조의 우아함에서 단연 돋보인다. 각 의례마다 연주되는 개국 창업의 어려움을 이겨낸 선조의 문덕을 기린 ‘保太平’과 무공을 내용으로 하는 ‘定大業’ 중심의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佾舞 등은 우리나라 전통무용의 한 갈래를 형성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종묘의 건축적인 특성과 함께 제례행사 때의 의례 음악, 무용 등은 우리나라 궁중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읽을수 있는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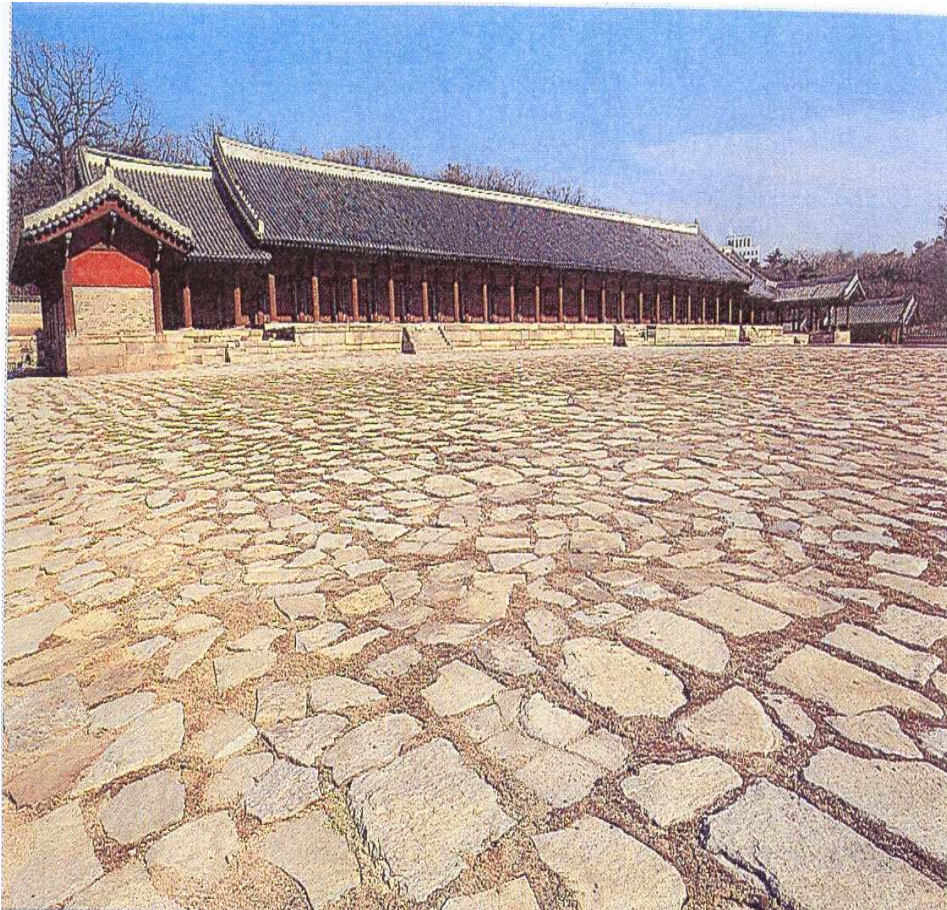


그림 19. (종묘 전경)

중세 동양 건축의 白眉 로 일컬어지는 종묘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모든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할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

99) 《민속》, 크리에이티브, 여민사, 2004년 1,2통합호, p.17

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 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되었고 2001년 5월 18일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에 세계무형 유산결작으로 선정되었다.

2) 宗廟 初創期 進行과정 分析

태조는 1394년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고 공역에 착수하여 11월에는 종묘와 사직터를 정하였다. 종묘는 12월 開基祭가 치러지고 1395년 9월에 정면 7칸의 규모로 창건되었다. 만 10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개략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각하는 처음에 工曹典書 李敏道가 글을 올려 종묘 세우기를 청하니 신축승인과 기본적인 원칙하명 下敎하기를 “天子는 7廟, 諸侯는 5廟에, 左에는 종묘, 右에는 사직을 두는 것은 옛 제도이다. 禮曹에서는 이를 자세히 참고하고 연구하여 정한 제도를 만들라”하였다.

명년 三司 左僕射 領書雲觀事 權仲和가 새 도읍의 종묘·사직 궁전 朝市에 대한 글을 올리니 왕이 書雲觀과 風水學을 하는 李陽建, 裴尙忠등에게 명하여 面勢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都評議使司 및 서운관의 吏員을 거느리고 종묘와 사직을 세울 터를 관찰하고 工作局을 설치하였으며, 龍山에 거동하여 종묘를 營建하는 제목을 살펴보고, 또 터를 닦는 것을 친히 보았다. 태조4년 1395년에 太廟가 이루어졌다.

백관이 公服을 갖추고 나와 4祖(穆祖, 翼祖, 度祖, 桓祖)이 神主를 盤松亭에 맞이할 적에 儀仗에다 鼓吹까지 갖추어 새 사당에 봉안하고 判門下府事 권중화에게 명하여 移安祭를 행하게 하였는데, 吉昌君 權近이 神廟詩 4章을 지어 올리었다.

3) 종묘의 건축에 관련부서와 인물의 역할

이 과정에 등장하는 부서나 인물은 태조 이성계, 공조전서 이민도, 예조 서운관, 도평의사사, 삼사좌복야, 영서운관사, 판문하부사 권중화, 이양건, 배상충, 길창군 권근이다.

종묘의 건축 과정에서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태조였다. 그는 정전건축의 기본원칙을 하명하고 중요한 단계마다 현장을 답사하거나 회의를 주재한다. 또 종묘 건립시의 고려할 주요한 사항들을 하명한다. 조선조 제도는 예조에

서 정하는데, 고려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옛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라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터잡기 위하여 왕은 친히 행차하는데 서운관 관원과 도평의사사가 동행한다. 도평의사사는 문화부, 삼사, 중추원의 종2품 이상되는 관원이 모여 국가 대사를 의논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1400년에 의정부로 바뀌었다. 그 당시 도평의사사의 판사는 정도전이였다. 정도전은 개국의 일등 공신으로 門下侍郎贊成事, 判都評議使司, 判戶曹事등 요직을 겸임하면서 조선개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한양 천도를 계획, 실천하여 수도건설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조는 禮樂, 제사, 연회, 朝聘, 학교, 과거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소속관청으로는 稽制司, 전향사, 전객사의 3司를 두어 사무를 두어 분담 하였다. 稽制司는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 학교, 과거, 印信, 表箋, 冊命, 천문, 누각, 國葬, 선왕의 묘회, 喪葬등을, 典享司는 연회, 제사, 제물, 飲膳, 醫樂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초창시 종묘제도는 예조 계제사를 중심으로 만들어 졌으며 소목과 서상, 당침제도, 봉사 묘수 등이 포함된다. 그 제사 집행의 소관부서는 전향사였다. 昭穆: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례. 왼편을 昭, 오른편을 穆이라하며, 天子는 1세를 가운데 모시고 2, 4, 6 세를 昭에 3, 5, 7세를 穆에 모심.

권중화(1322-1408) 공민왕 때에 급제하여 태조 2년에 삼사좌복야로서 영서운관사를 겸임하였다. 그 뒤에 領三司事를 거쳐 判門下府使가 되었다. 태종 때는 領議政府使가 되었다. 그는 古事에 밝아 政事의 고문격이었으며, 의약, 지리, 卜筮에도 통하였다. 권중화는 먼저 새 도읍의 도시골격에 대한 글을 올렸고, 그 글에서 종묘위치가 제안되었다. 이에 태조는 그 면세를 보도록 서운관에 지시하고, 태조가 직접 백관들과 현장을 답사하여 터를 최종적으로 잡았다.

조선은 개국초에 고려제도를 따라 書雲觀을 두었다. 이 부서는 천문, 지리, 曆數, 占算, 測候, 刻漏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태조는 터가 결정되고 나서 서운관과 풍수학을 하는 이양건, 배상충에 面勢를 보도록 하였으며, 임금은 도평의사사 및 서운관의 관원을 거느리고 종묘 세울터를 관찰하였다고 하였다. 이양건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서운관원이 아니라 당시의 풍수 대가였던 것 같다. 이상의 고찰에서, 경도 설계안을 제출한자, 종묘 터의 면세를 살펴보고 임금을 동행하여 터를 관찰한 사람은 서운관 관원이었다. 그리고 이양건, 배상충은 풍수

학을 하는자로 추정된다. 서운관원과 풍수가들은 경도내에서의 종묘위치와 그 좌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묘 건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풍수지리적인 접근태도가 필수적이다.¹⁰⁰⁾

종묘를 도성에 배치한 원칙은 고대 중국의 도성 제도를 근거하고 있다. 周나라 왕실의 관직과 공업 행정 및 營繕 제도를 기록한 《周禮》〈冬官考工記〉에 종묘는 도성 내 왼편인 동쪽, 사직은 오른편인 서쪽에 둔다(左廟右社)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주례》의 배치 원칙에 따라 조선시대 한성의 종묘는 정궁인 경복궁의 왼쪽 즉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반대 방향인 서쪽에는 社稷壇이 배치되었다.

종묘는 태조3년(1394년) 8월에 그 지을 터를 살폈고 9월에 坎方(정북방향)의 산(창덕궁 뒤의 응봉)을 주맥으로 하는 壬座丙向한 종묘 터를 확정하였다. 그해 12월에 짓기 시작하여 다음해(1395년)9월에 완공이되어 개성에서 추존 4대의 신주를 옮겨 모셨다. 완공 당시에는 정전(신문, 동문, 서문포함)과 功臣堂, 神廚, 享官廳, 齋宮이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다. 완공이후 태조는 종묘 남쪽에 인공으로 산을 만들어 虛한 곳을 보완하였으며, 태종은 제궁을 지었다. 또한 태종 7년(1407) 2월에 종묘 남쪽의 假山을 증축하였으며 정전의 동서 행랑을 지었고, 창건 당시 정전 담장 밖에 있던 공신당을 담장 안 동쪽 계단 아래로 옮겨지었다.

종묘 남산 假山 밖으로 담을 둘러 쌓은 때도 태종 시절이었으며 종묘에 北門을 만들어 창덕궁 동남 협문으로 통하게 한것도 태종 때의 일이다. 그리고, 세종3년(1421)에는 정전 바깥 서쪽 방향에 別廟인 永寧殿을 지어 그곳에 신주를 모시기 시작하였다.¹⁰¹⁾

선조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종묘의 역대 선왕의 위패를 받들고 서경으로 몽진하였다. 종묘 경내에 주둔한 왜군은 한밤중 병사들이 이유도 없이 변사하는 이변이 생기자, 이는 조선왕조 선왕의 신령때문이라 하여 불태운다.

선조26년(1593), 왜군의 퇴각으로 한양으로 돌아온 국왕은 선대왕의 영의정 沈連源의 집을 종묘로 삼고 위패를 봉안한 후, 선조 41년(1608) 정월부터 종묘의 재건을 한 끝에 5개월 후인 광해군 원년 5월에 준공을 보았다. 이때, 임진왜란 전에는 10칸이었던 정전을 11칸으로 확장하고, 영녕전으로 중건하였다. 그후 영조 2년(1726)에는 정전 4칸을 증축해서 15칸으로 넓히고, 정조 2

100) 이영환, 〈같은논문〉, 《같은책》 제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p.50~53

101) 이덕수, 《같은책》, 대원사, pp.494 - 495

년(1791)에는 공신당을 재건하였다.

현종 2년(1836)에는 정전 2간을 다시 증축하여 17간으로 넓히고, 그 후 영녕전을 증개축 하여 본당 4간, 동서 4간씩 협실을 달았다.

현재의 정전은 19室 19間이고, 영녕전은 16室 16間으로 현종대 이후 증축된 것이다. 오늘날, 정전과 영녕전을 포함하여 종묘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음에는 현재의 정전만을 종묘라 칭하고,世宗대가 되어 종묘부속의 別廟를 세우고 이것을 영녕전 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녕전과 구별 하기 위한 호칭이다.

조선시대에는 4대조와 5대조 이상의 先祖가운데 중흥의 공적이 있는 왕과 왕비만을 정전에 모시고, 태조의 4대조와 5대조의 선조가운데 정전에 모셔지지 않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그 왕비는 영녕전에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정전에는 태조를 시작으로 공덕있는 왕과 왕비등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등 49위의 신주를 모시고 있으며, 영녕전에는 16위의 왕 (의민황태자 즉 영친왕포함)과 18위의 왕후등 모두 34위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다. 한때 폐위되었다가 숙종때복위된 단종의 신주는 영녕전에 모시고 있으나,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정전과 영녕전 어디에도 봉안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전의 남쪽으로는 역대의 공신 83위의 위패를 모신 공신당이 있다. 오늘날 종묘에 남아있는 건물로는, 정전과 영녕전 외에 전사청, 재실, 향관청 등이 있다.¹⁰²⁾

2. 永寧殿의 제도

종묘 본전 서쪽에 있는 영녕전은 正殿 4간에 西夾 6실, 동협 5실, 도합 15室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본전 19실에는 태조이하 27대 순종에 이르는 19임금 및 그 왕비의 신주가 昭穆의 순서대로, 곧 왼쪽 昭편에는 태조를 중심으로 2세, 4세, 6세등 짝수에 속하는 신주가 모셔져 있고 오른쪽인 穆편에는 3세, 5세, 7세등 홀수에 속하는 신주가 모셔져 있다. 조선왕조 27임금 중에서 정종, 문종, 단종, 예종, 인종, 명종, 경종 및 영친왕의 신주는 영녕전에 모셔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녕전 정전 4실에는 태조의 高祖가 되는 목조이하 익조, 도조, 환조 등 4조 신주가 모셔져 있고, 서협 6실에는 서편으로부터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인종의 순서로 동협 5실에 역시 서편으로부터 명

102)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pp.223 - 224

종, 元宗, 경종, 眞宗, 莊祖 및 영친왕의 순서로 그 신주가 모셔져 있다. 이로써 영녕전에는 태조의 위 4조와 그妃를 비롯하여 본전에 모시지 않은 왕 및 왕비, 그리고 왕으로 追尊된분 내외분의 신주를 모시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同堂異室은 1묘 1신주를 봉안하는 것을 말하며, 同堂異室은 한 건물안에 여러묘실을 두는 것을 말한다. 조선조에서도 동당동실제를 이상적인 묘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제도가 기능적으로 많은 신위를 모시는데는 한계가 있어 동당 이실제를 선택하였다.

종묘 건축에 정통적인 배치 방법은 前廟後寢이다. 이는 군주의 거주처인 궁성의 배치 형태인 全部는 朝, 後部는 寢을 배치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죽은 조상을 공경하려는 마음에서 생시의 거주처와 동일한 형태로 묘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廟는 신주를 봉안하는 장소이며, 종묘 건축군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寢은 묘의 후부에 위치하며, 궁전의 침 생활을 모방하여 산 사람의 寢처럼 설치되었다. 조선 종묘에는 略式으로 동일건물내에 전묘 후침의 공간을 조성하였다.¹⁰³⁾

3. 宗廟의 造園

1) 종묘의 위치

종묘의 지세를 보면 坎山이(창덕궁의 主山 : 鷹峰)주산이며, 좌향은 壬坐丙向이다.

종묘는 위패를 봉안하는 神宮이기 때문에, 제왕이 국경을 담당하는 국가는 다른 지형을 택한 풍수상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양택의 왕궁은 전방이 열리지 않으면 안되나, 음택인 신궁은 그 穴을 둘러싼 형국이 되어있는 곳을 명당이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종묘는 내백호(우), 내청룡(좌)의 지세가 정전과 영녕전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그 에워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1398년(태조7년 2월)에는 종묘의 앞에 산을 쌓고 그것도 충분치 않다고 하여 1409년(태종9년 3월)에 더 크게 쌓았다. 역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길하다고 하는 득수법에 기초하여 부동의 산을 음으로 보고, 흐르는 물을 양으로 보아 1443년(세종25년 4월) 종묘의 경내에 연못을 팠다.

103) 이영한, <같은논문> 《향토서울》 제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p.64 - 65

정전과 영녕전의 제례에 사용되는 채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神殿에 올리는 石清水가 각각 설치되었다. 내청룡과 내백호 끝에서 명당수가 신전의 남으로 흘러가고 있다.

종묘는 神宮이기 때문에 화계를 설치한다든지, 정자, 누각 등을 건립한다든지 괴석, 꽃나무를 배치하는 화려한 정원을 조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세가 드러나거나 지세가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의 나무는 엄격히 보살피었다. 특히 정전과 영녕전에 이르는 판석을 덮은 神道와 御道는 종묘의 자연 그대로의 공간안에, 선명하게 인공의 질서를 세우고, 정전앞에 판석을 깎아 넓은 마당은 정전과 마찬가지로 장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¹⁰⁴⁾

(1) 宗廟의 坐向

현재 종묘는 정남에서 西로 22도의 向을 갖는다. 17세기의 「宗廟全圖」에는 癸坐丁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좌향은 정남을 기준으로 서로 7.5 - 22.5도의 범위를 포함하는 向이다. 현재의 방위와 문헌상의 방위는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초창시 기록인 「태조실록」에는 궁궐과 같이 壬坐丙向으로 정하였다고 하였으니 「종묘전도」에 기록된 向은 서로 상이하다.

초창시 문헌에 나오는 방위는 ‘남향과’ ‘壬坐丙向’이다. 남향은 4방 개념이고, 임좌병향은 24방위 개념에 의한 서술이다. 4 방위에서 남향은 1방위가 90도의 범위를 가져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범위를 포함한다. 24방위에서 1방위는 15도이다. 24방위에서 정남 방위는 子坐 午向이다. 이 좌향은 정남을 기준으로 좌우로 7.5도의 범위를 포함한다.

종묘 건립에는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들은 그 면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터잡기의 좌향을 결정하였다. 이들의 작업에서 방위는 기본요소이며, 정확성과 치밀함을 요한다.

풍수가들은 터를 볼 때는 ‘남향이다’ ‘서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터에 건물의 좌향을 잡을 때는 보통 24방위를 사용하여 ‘坐向’이라고 한다. 이처럼 좌향은 정확해야 한다. 초창시 방위인 임좌병향과 현재의 방위인 계좌정향은 각각 정남향인 子坐 午向의 바로 우측방위이다. 즉 이들 방위는 자좌오향의 서로 반대 방위이다. 이렇게 볼 때 계좌정향은 문제가 있다. 절대적 권위를 가

104)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pp.224 - 225

저야 할 大祠 공간이 굴곡된 진입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좌우 대칭으로 절대적인 위계를 가진 종묘 영역으로의 진입이 직각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약35도)로 틀어져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입부의 지세인 임좌병향에 순응하여 정전의 좌향을 壬座丙向으로 할 때에, 예제의 근본 성격인 바른 질서는 건축적으로 구현 될 수 있다.

현재의 등고선을 분석하여 원지형을 추정하여 복원했다. 이터의 소형국을 분석하면 남향한 주맥은 이 터에 이르러 중앙에 우뚝하게 서 있고, 그 좌우로 줄기가 뻗어나가 이를 둘러싸고 있다. 중앙의 우뚝한 곳이 입수이고 그 좌우 측의 구릉이 좌청룡, 우백호인 것이다. 계곡으로 보면 Y자형이다. 입수는 남향이며, 소형국은 정확히 정남에서 동으로 13도 치우쳐 열려져 있다. 이를 24방위로 보면, 바로 壬座丙向이다.

이 형국에 현재의 위치처럼 癸坐丁向으로 배치되었을 때, 풍수지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태조 代에 종묘는 확장개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건물 칸수의 증가나 태실 칸 크기의 확대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임진왜란으로 종묘가 불탄후 종묘 재건축 과정에서 종묘공간의 좁은 관계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으로 좌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 된다.

癸坐丁向은 입수와 좌청룡, 우백호의 소형국을 거스르는 좌향이 된다. 즉 입수가 옆으로 새어나가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모호해 지거나 없게 된다. 壬座丙向으로 앉게 되면, 입수를 등지고 있어 백두대간으로부터 내려온 氣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이를 보호하고 있어 잘 보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종묘는 왕의 사당이니 궁궐과 같이 해야 하였을 것이다.

(2) 假山(裨補風水)

태조 7년(1398) 종묘 남쪽에 造山을 하였으며, 태종 9년(1409년)에 종묘 남쪽에 假山을 증축하였다고 한다. 태조 代에는 산을 만들고 11년 후인 太宗代에 그를 더 높였다는 것이다. 假山은 흙을 쌓아 만든 인공 산으로 일반적으로 地氣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다. 조선조 도성을 만들때에 도성 水口안과 혼련된 동북쪽에 가산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곳은 물이 많고 氣가 흩어지는 곳이었다. 氣를 補하기 위하여 가산을 쌓은 곳이다. 종묘 영역에서 假山 한 곳은 右白虎에서 위로 둔더진 곳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지형을 보면 左靑龍이 우백호보다 강하게 되어 있는데, 원지형은 그 정도가 더 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가산은 壬座丙向의 지세를 보강하여 入首를 균형있게

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¹⁰⁵⁾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종묘 건축의 상부 목구조가 전부 소실되었다. 그 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옛제도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재건된다. 즉, 정전의 칸 크기가 초창시의 크기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전의 전면 1칸 크기는 3.7m 내외이다.

이 크기를 초창시 정전 전면1칸에 대입하여 영역 전체의 크기를 산정한다면 그 크기는 동서 73.24m, 남부 83.94m이다.¹⁰⁶⁾

2) 종묘배치와 건축물

종묘는 자연지세에 순응하며 어울리게 건축물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건물을 구성하는 배치의 축을 통일시키지 않고 각 건물별 개별 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지의 남쪽 끝에 자리한 外대문인 종묘정문을 들어서 명당수다리(지금은 없음)를 건너면 정전에 이르는 주 도로가 남북으로 길게 나 있고, 오른쪽으로 난 첫 번째 갈림길인 향로를 따라 들어가면 望廟樓, 香大廳, 恭愍王神堂이 있는 일곽에 닿는다. 망묘루는 제왕때 왕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향대청은 종묘에 사용하는 향축과 제사 예물을 보관하고 제향에 나갈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고, 공민왕 신당은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을 위하여 종묘 창건시에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이와는 별도로 外대문에서 시작되어 북으로 곧장 나 있는 주 도로는 거칠고 널찍한 돌의 높낮이가 다르게 凸자형으로 깔려 있는데 가운데길은 높고 좌우의 길은 낮게 3조의 길로 되어 있다. 가운데 높은 길은 신향로이고 동측의 것은 御路 서측의 것은 世子路이다. 신향로는 정전 신문을 통해 묘정월대에 난 신로에 이어지고 어로와 세자로는 御肅室 일곽에 닿는다. 어숙실은 齊宮, 御齊室이라고도 한다. 어숙실 일곽은 왕이 목욕재계하며 의복을 정재하여 세자와 함께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던 곳인데, 원래 중앙의 뜰을 중심으로 북으로 어재실, 동으로 세자재실, 서쪽으로 御沐浴廳이 있던 곳이다. 어숙실 서북측으로 종묘, 정전이 위치하는데, 제향 때 왕과 세자는 어숙실 서협문으로 나와 정전 동문을 통해 들어가서 각각 殿下版位와 世子版位에 이

105) 이영한 <같은 논문> 《향토서울》 제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p67-69

106) 이영한, <같은 논문> 《같은책》 제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72

르게 된다.

정전일곽은 네모나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묘정을 중심으로 남쪽 담장 중앙에 神門, 동, 서쪽에 제례 때 제관이 출입하는 동문, 그리고 악공과 종사원이 출입하는 서문이 각각 있다. 神門을 들어서면 동서 109m, 남북 69m가 되는 넓은 묘정 월대가 펼쳐 있다. 이 공간은 제관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행하며 대기하는 공간으로, 제례악을 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묘정 월대의 중앙에는 신도가 상월대 아래까지 나있다. 神路 동쪽에는 전을 칸 방석 모양의 祔謁位版을 두었고, 동문밖과 동월랑 남쪽아래 묘정에는 사각형으로 된 전하판위와 세자판위가 각각 자리를 달리하며 위치하고 있다. 묘정월대는 장대적으로 쌓아 끝을 두르고, 그 윗면에는 박석을 깔았고, 곳곳에 차일고리가 박혀있다.

상월대 북쪽에 위치한 기단위에 정전건물이 서 있는데, 정전은 매 칸마다 신위를 모신 19칸, 좌, 우의 협실 각 3칸, 그리고 협실 양끝에서 남으로 직각으로 꺾여 나온 동, 서월랑 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묘정 월대 남쪽아래에는 동, 서에 공신당과 칠사당이 각각 서 있고, 동문 북으로 守僕房, 담장 밖 서북쪽으로는 典祀廳과 御井이 있다. 그리고 정전 서남쪽 밖으로는 灑工廳이 있고, 정전 서쪽 북으로 영녕전 일곽이 있다. 공신당은 역대왕의 공신이 신위를 모신곳이고, 칠사당은 궁중의 계절별 일곱 小神 위패를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건물내부에 모시고 제향하던 사당이다. 수복방은 제사를 담당하는 노비와 관원들이 거처하는 방이었고 전사청은 종묘제사에 사용하는 祭需의 진찬 준비를 하던 곳이다. 악공천은 종묘 제례때 奏樂하는 악공들이 악기를 준비하고 대기하던 곳이다.

별묘인 영녕전은 네모나게 담장을 쌓아 의례를 행할 수 있는 묘정공간을 형성하고 남쪽 담장에는 神門을, 동쪽과 서쪽담장에는 각기 동문과 서문을 두어 제례시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영녕전도 정전과 마찬가지로 묘정 월대 중앙에 남북으로 신로가 나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영녕전 건물은 중앙에 정전 4칸, 좌, 우에 각각 협칸 6칸씩을 두어 모두 16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 우 협실 양 끝에 덧붙여서 동월랑과 서월랑 5칸이 각각 있다. 영녕전 서남쪽 밖으로는 영녕전 악공청이 있다.¹⁰⁷⁾

107)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장경호외, 《종묘》, 한국의 古宮 5, 열화당, 1986년,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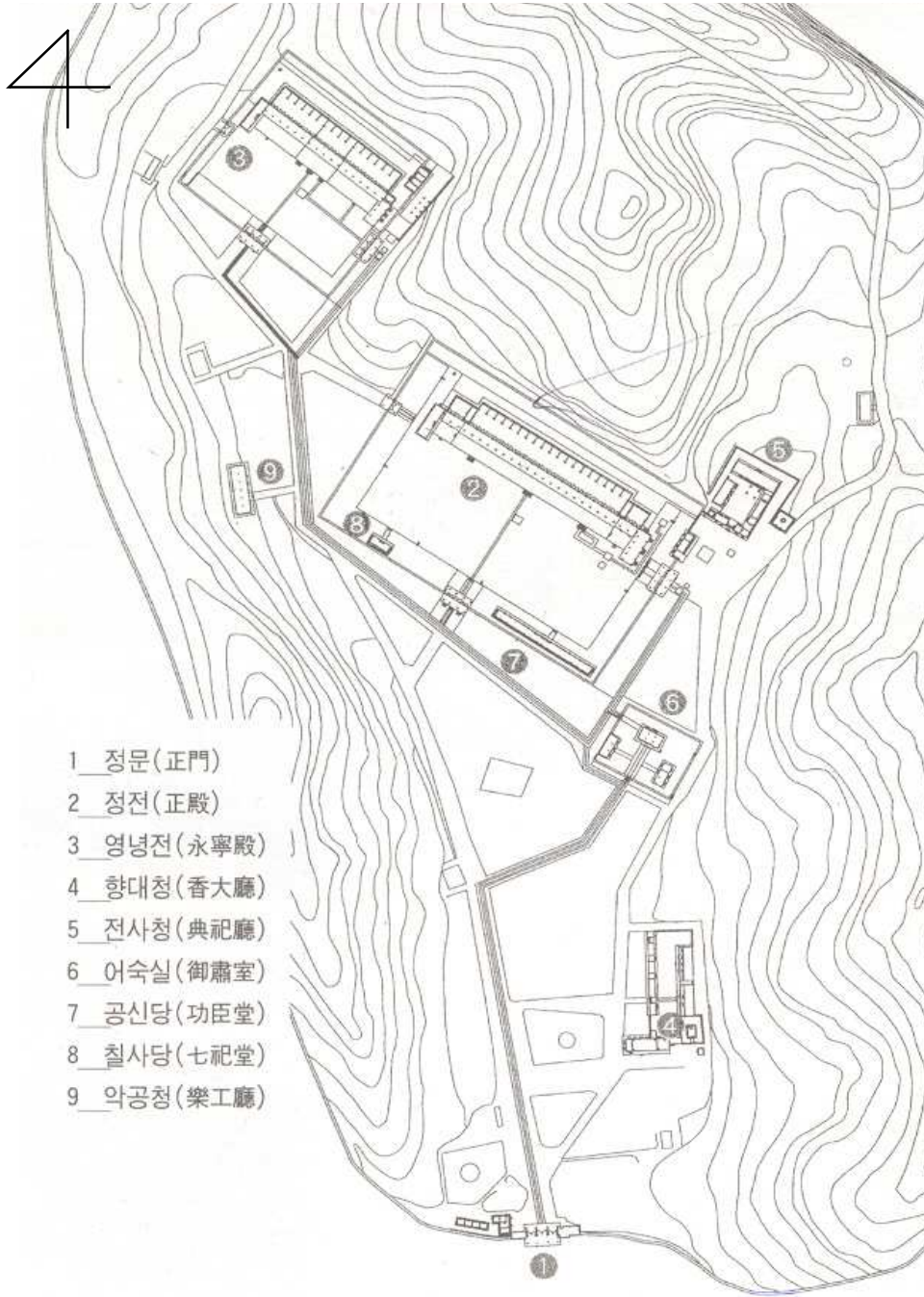


그림 20. (종묘 주요 건물 배치도)

3) 종묘 건축물의 특성

종묘는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왕실 사당은 건물 한칸에 한 임금 신위만 모신다. 따라서 이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종묘는 7칸으로 지었다. 그러나 이미 세종때 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별도 건물인 영녕전을 곁에 지었는데 16세기 말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종묘 정전을 11칸으로 늘렸다. 후대에 가서 이 건물은 결국 19칸으로 길게 늘어나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종묘는 건물을 이렇게 단순히 옆으로 늘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증축에 의해 생기는 건축 전체의 분위기를 적절히 조종하여 하나의 장대한 제사공간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종묘의 뛰어난 조형상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이 건물의 한칸한칸은 지극히 단순한 구성을 한다. 아무장식을 가미하지 않은 간결소박한 조형이다. 각 칸의 평면구성은 우선 전면 반칸을 기둥만 세운 개방된 공간으로 꾸며 제사 때 편관이 제례를 치르는 공간으로 둔다. 그 뒤에 육중한 판자로 된 문이 설치되고 실내에는 간소한 탁자가 하나 놓여 그 위에 위패를 모신 작은 상자를 둔다. 이런 간결한 조형이 옆으로 길게 반복되면서 하나의 엄숙한 경관을 만들어 낸다. 특히 건물 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독립해서 서있는 20개의 굵은 기둥의 도열은 숨막힐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엄청난 크기나 요란한 장식이 아닌 가장 단순한 요소의 반복이 주는 조형의 힘이 여기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건물 앞에는 제사시 많은 사람들이 참배와 음악, 그리고 춤을 추는 장소로 넓은 월대를 만드는데 이 월대도 제사공간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북돋아 준다. 월대는 박석이라고 하는 거칠게 다듬은 얇은 돌판이 넓디 넓은 바닥에 깔아 화강석 석재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잘 나타낸다. 또 월대 전체는 가운데를 약간 볼록하게 곡면으로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조정도 빼놓지 않았다. 화강석을 다루는데 있어 달관한 경지에 이른 석공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¹⁰⁸⁾

종묘 정전과 영녕전은 묘당 건축의 특색에 따라 전면에 텃칸이 나있고, 나머지 3면은 벽체로 감싸 내부를 어둡고 조용한 공간으로 만들어 신성함을 높이고 있다. 텃칸은 앞쪽으로 벽체가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묘정으로 띄여있고, 뒤쪽으로는 벽체에 난 문을 통하여 신위가 모셔진 건물내부로 출입하게 되어

108)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0, pp.162~163 재인용

있다. 문은 각 칸마다 두짝씩 달렸는데, 그 맞춤이 정연하지 않고 약간 뒤틀려 있다. 내부는 벽체로 칸막이를 하여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칸마다 신주를 모시는 감실을 뒷벽에 두었다. 건물 즉, 당은 같으나 실은 달리하는 ‘同堂異室制度’이다. 정면으로 난 문옆으로는 각 칸마다 좌, 우에 儀仗具를 세워두었다.

종묘 정전 감실은 서쪽을 上으로 하여 제 1실인 서쪽 첫 번째 칸에 태조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동쪽으로 차례로 태종(3대), 세종(4대), 세조(7대), 성종(9대), 중종(11대), 선조(14대), 인조(16대), 효종(17대), 현종(18대), 숙종(19대), 영조(21대), 정조(22대), 순조(23대), 문조(익종, 추존), 헌종(24대), 철종(25대), 고종(26대), 순종(27대)과 각 왕의 비를 합쳐 모두 49위의 신위가 19감실에 모셔져 있다. 영녕전 역시 중앙의 정전과 좌, 우 협실 서측을 각기 上으로 하여 정전에는 목왕, 익왕, 도왕, 환왕, 서협실에는 정종(2대), 문종(5대), 단종(6대), 덕종(추존), 예종(8대), 인종(12대), 동협실에는 명종(13대), 원종(추존), 경종(20대), 진종(추존), 장조(추존), 영왕과 비를 합쳐 모두 34위의 신위가 16감실에 모셔져 있다. 종묘에는 한때 폐위 되었다가 숙종때 복위된 단종의 신위는 영녕전에 모셔져 있는 반면,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정전과 영녕전 모두에서 제외되었다.

‘신주를 만드는 것은 신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있게 하는 것이다’고 한다. 신주가 없으면 신이 의지할 곳이 없다. 제사를 지내자면 반드시 신주가 있어야 하고, 신주가 있다면 반드시 사당인 묘가 있어야 한다. 종묘의 경우, 신주를 모신 신실, 즉 감실에는 중앙에 神榻, 그 뒤에 神主櫨, 그 좌, 우에 각각 채장. 보장을 배설하였다. 감실이 천상에 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감실 전면 상부는 雲宮으로 만들었다. 현재 감실 주위에는 사방과 천정으로 황색의 網巾帳을 쳤으며, 전면에는 따로 황색의 外面帳을 쳐서 마치 생전의 침상과 같이 帳房으로 꾸몄다. 감실 자체가 오행의 중심이라는 사고에 따라 황색으로 하고 있다. 신주장에는 서측에 왕, 동측에 왕비의 신주를 모셨는데, 신주는 《周禮》에 따라 밤나무로 만들었다. 신주장 좌, 우의 책. 보장은 죽책, 금책, 금보, 옥보등을 두었다. 각 감실사이에는 벽으로 막지 않고 받을 양면에 늘어놓아 경계를 삼았으며 문미와 신주장 상부의 蓋에는 극도로 엄격하고 단아한 단청을 베풀었다.¹⁰⁹⁾

109)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p.244

4) 종묘 건축의 건축미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올린 곳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 가장 정제되고, 장엄하고 신성한 건물중 하나이다. 그리고 모실 신위가 증가함에 따라 몇차례에 걸쳐 기존 건물 측면에 이어 증축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건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건축격식과 공간형식을 갖게 되었다. 종묘와 같은 제례건축에서 중시되는 것은

첫째는 모셔진 신위를 위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례예법에 맞는 건축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머무의 공간과 오가는 움직임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정전과 영녕전 공간은 극히 정밀하고 엄정하여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묘정공간을 들어서면 그러한 공간 감을 느낄 수 있다.

건축의 중심인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진 감실까지 제례자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담장-정문-어로-어숙실-동문-묘정-뒤틀간-실내 어둠의 공간-감실등 여러겹의 통로와 영역을 지나 도달해야 하는 통과예를 거쳐야 한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관은 제친 걸음으로 걸어도 안되지만 돌아가지도 안된다. 이를 반영하듯 어로에는 거친 박석을 깔아 느리게 걷도록 하였는가 하면, 종묘 정문에서 시작되어 어숙실, 그리고 정전, 영녕전까지 이르는 어로는 지름길로 가듯, 곧바로 내다는 듯, 담장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 긴장감을 주는 배치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묘는 한국건축의 일반적 특성인 비대칭적 대칭배치를 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개별적으로 대칭을 벗어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로서, 정전의 동. 서월랑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배치를 하고 있으나, 구 세부처리는 그렇지 않다. 동월랑은 트여 있으나 서쪽 것은 벽으로 막혀 있어 대칭속에서 비대칭을 읽게 한다. 뿐만아니라 종묘는 대칭적인 배치속에서 변화를 담고 있다. 정전 신로는 남문인 신문에서 시작되어 묘정을 이루는 하월대 계단에 가 닿아 있는데, 미묘하게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대칭인 듯하나 정확한 대칭이 아니게 처리하여 흐름을 유도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靜을 통하여 震動을 느끼게 하는 배치기법이다. 그리하여 대칭적인 묘정 월대와 기단, 그리고 지붕에 동적인 기운이 감돌게 한다.

또한, 종묘건축에는 의례적인 위계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정전과 영녕전 건물의 기단과 처마와 지붕은 위계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고 있다. 정전과 영녕전 신실과 좌.우협실, 그리고 동. 서월랑 지붕, 처마와 기단 윗면의 높이는 신실, 협실, 월랑으로 가면서 작고 낮게 되어 있다. 특히, 영녕전 후면 담장 중앙부는 양 옆담장보다 높게 층단으로 쌓여있어 영녕전 중앙부분 지붕이 좌.우협실보다 높은 것과 호응한다. 또, 묘정 월대는 단의 일조인데, 장식없이 제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만 설정되어 있으면서 지상으로부터 단을 높여 다른 공간과 성격이 다르게 하여 감실이 있는 천상으로 이어지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궁궐의 정전 뜰에는 바닥에 돌을 깔고 단을 배설하지 않은 것과 대조가 된다. 마찬가지로 제관이 출입하는 동월랑 계단에는 무지개처럼 휘어 오른 소맷돌에 구름을 조각하여 그 위의 감실이 구름위 천상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묘정에 면하여 반복되며 배열된 기둥은 건축공간적으로 기단과 지붕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한편, 전면의 월대와 묘정공간이 남쪽의 신문에서 신실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이 기둥열은 지상의 묘정 월대와 하늘의 지붕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처마 아래로 깊게 떨어지는 그림자로 반 음영의 공간을 만들어 건물일곽이 유현한 분위기가 감들게 한다.

종묘는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려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종묘의 모든 건축처리는 극히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다. 묘정 월대와 기단위의 건물은 신로를 표시하는 선, 몇 개의 판위, 그리고 장식이 배제된 건축구조등과 감히 생략된 조형과 단순한 구성을 하여 종묘에 구현해야 할 건축의도를 철저하게 성취하고 있고, 단청도 극도로 절제되었다. 신로, 월대, 기단, 담장등 꼭 있어야 할 것만 있고 그 속에 필요한 공간만 담고 있다. 이러한 구성, 구조, 장식, 색채의 간결함과 단순함은 종묘건축을 상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그리하여 옆으로 땅끝까지 길게 펼쳐지는 듯한 묘정 월대는 안정을, 무한하게 반복되는 듯한 기둥의 배열은 연연세세 끊이지 않을 왕위의 영속을, 중력을 거부하며 수평으로 하늘 끝까지 펼쳐지는 듯한 지붕은 무한을 연상케 한다.

신위를 모신 정전과 영녕전과 건물이 들어선 담장안에는 나무와 화초를 일체 심지않은 반면, 그 주변에는 특별히 선택된 나무들만 심었다. 시선이 밖으로 트이지 않게 앞으로는 가산을 만들고, 사방 주변으로는 울창하나 유현한 숲을 조성하여, 묘정에서만 공간이 하늘로 통하게 하여 하늘이 내린 기운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 신기가 충만하게 머물도록 하였다. 묘정 월

대에 서면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도 여기에 이러한 영적인 힘이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¹¹⁰⁾

4. 宗廟의 地形的 特性

일제시대때 창덕궁과 종묘를 가르는 신작로를 뚫어 지금은(울곡로길) 나뉘었지만 창덕궁과 후원, 창경궁, 종묘는 원래 하나로 연결된 영역이었다.

백두대간이 한강을 만나 한강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흘러들어간 연맥이 바로 한북정맥이고, 한북정맥은 북한산을 거쳐 백악산에 멈추어서 동쪽으로 응봉과 타락산을 형성하고, 서쪽으로는 인왕산에 이르며 서쪽의 내국을 형성한다.

북악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북정맥의 줄기가 동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봉우리를 이룬 것이 바로 응봉이 된다. 이 응봉은 창덕궁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창덕궁의 주산이 되고 있다.

응봉의 줄기가 창덕궁을 거쳐 남쪽으로 연맥을 이어가니 이 창덕궁 연맥이 바로 종묘 입지의 배후가 되는 산줄기이다.

응봉과 창덕궁을 거쳐 내려온 산줄기에 입지한 종묘는 창덕궁을 이어내려온 연맥이 남동쪽으로 나지막한 봉우리를 이루며 대략 20~45m의 표고에 위치하고 있다.

창덕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산세가 하나는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 내려가 주능선을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북서쪽에서 활처럼 휘어 서남쪽으로 휘어감아 내려가는 형세이다.

북-동남의 줄기와 북-서남의 줄기가 마치 양옆에서 감싸 아늑한 형국을 형성하고, 이 양쪽 줄기의 가운데에 세장형의 좁은 평탄지가 남에서 북으로 길게 형성되고 있다. 평탄지가 북서-남동향을 이룸에 따라 종묘의 주요 건물들의 입지는 자연스레 북동에 기대어 서남향을 마주하는 향을 취하게 된다.¹¹¹⁾

110)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pp.245-246

111)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문화재청, p.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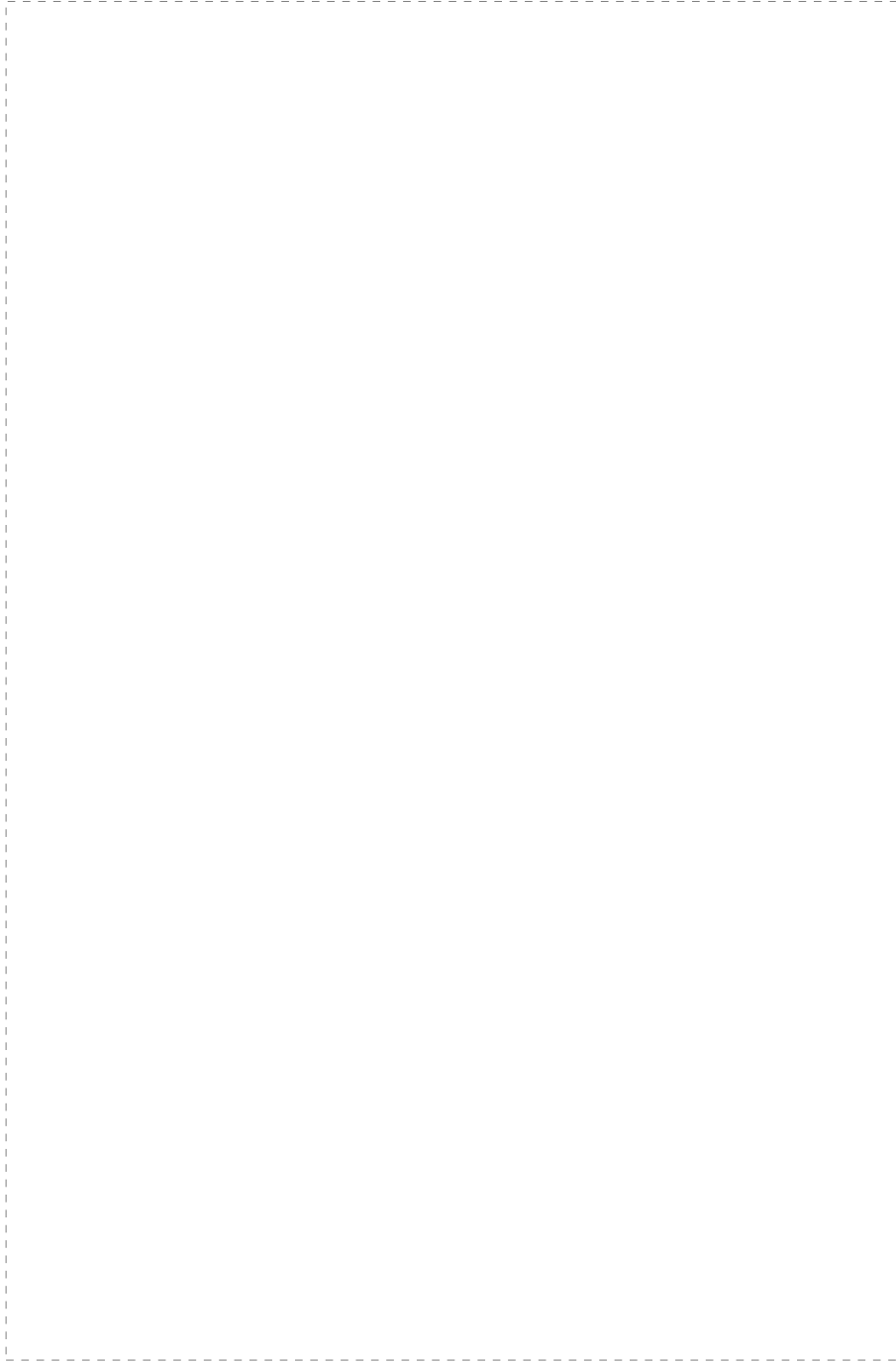


그림 21. (종묘의 지형 및 수계 분석도)

5. 宗廟의 機能과 空間 特性

1) 朝鮮初期의 祭禮空間 分析

(1) 전통 死生觀

부모를 섬기는 3禮는 “生則養 歿則喪 喪則祭”라 하였다.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장사를 지내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인류의 근본으로 하였다.

고대로 인간은 魂과 魄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어 왔다. 죽음이란 이 魂과 魄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魂氣는 올라가 하늘로 돌아가고, 魄氣는 내려가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하늘로 올라간 魂氣를 일컬어 神이라 한다. 인간은 죽어서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이신의 혼백을 모시는 행위는 일정한 격식에 의하여 치루어 졌는데 이것이 喪禮와 祭禮로 구성된다. 靈魂을 모시고 제사지낸 것이 廟이다. 屍身(魄)을 장하는 곳이 墓이다.

(2) 喪 祭禮 건물 및 신주

왕과 왕후의 상례, 제례 장소는 殯殿-魂殿-宗廟의 순서로 제공된다. 빈전은 초종에서 발인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시신과 초혼된 옷옷, 魂帛을 두는 곳을 지칭하는 곳이다. 장례로, 시신(魄)은 墓에, 혼은 반곡의 절차를 거쳐서 신주 형태로 廟에 모신다. 이 廟가 혼전이다. 혼전은 왕,왕비의 국장 뒤에 종묘에 배위할 때까지 신위를 모신는 사당이다.왕이 죽으면 3년 동안 ,왕비가 먼저 죽으면 왕이 죽어 종묘에 모셔질 때까지 이곳에 모셔진다. 신주는 시기에 따라서 우주와 연주라고 명명된다.매장-小祥까지 1년간 사용하는 신주를 虞主라 하고,練祭(소상제)를 행한 뒤에 종묘의 北階上에 매안한다.小祥-禫祭까지 사용하는 신주를 練主라 한다.



그림 22. (중요 정전 평면도 및 신위 봉안도)

小祥-大祥의 절차를 거쳐 만 2년인 3년상이 끝나야 완전히 廟에 모셔지는 것이다. 練主는 담제(대상제 다음 날에 행함) 뒤에는 종묘에 부묘하여 종묘의 신주가 되는 것이다. 혼백은 빈소에 모시다가 大祥이 지난 뒤에 태워버린다.

신주는 일반적으로 周禮대로 栗木을 사용하며, 廟號, 시호, 尊號등이 기록되며 柱身과 받침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주신은 周尺(약21cm)으로 높이 1.2척, 너비 3촌, 두께 1.2촌의 크기로 된다.¹¹²⁾

(3) 본전제례

종묘 본전의 제사는 해마다 四孟朔 上旬, 즉 1월, 4월, 8월, 12월의 10일안에 올리게 되어 있었고 冬至 뒤 세 번째 되는 戊日, 곧 臘日에 큰 제사를 지내게 마련이었다. 한편 달마다 1일과 15일에 朔望祭를 올리고 正朝, 한식, 단오, 추석, 동지등 이른바 五俗日에는 약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이 법식이었다. 한편 영녕전의 큰 제사(大享祭)는 4월과 8월에 한해서 그 상순에 지내는 관례였다.¹¹³⁾

宗廟祭禮는 조선시대의 모든 제례 가운데 가장 격식이 높은 의식이었다. 그 제례의 절차는 일반적인 제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었으나 모든 행사의 하나하나 가장 정성을 들여 최고의 격식으로 치러졌다는데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곧 제례의 참가인원이나 순서, 제례때의 복식이나 진설되는 제물에서 종묘제례는 다른 어떤 제례보다 훨씬 높은 격식을 갖춘 것이었다.¹¹⁴⁾

2) 종묘기능

종묘의 정문은 外大門 또는 蒼葉門이라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三門 형식으로 맞배지붕, 홑처마, 연등천장을 하였으며 두리 기둥에 이익공 양식의 공포를 구성 하였다. 현재의 기단은 장대석 한 벌대이나, 원래는 기단이 높았고 앞면 중앙에 계단도 있었다. 일제 시대 때 도로를 조성하면서 모두 땅속에 묻힌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태종13년 1월에 종묘 앞 洞口に ‘大小官吏 過此者 皆下馬’라고 쓴 標木을 세웠다고 한다.

종묘를 구성하는 주요건물은 정전과 영녕전을 비롯하여 望廟樓, 香大廳, 恭

112) 이영한, <같은논문> 《향토서울》 제5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98, pp.55-58

113) 김영상, 《같은책》 卷1, 대학당, pp.44-46

114) 한국전통 문화연구소, 《같은책》, p.256

愍王 神堂, 御肅室, 공신당, 七祀堂, 守僕房, 典祀廳, 樂工廳등이 있다. 정전과 영녕전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들은 제례용 건물의 기능과 공간을 상징적으로 충실하게 담고 있다. 옆으로 넓게 펼쳐진 越臺는 안정을, 건물 앞면에 반복되는 기둥의 배열은 영속을, 그리고 하늘 끝까지 펼쳐지는 듯한 지붕은 무한을 상징한다. 건물 조영기법은 철저히 절제된 생략으로 일관되어 있다.

꼭 필요한 장식 이외에는 단청이나 색채 문양을 극히 절제한 것이다.

정전과 영녕전은 담장으로 둘러싸였으며, 건물이 들어선 廟廷에는 나무나 화초를 일체 심지 않았다. 반면 담장 바깥 주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다.

이는 묘정에서만 공간이 하늘로 통합으로써 하늘의 기운, 즉 靈的인 힘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¹¹⁵⁾

115) 이덕수 《같은책》 대원사. 2004. pp496 - 497

제 5 장 結 論

風水地理 理論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吉凶禍福 관계를 說明하는 이론이다. 풍수지리의 이론적 토대는 《주역》과 〈음양오행설〉이며 풍수지리 이론은 風(공기), 水(물), 地(땅)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활에 이용하려는 지혜의 하나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적 구조는 대체로 龍, 穴, 砂, 水로 구분하며 이 네가지 요인을 分析하는 방법은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등이다. 이와같은 風水地理 理論은 漢陽 定都, 都城, 宮闕, 그리고 傳統建築物 등이 풍수지리적 이론에 의하여 造營되었다.

한양 定都에 있어서 특징을 보면

첫째. 한양은 國都의 위치로서 국가의 中心에 위치하며 水陸 交通이 편리하여 생활유지가 가능하고 外敵에 대한 위협을 막는데 安全保障의 방어적 好條件인 조건을 갖추어진 곳이다. 따라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建國하고 새로운 國都로서 여러 후보지(漢陽, 毋岳, 鷄龍山新都邑) 가운데 漢陽을 선정하는데는 풍수지리 이론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한양의 궁궐과 여러 부속건물의 配置는 풍수지리 이론인 背山臨水, 前低後高의 이론이 應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漢陽을 풍수지리 이론으로 分析해보면 水平軸과 垂直軸의 交叉點이며 漢陽局面에서 가장 首位인 “穴”의 위치에 宮闕을 배치하였으며 四大門 안을 內明堂, 四大門 밖을 外明堂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로축(外白虎 - 內白虎 - 內靑龍 - 外靑龍)을 연결한 축과 세로축(祖山 - 主山 - 案山 - 朝山)을 연결한 축의 交叉地點이 四大門 안인 內明堂 즉 현재 서울의 中心地이다.

한양도시 건설에 《周禮》〈考工記〉의 “左廟右社, 前朝後市”의 원칙과 풍수지리 이론(形氣論)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自然地形에 맞추어 宮闕과 그에 따른 附屬建物을 配置 하였으며 중요한 道路網을 만들어 그에 따라 商街를 配置하여 중국과는 다른 우리 지형에 맞는 獨特한 도시 건설을 구축하였다.

창덕궁의 전체적인 지세는 남북이 세장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西高東低形, 北高南低形 形狀이다. 창덕궁의 小形局을 풍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창덕궁의 주 능선(용) 봉우리 鷹峰(主山) - 90m 봉우리(太祖山) - 80m 봉우리(中祖山) - 60m 봉우리(小祖山) - 30m 봉우리(入首) 즉 인정전 바로 뒤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龍의 變化(上. 下)가 아주 旺盛한 生龍

으로 본다. 창덕궁에 나타난 지형적인 특성의 하나는 주요 殿閣과 標高와의 사이에 접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풍수 이론으로 보면 각각의 용의 山盡處에 殿閣을 配置했다. 그러므로 창덕궁은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 건설되고 明堂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昌德宮에서 가장 중요한 仁政殿의 축은 仁政殿 뒤쪽으로 펼쳐지는 언덕의 가장 높은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가장 잘 활용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다. 경복궁이 光化門에서 神武門에 이르는 軸을 中心으로 勤政殿, 思政殿, 康寧殿, 交泰殿 등의 주요 전각들을 一直線上으로 배치하였다. 昌德宮은 여러개의 능선(龍)에 따라 주요 殿閣들이 橫으로 配置하는 것은 우리나라 宮闕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1997년 창덕궁을 건축물과 자연지형의 조화가 뛰어난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극동 아시아 궁궐 건축으로서 정원 설계가 뛰어난 사례로 평가하여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했다.

창덕궁에서 남동향한 언택이 바로 종묘 입지의 배후가 되는 산줄기(龍)가 된다. 남동쪽으로 낮으막한 봉우리(入首)를 이루며 좌우의 산줄기(좌청룡, 우백호)를 형성하는 “穴”에 배치 했다.

종묘는 중세 동양건축의 白眉로 일컬어지고 있다. 종묘는 그 당시 세계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목조 건물로 가장 정제된 전형적인 건축물이다.

종묘는 1995년 12월 9일 UNESCO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경복궁, 창덕궁, 종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立地選定과 건물 配置는 풍수지리 사상과 이론이 가장 많이 깃들여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익혀 온 풍수지리 사상과 이론을 더욱 研究해 發展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1. 고제희 《풍수공부》 동학사 1998
2. 고제희 《한국의 묘지기행 1-3권》 자작나무 1996 - 1997
3. 김광제 《신 풍수 답사기》 지성문화사 2001
4. 김광제 《이런 곳이 명당이다》 한국문원 1996
5. 김대은 《기본완성 풍수지리》 우성상사 1993
6. 김대은 《풍수지리 총론》 우성상사 1993
7. 김동복 편저 《서울의혜》 이화출판사 2001
8. 김두규 《한국풍수의 허와 실》 동학사 1995
9. 김두규 역해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10. 김두규 역해 〈호순신저〉 《지리신법》 장락 2001
11. 김두규외 《권력과 풍수》 장락 2002
12. 김영상 《서울육백년 1-5권》 대학당 1994
13. 김종철 《명당요결》 꿈이 있는집 1995
14. 김종철외 《풍수지리 명당입문》 서울. 음양맥진 출판사 1996
15. 김준호 《자랑스런 우리집의 족보》 민중서원 2001
16. 김호연 《한국문중 풍수》 동학사 1996
17. 김호연 《한국의 명당》 동학사 1989
1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19. 박정수 《명가의 뿌리》 이가 출판사 1991
20. 백형모 《호남의 풍수》 동학사 1995
21. 서울문화사학회 《서울문화재》 수서원 2002
22. 서울시민문화대학편 《잃어버린서울 다시찾는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
23. 신영훈 《조선의 정궁》 조선일보사 2003
24. 신평 《지리오결》 동학사 2000
25. 오홍석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 동학사 1998
26. 유중근외 《한국의 풍수원리》 동학사 1997
27. 이경재 《다큐멘터리 서울정도 육백년 권3》 서울신문사 1994
28. 이경재 《한양 이야기》 가람기획 2003
29. 이규태 《이규태의 600년서울》 조선일보사 1993
30. 이덕수 《신 궁궐 기행》 대원사 2004
31. 이문호 《펑슈이 사이언스》 도원미디어 2003
32. 이문호 《풍수 과학이야기》 청양 2001
33. 이영환 〈조선종묘 초창시 공간 원형 및 좌향연구〉 《향토서울 제58호》

서울시 편찬위원회 1998

34. 이익성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5
35.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5
36. 이재우역 《천재 A반을 위한 생활속의 풍수》 비엔비 2002
37. 이호일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2003
38. 윤한택외2 《궁궐지2》 서울학 연구소 1996
39. 임사빈 《경기금석 대관 1-3집》 경기도 1988
40. 임응순 《수맥과 풍수》 계성출판사 1989
41. 장영훈 《서울풍수》 담디 2004
42. 장영훈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2000
43. 장용득 《명당론》 남영문화사 1980
44. 정소영옴김 《내가사는 가상》 하늘출판사 1995
45. 정용빈 《풍수지리 좋은산소터》 송원문화사 1995
46. 정판성 《생활수맥 건강수맥》 동학사 1996
47.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86
48. 조용헌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3
49. 조중근외 《신 풍수지리》 가교 2001
50. 지창룡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풍수》 책만드는집 1995
51. 최길성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5
52. 최영주 《신한국 풍수》 동학사 1994
53. 최완기 《한양》 교학사 1997
54. 최창조 《땅의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993
55. 최창조 《북한문화 답사기》 중앙M&B 1998
56.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57. 최창조역주 《청오경 금낭경》 민음사 2003
58.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창덕궁 종묘 원유》 문화재청 2002
59. 한동환외2 《자연을 읽는 지혜》 푸른나무 1994
60. 한상규 《역학원리 강화》 예문지 2002
61. 한영우 《창덕궁과 창경궁》 열화당 효행출판사 2003
62.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2001
63. 홍순민 《역사기행 서울궁궐》 서울학 연구소 1994
64. 홍순민 《우리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65. 홍순민 《우리궁궐 이야기》 청년사 2003
66. 《월간민속 1-2월 통합후》 크리에이티브 2004

참고 박사학위 논문

1.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연구〉, 세종대학교, 2003
2. 권선정, 〈풍수의 사회적 구성에 기초한 경관 및 장소 해석〉, 한국교원대학, 2003
3. 권영휴, 〈한국 주거환경의 풍수적 해석 및 입지 평가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2001
4.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1987
5. 이몽일, 〈한국 풍수지리 사상의 변천과정〉, 경북대학교, 1991
6. 장기웅, 〈풍수지리사상과 건축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2001
7. 홍순민, 〈조선왕조 궁궐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1996

참고 석사학위 논문

1. 강현구, 〈풍수지리 이론과 주거입지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2
2. 김성순, 〈비보풍수의 밀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3
3.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78
4. 박재용, 〈풍수지리설의 사상적 배경과 도시형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9
5. 박종득, 〈이기풍수와 형기풍수의 비교〉, 공주대학교, 2003
6. 박현영, 〈곽박 《장서》에 나타난 동기감응설 연구〉, 원광대학교, 2002
7. 이순자, 〈양택론의 주에 대한 해석 비교 연구〉, 대구 한의대학교, 2004
8. 유재백, 〈풍수에 의한 양택의 공간배치론 연구〉, 대구 한의대학교, 2004
9. 서정규, 〈한양천도에 풍수지리설이 미친영향〉, 성균관대학교, 1989
10. 정반석, 〈수원지역의 전통건축과 풍수지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3

※ 옛 文獻 解說

※ 동궐도

동궐도는 1824-1827년 사이에 제작된 우리나라 궁궐도의 대표작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 주변과 함께 묘사한 이 도면은 일종의 조감도로 건물의 배치와 짜임새, 그리고 주변 경관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건축사적의미와 조경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그 당시의 식생현황과 현존 식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남서쪽에 위치한 돈화문 주변에는 왕이 정치하는 곳임을 알리기 위해 중국 周代부터 궁내에 심어온 느티나무와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궁궐내부와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다.

※ 궁궐지(헌종대)

궁궐지는 조선시대 궁궐의 각 殿閣의 명칭, 위치, 연혁등을 적은 책이다. 여러종류의 책이 전해지고 있으나 그 중 숙종 때 편찬되어 현종 때 증보, 수정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종 때 증보, 수정된 궁궐지는 현종 연간(1834-1849)의 저술이며 5권 5책으로 제 1권 경복궁, 제 2권 창덕궁, 제 3권 창경궁, 제 4권 경희궁, 제 5권 도성지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각 궁궐별로 궁의 연혁을 적고 궁에 속한 전각별로 건물이 명칭, 위치, 용도등을 서술하였으며 건물과 관련된 시문 등을 수록하였다. 이 사료를 통하여 궁궐의 원래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으며 간혹 건물 주변의 풍광도 묘사되어 그 당시 경관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할 수 있다.

※ 한경지략

《漢京識略》은 순조 30년(1830) 유득공의 아들 柳本藝가 지었다. 이 책은 궁궐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각종 祭壇, 神殿, 苑囿(정원), 정자, 관청, 驛院, 교량, 고적, 산천, 명승, 洞, 市塵 등 서울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편찬하여 서울에 관한 연구자료로는 가치가 있으나, 궁궐의 변천이나 궁궐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소략하고, 정확하지 못한 것도 적지않다.

※東國輿地備攷

이 책은 순전히 궁궐에 관한 기록은 아니고, 서울의 성곽, 단묘, 원유, 곤청, 한성부의 직제 등을 포괄적으로 邑誌 형식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궁궐’항을 넣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의 각 전당을 소개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본예의 《한경지략》과 비슷한 성격의 책이다.

이 책은 작자를 알 수 없으나, 편찬 시기는 “지금의 임금 2년에 경복궁을 다시 중건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종 2년 이후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운궁에 대해 선조 때 이궁이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고종이 경운궁으로 이어한 1896년 이전에 편찬된 것이다.

또 낙선재 등 중요한 전당이 빠진 것이 적지 않으며, 연대를 잘못 파악한 것이 더러 있고, 각 전당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관찰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전당은 《궁궐지》보다 자세하게 그 내력을 기록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다.

※궁궐지(1908년경)

또다른 《宮闕志》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전당, 문, 행각, 복도, 궁장, 심지어 廁間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의 칸수와 尺量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 대신 현종 대 《궁궐지》에 보이는 각 전당의 창건 연대라든가 각 전당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 궁궐의 건축적 사항만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정확한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전에 있었던 전당들이 “지금은 없다”고 한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순종 때 창덕궁과 창경궁을 개조하던 무렵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궐도형

《東闕圖形》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각 전당의 배치도를 평면적으로 그린 평면설계도에 해당한다. 크기는 세로 442.5cm, 가로 276cm나 된다. 모눈을 그려 넣고 그 위에 각 건물과 연못 등의 평면도를 그리고, 각 내부 공간의 용도를 써넣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순종 때 편찬된 《궁궐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예를 들면, 창덕궁 후원에 순종 때 새로 만든 半島池와 그 옆에 세운 관람정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은 순종 때 《궁궐지》를 편찬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昌德宮修理都監儀軌

인조 25년(1647) 4월에 시작한 창덕궁 수리사업에 관한 보고서다. 광해군 때 지은 인경궁을 헐어다가 창덕궁 대조전, 선정전, 회정당, 저승전 등을 수리하는 데 재목으로 썼다. 지금 장서각(국립문화재연구소 대출)과 파리 국립도서관에 각각 한 권씩 소장되어 있으며, 도설이 없다. 장수는 184장(장서각)과 189장(파리)인데, 파리 소장본은 임금이 보기 위한 것이었다.

◇ 창덕궁의 연구자료

1. 조선왕조실록, 2. 동궐도, 3. 漢京識略, 4. 궁궐지(헌종대), 5. 東國輿地備攷, 6. 궁궐지(1908년경), 7. 동궐도형, 8. 儀軌(창덕궁수리도감의궤)

※ 現地 踏査한 곳의 目錄表

1. 경복궁, 창덕궁(後苑), 창경궁, 덕수궁, 남한산성행궁, 수원의 화성행궁 등
2. 종묘, 사직단, 원구단, 운현궁, 성균관대학교 등 다수
3. 서울성곽, 남대문, 동대문, 숙정문, 혜화문, 광희문, 창의문 등 다수
4. 북한산(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보현봉, 비봉), 도봉산, 북악산, 인왕산, 관악산, 낙산, 남산, 용마산, 청계산 등 다수.
5. 윤보선 전대통령 아산 생가택 및 서울 안국동 고택 및 그의 친척택 등 다수
6. 仁村 김성수 고택 생가택, 서울 고택 등 그의 친척택 등 다수.
7. 강릉선교장, 이퇴계선생 고택 및 서애 유성룡 고택 등 역사적으로 명문가인 생가 및 고택 등 다수.
8. 동구릉, 서오릉 등 조선, 고려 왕릉 및 조선의 왕가의 릉, 원, 묘 등 다수.
9. 서울조계사, 명동성당, 영락교회, 구인사 등 유명한 종교 건물 등 다수.
10. 이천서씨 시조, 중시조묘 등 각 성씨의 시조 및 중시조 묘 등 다수.
11.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종대왕, 이순신, 조광조 등의 생가터 및 그의 조상 묘 등 다수.
12.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국립묘지, 망우리공원묘지, 용미리공원묘지 등 서울근교 공원묘지 다수.
13. 안동도산서원, 병산서원, 양천향교 등 전국의 유명한 서원 및 향교 등 다수.
14. 조선역사의 세도가였던 안동김씨, 파평윤씨, 여흥(여주)민씨, 풍양조씨 가족묘 등 다수.
15. 조선의 3대 연속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인 달성서씨, 청송심씨, 청풍김씨 등의 조상의묘 등 다수.
16. 해방이후 현재까지 박정희 전대통령등 유명한정치가 및 재벌가의 조상묘 등 다수.
17. 기타 유명한 학자, 예술가, 체육인, 종교인의 생가 및 조상의 묘 등 다수.
18. 기타 민초들의 묘 다수.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Topology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Palaces Location Based
on the *Feng-Shui* Theory
- Centering on Gyongbokgung, Changdeokgung Palaces,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

Seo, Moon Jong
Major in Development & Manage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Lee Sung-gye, progenitor of Joseon dynasty, relied on *Feng-shui* thought and theory when he decided on the capital of his dynasty and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his palaces. So, we need to know about the *Feng-shui* thought and theory if we want to know about our authentic cultural background. Thu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geographic conditions for such palaces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as Gyongbokung Palace, Changdeokung Palace and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in terms of *Feng-shui* theory, topological analysis, background of their construction and their cultural values.

The *Feng-shui* theory was reviewed in terms of its concept, thoughts and detailed theories. In this regard, *Feng-shui* theory was divided into animism thought, God's Trinity and Five Kings thought, *Yin-yang* and Five Elements thought and *Chi* theory. The *Feng-shui* theory system consists of four elements: mountain vein, energy flow, sand and water.

In order to examine the four elements, six *Feng-shui* laws were reviewed specifically: mountain vein, wind-break, water supply, energy flow, orientation and overall shape.

In order to analyze the topology of Seoul, Sindo-up of Gyeryong

mountain, Muak mountain and Seoul were comparatively analyzed in terms of *Feng-shui* theory. Among them, Lee Sung-gye decided on Seoul because its many advantages and thereby, moved the capital from Kaesung to Seoul. In this regard, the topology of Seoul was reviewed centering around Four Divinities and Cheonggye stream in terms of *Feng-shui* theory.

Four divinities are Mt. Bukak symbolizing northern Turtle-Serpent, Mt. Nak or left Blue Dragon, Mt. Inwang or right White Tiger and Mt. Nam or southern Red Phoenix. And Cheonggye stream was regarded as a propitious river for Seoul

In particular, Cheonggye stream flows from West to East to join Han River. In this course, the left-turning mountain chain opposes the right-turning stream only to make Seoul look propitious. Seoul is a basin surrounded by mountains including Mt. Bukhan and numerous hills, and since it is harbored by four divinities, it could be protected by the natural fortress formed with the summits of the four divinities. In short, Seoul had such *Feng-shui* conditions for a propitious capital as ring of mountains and rivers, opposing forces of mountains and rivers and linkage by mouth of river.

Seoul was centered in the nation, having a convenient river and road traffic and rich supplies. It was a logistic center, being armed with the natural military fortresses and human geographical advantages.

The topology of Seoul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is the center of the nation.

Second, it is a propitious place in terms of *Feng-shui* theory.

Third, it has long been the center of Korea.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geographical advantages of Gyongbokung Palace, Changdeokung Palace and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in terms of *Feng-shui* thought and theory and thereb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Feng-shui* theory to our modern development of real estates.

In short, Gyongbokung Palace, Changdeokung Palace and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are located at precipitous points in Seoul in terms of *Feng-shui* theory. In particular, the major buildings of these palaces were deployed at "energy-flowing" points, cores of the precipitous places,

while other annexes were arranged according to *Feng-shui* theory.

Changdeokung Palace and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are recognized as unique and creative cultural heritages not only by the Korean people but also by the world, and thus, they have been designated as UNESCO world cultural assets to be preserved eternally. In other words, these two historical buildings are not only our cultural assets but also world cultural assets. Hence, we should be aware of their values to preserve and publicize them to the world and hand over them to our offsprings. In addition, we are obliged to research into and develop the *Feng-shui* thoughts and theory used by our ancestors.